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농사짓는 여성들

: 퍼머컬처 단체 <수락>의 자본주의 비판과 대안적 노동 모색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윤 유 선

농사짓는 여성들

: 퍼머컬처 단체 <수락>의 자본주의 비판과 대안적 노동 모색

지도교수 김 재 석

이 논문을 인류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윤 유 선

윤유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강 정 원 (인)

부위원장 김 재 석 (인)

위 원 박 지 환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퍼머컬처 실천 단체인 수락의 구성원들이 퍼머컬처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대안적 노동 방식에 대한 지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국내 퍼머컬처 실천 사례인 수락에 주목하여, 구성원들이 퍼머컬처를 실천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활동이 지니는 대안적 가치를 탐구한다.

영속적인 농업 및 문화를 뜻하는 퍼머컬처(Permaculture)는 1970년대 호주에서 산업적 농업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활양식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 체계이다. 퍼머컬처는 지역사회 중심의 풀뿌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확산하였으며, 한국에는 2000년대 이후 도입되었다. 한국의 퍼머컬처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그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등장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이들이 연합하여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를 출범하는 등, 퍼머컬처는 국내에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수락은 이러한 흐름에 참여해온 실천 단위 중 하나다. 수락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도시의 소비적 생활양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연구자는 수락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하며 퍼머컬처를 실천하게 된 동기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실천에서 대안적 노동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다.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와 그에 기초한 생활양식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 보며, 그 대응책으로 자급적·자립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지향은 농사 및 퍼머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연구자는 구성원들이 퍼머컬처를 실천하

게 된 배경에 관행농업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구성원들이 퍼머컬처와 같은 대안적 농업에 기초해 자급적 농사를 짓는 데에는 관행농업과 그것을 지탱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수락 구성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퍼머컬처를 실천하면서 어떠한 대안을 발견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퍼머컬처는 관행농업과 달리 '흙을 살리는' 대안적 농사법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는 구성원들은 일상적 모임과 축제와 같은 비일상적 행사를 통해 대안적 노동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자본주의적 노동과 달리 놀이와 생산이 결합하며 고됨과 즐김이 공존하는 노동을 실천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기반한 위계적 조직 문화의 대안을 추구하며 자율성과 공동의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임금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며,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사례이다. 이들의 퍼머컬처 실천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구성원들은 수락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비판의식과 대안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주요어 : 퍼머컬처, 농사, 노동, 자본주의, 기후 위기, 에코페미니즘
학 번 : 2019-27946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방법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대상 '수락'과 참여관찰 ····· 3

2. 퍼머컬처 ····· 7

1) 퍼머컬처의 정의 ····· 8

2) 퍼머컬처 개념의 기원 ····· 10

3) 퍼머컬처 윤리와 디자인 원리 ····· 14

4) 퍼머컬처에 대한 학술적 접근 ····· 16

3. 에코페미니즘 ····· 17

1) 에코페미니즘 개괄 ····· 18

2)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연결 ····· 24

4. 선행연구: 여성과 농사 ····· 32

5. 논문의 구성 ····· 34

Ⅱ. 퍼머컬처의 시작과 한국 내 도입 ····· 36

1. 퍼머컬처의 형성과 확산 ····· 36

1) 호주에서의 퍼머컬처 형성과 성장 ····· 36

(1) 단계별 발전 과정 ····· 37

(2) PDC(Permaculture Design Course): 호주 퍼머컬처의 확산 수단 ····· 40

2)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 양상 ····· 44

3) 퍼머컬처의 지역적 편중을 넘어서 ····· 47

(1) 퍼머컬처 실천의 서구 편중성 ····· 47

(2) 비서구 주변부의 퍼머컬처 실천 ····· 50

2. 퍼머컬처의 국내 도입 ····· 52
1) 도입기(2003～2013) ····· 53
2) 확산기(2014～2020) ····· 54
3) 정착기(2020～현재) ····· 59

Ⅲ. 퍼머컬처 공동체 수락 ····· 65
1. 수락의 형성과 변화 과정 ····· 66
1) 초기(2019～2020) ····· 66
2) 전환기(2021～현재) ····· 69
2. 구성원의 특성과 참여 동기 ····· 71
1) 구성원의 특성 ····· 72
2)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 ····· 75
3) 대안적 생활양식 모색 ····· 88
3. 관행농업 비판과 농촌 이주의 낭만화 경계 ····· 95
1) 자급적 농사: 산업적 관행농업 극복의 시도 ····· 95
2) 대안적 삶의 공간 모색과 도시에서의 대안 추구 ····· 101

Ⅳ. 수락의 대안적 농사와 노동 ····· 108
1. 대안적 농사 ····· 108
1) 퍼머컬처와 관행농업의 차이 ····· 109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사 ····· 117
2. 농사를 통한 대안적 노동 모색 ····· 122
1) 모임 일과 속 놀이와 생산의 결합 ····· 123
2) 비일상적 행사와 정치성 ····· 127
3)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 ····· 131
3. 대안적 문화와의 연대 ····· 135

Ⅴ. 결론 ····· 142

참고문헌 ····· 149
Abstract ····· 159

표 목 차

[표 1] 면담 참여자 목록 ····· 6

그 림 목 차

[그림 1] 2020년 수락 텃밭 전경 ····· 4
[그림 2] 2021년 이후 수락 텃밭 전경 ····· 5
[그림 3]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 ····· 16
[그림 4] IPCC의 구성 ····· 47
[그림 5] 세계 퍼머컬처 프로젝트 ····· 49
[그림 6] 전환 마을 선언 사례 ····· 58
[그림 7] 2020년 수락 모집 포스터 ····· 67
[그림 8] 퍼머컬처 실천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73
[그림 9] 볏짚과 작물의 부산물로 멀칭한 텃밭 ····· 113
[그림 10] 조율 시간 ····· 124
[그림 11, 12] 숲 산책과 채취 ····· 125
[그림 13] 시농제 ····· 129
[그림 14] 붉은 정령들의 퍼포먼스 ⓒ하무 ····· 130
[그림 15] 밭두렁 퀴어컬처축제 포스터 ····· 130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방법

1) 연구 배경

연구자는 2019년 여름, 충청남도 금산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를 배울 수 있는 주요 통로인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PDC: Permaculture Design Course)를 이수하면서 농사와 퍼머컬처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PDC를 진행하는 '퍼머컬처 학교'에서는 퍼머컬처를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모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음식, 섬유,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관과 삶의 터를 설계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PDC는 인간의 의식주와 문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개인, 가족, 지역공동체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과정이다.

퍼머컬처는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및 대안적 미래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이와 관련한 생태적·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기술-과학적(techno-scientific) 접근이 주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재고 없이 기후변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이라 비판받는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가 마주할 재앙적인 미래에 대해 모호하거나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가능한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과 실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Roux-Rosier, Azambuja, and Islam 2018: 551). 퍼머컬처는 이러한 대안적 미래를 위한 구체적 전환의 방식과 실천적 사례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연구자가 2020년부터 시작된 퍼머컬처 실천 모임인 ‘수락’에 참여하며 진행한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퍼머컬처를 배우며 실천하는 수락 구성원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실천이 기존의 보편적인 산업적 관행농업과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하고,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원들의 수락 참여 동기와 목적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단순히 영리적 생산 노동과 대비되는 여가나 취미로 규정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화한 농업이 사회적, 생태적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퍼머컬처를 통해 자급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관행농업 및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농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도시농업을 판매 중심의 생업 농업과 여가·취미 중심의 생활 농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관점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 진보와 성장을 통해 여가·취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은 노동과 여가의 이원론적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적 노동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반면, 여가는 노동에 부재한 즐거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비적이고 부차적인 시간으로 여겨진다. 가령 시장 판매보다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 행위는 자본주의 생산과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비노동·비생산적인 여가·취미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왔다.

노동과 여가의 이원론적 구분을 따른다면 수락 구성원들의 농사 행위는 임금노동 중심의 삶을 보완하는 여가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실천을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해 부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실천이 단순히 비생산적인 여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대안적 농사 및 노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과 연결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

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억압이 구조적으로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고, 따라서 자연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여성에 대한 억압 해소 노력을 연결시키는 이론적·실천적 논의다. 연구자는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 비판과 대안적 노동에 관한 논의가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 경험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의식은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 구조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미즈 2014[1986])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퍼머컬처의 개념과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논문 본문에서 다루는 수락의 대안적 농사 및 노동이 기반을 두는 퍼머컬처와 에코페미니즘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해 퍼머컬처와 에코페미니즘이 연결되며, 따라서 이들의 영농행위는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연구가 이루어진 공간인 수락 텃밭과 연구 대상인 수락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수락'과 참여관찰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PDC를 수료한 후 서울에 돌아와 퍼머컬처를 실천할 수 있는 텃밭과 관계망을 찾고자 했다. 2019년 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농사 모임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2020년 초부터 수락에 참여하며 농사를 짓게 되었다.

수락산 자락에 있는 수락 텃밭은 약 700평으로, 2020년 4월에 조성하였다. '그림 1'은 한 수락 구성원이 드론으로 수락 텃밭 전경을 촬영한 것으로, 아래쪽에 있는 텃밭은 세 개의 원형 만다라(mandala) 모양을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중앙의 가장 큰 원형 밭은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1]의 상징인 모래시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위쪽 밭의 경우, 우

1) 멸종 저항 혹은 멸종 반란은 기후 및 생태 위기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을 막

측에는 ‘생명의 씨앗(Seed of life)’ 문양의 밭과 좌측에는 나뭇잎을 본뜬 곡선 모양 밭이 위치한다. 구성원들은 이를 각각 ‘1층 밭’ 또는 ‘멸종 저항 텃밭’, ‘2층 밭’ 또는 ‘생명의 씨앗 텃밭’이라 부른다.

<그림 1> 2020년 수락 텃밭 전경

2021년에는 1년 과정의 PDC를 수락 텃밭에서 진행하면서, 해당 기수의 PDC 참여자들이 실습을 위해 추가로 텃밭을 조성하였다. 이를 ‘3층 밭’ 또는 ‘바람길 밭’이라 부른다. 2021년 PDC 참여자들은 수락과 별도의 집단이지만, 당시 수락 구성원 4명이 PDC를 진행하는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또 다른 수락 구성원 1명이 PDC에 참여하였다. 이후 2022년부터는 2021년 PDC 수료자 중 일부가 수락의 신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층 밭도 수락 텃밭의 일부로 가꾸고 있다.

기 위해 저항한다는 뜻으로, 2018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기후 운동이다. 멸종 저항 운동의 상징인 모래시계는 지구를 나타내는 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멸종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뜻한다. (출처: Extinction Rebellion)

<그림 2> 2021년 이후 수락 텃밭 전경 (출처: 구글어스)

수락 텃밭은 공동밭과 개인 밭으로 나뉜다. 수락은 1년간의 농사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초에 그 해의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존에 참여했던 구성원 일부가 개인 사정에 따라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은 개인 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농사를 이어갈 기존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신규 구성원이 유입된다. 이렇게 모집한 구성원들은 2월 말에서 3월경 이루어지는 첫 공동 농사 모임에서 희망에 따라 최소 5평부터 20평 이상의 개인 밭을 분양받는다. 나머지는 공동밭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가꾼다.

매달 2회 이루어지는 공동 농사 모임에서는 공동밭을 중심으로 일하며, 개인 밭은 각자 다른 날 시간을 내어 돌본다. 공동밭은 약초류나 허브 등 매년 새로 심지 않아도 되는 다년생 작물들을 심어둔 구역이 있으며, 그 외에는 매년 감자나 배추 등 특정 일년생 작물을 돌아가며 심는다.

연구자는 2020년 말 본 연구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3월부터 공동 농사 모임에서의 참여관찰에 바탕을 둔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관찰은 2021년 11월까지 지속하였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는 2020년부터 수락에 참여해온 구성원들의 경험이 언급되기도 했으며, 연구자 역시 2020년부터 참여해 왔기에 필요시 2020년의 사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2022년에 나타난 변화상도 필요시 반영하였다.

참여관찰은 매달 2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농사 모임에서 진행했다. 모임에서 수락 구성원들은 공동밭을 중심으로 절기마다 필요한 작업을 진행한다. 모임 시 연구자와 구성원들이 나눈 대화를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 분위기, 경향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심층 면담은 구성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8명은 대면 면담, 2명은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참여자 중 9명은 2020년부터 수락 구성원으로 참여해왔으며, 1명은 2021년에 새로 합류하였다.[2)]

2021년을 기준으로 수락의 구성원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분포한다. 심층 면담 참여자 역시 전원 여성이며,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하고자 하여 20대 3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하였다. 수락에서 구성원들은 대부분 실명보다는 자연물의 이름을 따거나 각자 의미를 담아 만든 별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별칭과 겹치지 않는 가명을 만들었다.

	성명	성별	연령대	직종/활동 분야
1	토마토	여성	20대	환경단체
2	수선화		30대	사회적 기업
3	딸기		60대	대안 문화단체
4	우엉		30대	협동조합
5	바람		50대	교육
6	해바라기		20대	생태교육
7	들깨		40대	협동조합
8	민들레		50대	숲 해설사
9	옥수수		20대	시민단체
10	박하		40대	스타트업, 협동조합

<표 1> 면담 참여자 목록

2) 2020년 수락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에는 기존 구성원과 그 지인을 중심으로 재모집을 하여 23명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신규 모집자는 2명으로 소수이며, 나머지 21명은 모두 2020년부터 참여하였다.

2. 퍼머컬처

수락은 '퍼머컬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3] 선행 단락에서 언급했듯이, 수락은 단순히 농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퍼머컬처를 실천하기 위해 형성된 모임이다. 또한, 스스로 '공동체'라고 명명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적 이익이나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동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성원들은 퍼머컬처를 배우고 익히겠다는 의지와 관심이 있었기에 다른 도시농업 현장이 아닌 수락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어떠한 운동이며,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머컬처는 1970년대 호주에서 대안적 농업 및 생활양식을 위한 디자인 체계로 고안되어 여러 국가로 확산하였다. 퍼머컬처는 특히 산업적 농업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는데, 산업적 농업은 토양 및 수질 오염, 단일경작 체제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위기,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으로 인한 식량 주권 박탈, 대규모 기업농의 등장으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소멸 등 여러 생태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산업적 농업과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경제 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사회구조 및 신념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대안 농업(alternative agriculture)들이 등장했다(Tovey 1997). 퍼머컬처도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에, 농업의 산업화를 비판하며 등장한 대안적인 농법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퍼머컬처를 단순히 농사법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는 없다. 이는 퍼머컬처가 농업에 기초한 인간의 의식주 및 문화생활 전반을 설계하는 포괄적인 디자인 체계로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을 포함한 생활양식을 설계하는 디자인 원리인 퍼머컬처는 마을, 도시, 개별 가구, 텃밭, 건축물, 학교, 공유지 등 다양한 단위와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퍼머컬처의 총체성은 퍼머컬처가 사회·생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아래 절에서는 퍼머컬처의 등장 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퍼머컬처의 정의와 퍼머컬처

3)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수락'이라 칭한다.

개념의 기원, 퍼머컬처의 핵심적 내용인 윤리와 디자인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4)]

1) 퍼머컬처의 정의

퍼머컬처(Permaculture)란 영속적인(permanent) 농업(agriculture) 및 문화(culture)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1970년대 호주에서 빌 몰리슨(Bill Mollison)과 데이비드 홈그렌(David Holmgren)이 고안한 생태적 디자인 체계이다.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체계라는 점이 퍼머컬처의 특징인데, 디자인 체계는 어떤 문제와 그 해결방식을 그것이 걸쳐져 있는 사회, 경제, 환경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큰 맥락에서 다루는 사고방식을 전제한다. 퍼머컬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총체적 체계 디자인(whole systems design)(Grayson 2015: 15-17)이라 부르며, 피상적이거나 단기적인 해결이 아닌 효율적인 해결책을 고안한다.

총체적인 디자인 체계(holistic system of design)로서 퍼머컬처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기반으로 도출한 디자인 원리를 인간사회의 여러 영역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건축, 관개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인 영역과 교육, 지역사회 자치, 건강 등 사회적, 추상적 영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농업과 관련해서는 혼농임업(agroforestry), 유기농업, 자생식물 채집(wild harvesting), 숲 가드닝(forest gardening), 씨앗 보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 바람,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패시브 건축(passive solar),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사용과 재활용 등이 모두 퍼머컬처를 구성한다.

퍼머컬처는 삶의 여러 영역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영역의 기능과 역할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하도록 디자인한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원리와 패턴을 모방하는 디자인을 통해 주거, 음식, 섬유, 에너지, 치유, 문화 등 삶의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족적(self-sufficient)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영속적

4) 퍼머컬처가 호주에서 등장하고 확산한 구체적 과정은 Ⅱ장에서 상술한다.

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에 맞서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일하는” 디자인 체계와 철학(Mollison 1988: 3; Suh 2014: 80에서 재인용)이다.

퍼머컬처의 정의는 출처마다 조금씩 다르며, 점점 확장되어왔다. 몰리슨과 홈그렌은 퍼머컬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책 『Permaculture One: a Perennial Agriculture for Human Settlements』에서 퍼머컬처를 “인간에게 유용한 다년생(perennial) 혹은 자기영속적인(self-perpetuating) 동식물종의 통합적 발전 체계”로 정의한다(Mollison and Holmgren 1978: ⅰ). 이후 퍼머컬처는 농업에 초점을 두되 인간 주거와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로 재정의되어왔다. 가령 “농업의 생산적인 생태계가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회복력을 지니도록 의식적으로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것”(Mollison 1988: ix),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모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음식, 섬유, 에너지를 풍부히 산출하도록 의식적으로 디자인한 경관”(Holmgren 2002: xix)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퍼머컬처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서로 다른 초점들을 포괄한다. 잡지 퍼머컬처 활동가(Permaculture Activist)는 퍼머컬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퍼머컬처란 총체적인 디자인 체계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하며, 전통적 지식과 현대 과학의 발견으로부터 배운다. 적극적인 행동과 풀뿌리 교육 철학을 실현하며, 음식, 주거 등 생활을 위한 자원과 생계를 위한 수단에 대한 관리 능력을 되찾는다. 지역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중앙집중화된 권력에 대한 유일한 대항이기에, 이들에게 생활과 생계 수단에 대한 관리 권한과 능력을 돌려줌으로써 사회를 재구조화하고자 한다(Permaculture Activist 2004: 3; Veteto and Lockyer 2008: 4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퍼머컬처가 단순히 농업이나 정원 가꾸기를 위한 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Fadaee 2019). 퍼머컬처는 윤리와 디자인 원리, 지속 가능한 문화 및 농업을 만들기 위한 기법들을 제시하며, 여러 국가에서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학과 원리를 제시하는 풀뿌리 운동으로 실천되고 있다(Veteto and Lockyer 2008: 49).

2) 퍼머컬처 개념의 기원

물론 영속적인 농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퍼머컬처가 최초는 아니다. 여러 선구적 실천 사례와 저서들이 존재하며, 『Permaculture One: a Perennial Agriculture for Human Settlements』(Mollison and Holmgren 1978)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속적 농업을 후대에 이어받아 퍼머컬처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머컬처를 근대 농업 과학과 전통적·생태적 지혜 사이의 지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정의하기도 한다(Suh 2014: 77). 즉 퍼머컬처는 영속적 농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전통적 농업 관행의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통적 농업 방식을 회복, 통합하며 지역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퍼머컬처에 영향을 준 농법 및 관련 논의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농사 방식,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속적 농업에 대한 논의와 체계 생태학(systems ecology) 개념, 197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자연농법 철학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영속적인 농업 개념의 기원에는 자원의 재순환, 작고 느린 방식의 해법, 노동집약적 농사가 특징인 동아시아의 전통 농업 체계가 있다(Suh 2014). 동아시아의 전통 농업 체계를 연구한 홉킨스(Hopkins)와 킹(King)은 20세기 초 미국 농업대학에서 장려하던 관습적 농업(conventional agriculture)과 구분하기 위해 영속적 농업(permanent agricul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토양 과학자였던 킹은 중국, 한국, 일본의 농업 방식을 현지 조사하여 1911년 『Farmers of Fou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and Japan』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저서는 현재까지도 유기농법의 고전으로 여겨진다(Heckman 2013). 킹은 동아시아에서 가축과 사람의 분뇨, 작물의 부산물, 재 등 각종 자연 부산물과 유기물질을 퇴비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퇴비, 관개와 배수 통합 체계 개발과 유지, 다모작

(multiple cropping), 콩과 식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활용, 부식토 유지를 위한 녹비(green manure) 작물 활용, 여러 종류의 잔여물을 충실히 다시 땅에 돌려주는 행위를 영속적 농업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미국에서 혼농임업(agroforestry)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스미스(Joseph Russel Smith) 역시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과일, 견과 등 다양한 나무 작물(Tree Crops)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존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무 작물의 가치재고를 주장하였다. 경사면이나 가장자리를 활용해 나무를 심으면 나무뿌리가 경사면을 고정하여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 이러한 나무 작물은 일년생 농작물과 일부 다년생 풀에 의존하는 가축의 먹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스미스는 토양 유실을 최악의 자원 낭비로 보고, 나무 작물이 토양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mith 1911). 토양 유실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무경운(無耕耘)과 멀칭(mulching)[5]에 대한 주장으로도 이어진다(Smith 1914). 스미스는 경운 없이 농사를 짓는 방식이 토양을 보존하고 작물 생산을 증가시키며, 멀칭은 토양 유실을 막고 수분을 보존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29년 『Tree Crops: A Permanent Agriculture』를 출간하였다. 농업 작물, 가축,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무의 다양한 기능에 주목하며, 무경운과 멀칭의 중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영속적 농업의 개념을 제시한 선행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하워드 오덤(Howard Odum)의 생태 체계 이론은 퍼머컬처가 강조하는 총체적 체계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오덤은 열역학적 관점에서 체계 생태학(systems ecology)의 틀을 발전시켰는데, 생태계를 전기 회로처럼 에너지가 흐르며 저장 및 변형되는 네트워크로 보았다. 이러한 생태계는 자기 충족적인 체계(self-organization)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종들은 고유하지만 서로 교환이 가능하며 이때 각 종이 기원한 지역과 무관하게 선택될 수 있다. 자기 충족적인 생태계에서는 여러 생

5) 토양 표면을 비닐이나 짚 등으로 덮어 수분의 증발과 토양 유실 방지, 잡초 방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양 관리 방법이다.

물종의 투입과 산출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에너지와 자원을 교환한다. 이러한 작용들은 인간의 노동과 물질 투입을 대체하여, 최소한의 인간 노동 투입으로 소출을 얻게 한다(Ferguson and Lovell 2014: 253-254).

세 번째, 서구 학자 외에도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Fukuoka Masanobu)가 1970년대에 자연농법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철학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퍼머컬처와도 영향을 주고받았다.[6] 자연농법은 농업의 영속성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아이디어를 연결하였으며, 무경운,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제초의 4무 농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자연농법에서는 토양이 지렁이와 식물의 뿌리를 통해 자연적으로 경작한다고 본다. 풀 역시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므로 벨 필요가 없다. 농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녹비 작물과 동물 거름으로 충분하기에 비료 역시 불필요하다. '하지 않는 것'이 농업의 영속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자연농법의 관점은, 자연이 스스로 유지하는 영속적 체계를 이루도록 한다는 점에서 퍼머컬처와 같은 철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퍼머컬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농사 방식과 일본에서 시작된 자연농법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덤의 생태 체계 이론을 참조하여 단순한 농사법이 아닌 디자인 체계로 고안되었다(Suh 2014).

퍼머컬처 개념의 기원에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농사법이 있다는 점에서, 호주에서 시작된 서구적 개념인 퍼머컬처가 다시 아시아 지역에 도입되었을 때 지역민들의 전통 농업에 대한 지식과 충돌하기도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퍼머컬처를 접하는 사람들은 퍼머컬처의 구체적 농사 기법과 철학적 바탕이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 농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퍼머컬처를 기존의 산업적 농업에 적용하는 데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퍼머컬처는 서구에서 들어온 생소한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사 기법은 한국의 전통 농업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6)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1978년 『짚 한오라기의 혁명』으로 출간되어 25개 언어로 번역되며 주목받았다.

서 이미 아는 것으로 치부되어 관심을 끌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민에게도 일반적인데, 수락의 구성원 바람이 처음 퍼머컬처를 접하고 보인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

> 퍼머컬처 수업을 하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년생 심어야 하고 다양한 것들 섞어 심어야 하고 단일 작물 심으면 안 되고 돌려 심어야 되고 멀칭 해야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뭐 독특해가지고 퍼머컬처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지었어?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구만. 윤작하고 돌려짓기 하는 거고 섞어짓기 하는 거고 다품종, 우리 할머니들 텃밭은 다품종이고 그렇잖아요. (바람)

이러한 측면은 인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퍼머컬처를 적용한 인도 농부들은 퍼머컬처라는 명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씨앗 보존이나 나눔을 실천하는 인도의 전통 농업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받아들였다(Fadaee 2019: 728).

나아가, 퍼머컬처에서 제시하는 원리나 방식이 원주민들의 토지 관리 관습 및 문화와 유사하며 그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퍼머컬처만이 독창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에 비판이 제기된다. 퍼머컬처의 디자인 원리와 농사법에 반영된 토착적 생태 지식이나 관행이 “부유한 국가 출신의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남성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문화적 전유라 보기도 한다(Conrad 2014: 76-77). 이처럼 퍼머컬처가 서구적 개념으로 여겨지며 비판받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 농민들은 퍼머컬처를 통해 원주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며, 식민 지배 당시 근대적 농업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전통적 농사 관행을 되찾기도 한다. 이들은 특정 농업 설비나 기술 등 주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도구로서 퍼머컬처를 받아들인다. 특히 소규모

자급적 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퍼머컬처가 기존의 토착적 농업 관행 및 지식과 과학적 개념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잘 수용되고 있다(Didarali and Gambiza 2019).

퍼머컬처는 수천 년 전부터 실천되어온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토착 농업과 철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퍼머컬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resiliency)과 관련한 담론이다. 즉 퍼머컬처는 전 지구적 기후·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산업적 농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맥락에서 전통적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퍼머컬처 윤리와 디자인 원리

퍼머컬처는 구체적인 디자인 원리와 전략, 기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근간에는 윤리(Ethics)가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퍼머컬처 윤리 3가지는 땅을 보살피라(Earth Care), 사람을 보살피라(People Care), 공정하게 분배하라(Fair share) 이다. 각각 생태계의 재생과 재건, 자신과 후세대 인간 및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 땅과 사람에 대한 재분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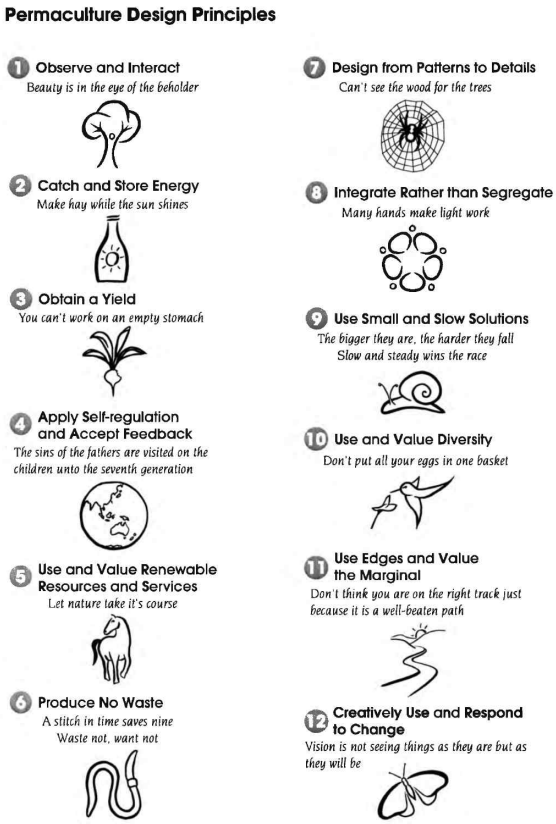
퍼머컬처 윤리는 지속해서 변형되거나 재해석되어왔다. 각 윤리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통하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세 번째 윤리인 '공정하게 분배하라'라는 땅과 사람을 보살피라는 다른 두 윤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Holmgren 2002),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와 소비에 한도를 정하라(setting limits to population and consumption)'(Mollison), '필요 이상의 잉여는 재분배하라(redistribute surplus to one's needs)'(Morrow), '소비와 재생산에 한도를 두고 잉여를 재분배하라(Set limits to consumption an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e surplus)'(Holmgren) 등의 변형된 표현이 있다(McGowan 2019). 이러한 3번째 윤리는 모두 먹거리와 같은 재화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퍼머컬처 저술가인 헤멘웨이는 3번째 윤리를 '잉여를 되돌려주라'(Hemenway 2001)라고 표현하며 수확물뿐 아니라 시간, 토지,

돈, 관심 등 다양한 잉여와 잔여를 재분배하고 투자한다는 의미로 확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변형하여 '미래를 보살피라(Future Care)'(Watson 2019)는 윤리를 선호하는 퍼머컬처 실천 조류도 존재한다(McGowan 2019).

국제적으로 퍼머컬처 윤리는 위와 같은 3가지가 통용되고 있으나, 네 번째 윤리도 찾아볼 수 있다. 분배 및 재분배에 관한 세 번째 윤리가 둘로 나누어져 네 번째 윤리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한계에 대한 인식(Limits aware)'과 '잉여의 분배(Surplus share)'가 그 사례이다(Mars 1996: 2; McGowan 2019에서 재인용). 이외에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시하게 된 지점을 새로운 윤리로 만들기도 한다. 그 예로 '영혼을 보살피라(Spirit Care)'[7]와 '전환 윤리(Transition Ethics)'를 들 수 있다. 전환 윤리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리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택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Gallant 2016). 이와 같은 퍼머컬처 윤리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소모임 등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방식에 적용될 수 있으며, 디자인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는 12가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원리는 "1)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라, 2) 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 3) 수확을 얻어라, 4) 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5) 재생 가능한 자원과 용역을 사용하고 가치 있게 여겨라, 6)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마라, 7) 패턴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부 사항으로 설계하라, 8) 분리하기보다 통합하라, 9)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10) 다양성을 이용하고 소중히 하라, 11) 가장자리를 사용하고 주변부를 소중히 하라, 12) 변화를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반응하라"이다(Holmgren 2002: viii).

7) 2005년 시드니에서 열린 제8회 APC에서 로빈 클레이필드(Robin Clayfield)가 제안했다(Griffiths, Solkinson and Ma 2011).



<그림 3>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Holmgren 2002: viii)

4) 퍼머컬처에 대한 학술적 접근

구체적인 디자인 원리와 윤리를 제시하는 퍼머컬처는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학술적 차원에서 퍼머컬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퍼머컬처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공간 설계를 위한 방법론이나 농업 기술로서 퍼머컬처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전환, 사회-생태 체계, 정치과학, 사회심리학, 환경 사회학 등 환경론(environmentalism) 연구 분야에서 퍼머컬처를 풀뿌리 행위자로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지속 가능한 전환 담론이 하향적이고 기술주의적(technocratic) 접근에 치우쳤

던 것에 비해, 풀뿌리 네트워크와 사회운동의 환경 문제 해결방식과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퍼머컬처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Ferguson and Lovell 2015).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농촌 마을 조성 및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퍼머컬처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퍼머컬처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해외의 초기 퍼머컬처 연구와 유사하게, 퍼머컬처를 농촌 및 농산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 설계 원리로 다루었으며(김영민 2001; 최영호 2006; 이신애·정재용 2016), 이에 따라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실천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설계나 농촌 마을 개발에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퍼머컬처를 다루기보다는, 퍼머컬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주목하였다. 이는 풀뿌리 행위자로서 퍼머컬처 실천 사례를 다룬 기존 연구들(Ingram, Maye, Kirwan, Curry, and Kubinakova 2014 ; Fadaee 2019; McCarthy 2019; Oliveira and Penha-Lopes 2020)과 유사하다. 특히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수락과 같은 퍼머컬처 실천 현상이 단지 대안적·생태적 농업에 관한 관심에 따른 일시적 유행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에코페미니즘

본 연구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수락의 실천을 해석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수락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은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임금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며, 수락의 실천과 같은 자급적 농사는 무임금의 비생산적 노동, 혹은 비노동으로 배제해왔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수락에서의 실천 속에서 대안적 농사와 노동의 가능성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노동과 상품 소비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의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대안적 생활양식에서 농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인 영역이라 생각하며 퍼머컬처를 실천하고 있다. 즉 수락 구성원들은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며,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적 주장이 퍼머컬처와 어떤 연결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주된 문제의식을 마리아 미즈의 논의를 통해 설명한다.

1) 에코페미니즘 개괄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소와즈 도본느(Françoise d'Eaubonne)가 생태학(Ecology)과 페미니즘(Feminism)을 합성해 생태적 페미니즘(Ecofeminism)이라 칭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론과 사회운동 차원에서 개별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문순홍 1995: 316). 이론적 차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대안 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생태론자들의 대안 사회 혹은 생태공동체에 대한 이미지가 동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Ibid: 317). 사회운동 차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인도의 칩코(Chipko) 운동,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미국의 러브캐널(LoveCanal) 캠페인 등 여성 중심의 생태운동이 전면에 등장한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8]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은 페미니즘과 생태학 사이의 유사한 목표를 인식하면서 결합하였다.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사이의 연관성은 1970년대 급진주의 및 문화 페미니즘에서 제기

8) 칩코 운동은 인도 북서부 가르왈(Garhwal) 마을 여성들이 정부의 삼림 벌채에 반대하며 나무를 껴안아 보호하며 시작되었으며, 에코페미니즘의 상징적인 운동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운동은 농촌의 연료 문제 해결, 사막화와 토양 침식 방지를 목적으로 나무를 심어 각 마을을 둘러싸는 그린벨트를 만든 것으로, 여성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러브캐널 캠페인은, 러브캐널 거주민이던 로이스 깁스(Lois Gibbs)가 아들의 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유독물질 등 산업사회가 초래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정치화한 지역사회 운동이다(Salman 2007: 858-859).

한 주장이다. 특히 문화 페미니즘은 자연과 연관된 여성의 경험과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였다(황주영 2016a: 301). 그러나 급진주의 및 문화 페미니즘에 바탕을 둔 초창기 에코페미니즘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라 비판받았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신체를 성적 차이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여성의 신체적 기능들은 억압의 원천이며 신체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을 남성보다 더 자연적인 상태에 얽매여 있다고 보는 가부장제의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문화 페미니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신체의 특수성이 남성 문화와는 다른 여성 문화의 원천이 되며, 그것이 자연과 문화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두 입장 모두 여성 신체의 기능과 구조를 근거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연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고 보는데, 이는 가부장제의 가정과 같다(Ibid: 300).

초창기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이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비판 속에서, 1980, 1990년대 에코페미니즘 내부에서는 성별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의 연결성이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연결성 속에서 생태주의적, 여성 해방적인 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인 저항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했다(Ibid: 307).

이러한 흐름에서 마리아 미즈는 1980년대 가부장제와 자본축적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 자연에 대한 폭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해왔으며, 이는 자본주의-가부장제 패러다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미즈 2014[1986]). 미즈는 당시 페미니스트 대부분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보다 가부장제만 다루었던 것을 지적하며, 지배적인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가부장제와 달리 진보적이고 근대적이기에 가부장적 구조와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봉건적 잔재로 여겨졌으나, 미즈는 가부장적 폭력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주장한다(Ibid: 19-20).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미즈의 이론적 이해는

1980년 무렵 가사노동의 역할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미즈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자본축적 과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급노동이 필수적임을 설명한다. 여성을 '가정주부화'[9]함으로써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고, 국민총생산에 기록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더해 유럽 초기 자본가의 외국 영토 식민화, 영토와 사람에 대한 약탈과 강탈, 근대의 노예제가 자본주의의 출발에 기여했다(Ibid: 21). 즉 자본의 원시적·지속적인 축적에 기초한 경제체제는 서열적, 착취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성, 식민지, 자연에 대한 폭력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에 핵심이었다는 미즈의 주장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의 노동 분업을 문제 삼는다. 성별 노동 분업과 국제적 노동 분업은 자연-인간, 여성-남성, 공적-사적 영역 등 위계적인 이항 구조에 기초하며, 제3세계 노동자와 서구사회의 가정주부는 상품생산과 자본에 기초한 의존적 관계로 묶여 있다. 미즈는 이를 '식민지(colonies)'들에 대한 의존이라 칭한다.

연구자가 이러한 미즈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개념이다.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사적 영역의 무임금 노동, 자원화된 비인간 자연, 국제 노동 분업을 통한 저임금 노동은 비노동이자 비생산으로 취급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적 노동 개념이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잉여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이와 다른 형태의 노동들, 즉 상품 생산 바깥에 있는 노동 형태들은 자연적이며 전-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즈는 이를 여성 노동의 자연화(naturalization)라 말하는데, 그는 맑스가 임금노동을 생산적인 것으로, 다른 형태의 무임금 노동은 비생산적이거나 자연적이라 부름으로써 여성

9) 가정주부화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가사노동과 소비의 주체로서 가정주부를 만들어낸 전략으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 경제에 나타난 변화는 미즈가 가정주부화라 불렀던 것과 같은 저임금의 취약한 일자리를 동반했다. 다국적 자본은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는 남성 노동도 가정주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의 자연화에 기여했다고 비판하였다(Mies and Salleh 1990: 74).

자본주의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무상 생명 생산 및 자급을 위한 생산 노동을 활용, 착취, 전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미즈 2014[1986]: 125), 자본주의는 이러한 무임금 노동의 형태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 여성, 노예, 계약직 노동자, 식민지 농민 등 무임,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삶의 일반적·자급적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 노동을 구축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상품 잉여가치 생산을 위한 노동이 아닌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위한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관련한 수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미즈는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무임 노동과 임금노동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농부의 자급형 노동, 식민지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비공식 영역의 노동, 자연의 생산 등, 자본축적 과정에 이용된 무상노동의 영역들을 자본주의 정치경제 분석과 논의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미즈는 무상노동과 임금노동이라는 구분, 즉 '노동'과 '노동이 아닌 것'에 대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미즈의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연-인간 이원론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 및 자연에 대한 지배를 통해 여성, 자연, 식민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미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근간에 있는 자연-인간 이원론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노동 개념의 변화를 주장한다. 자연-인간 이원론, 미즈의 표현으로는 '남성과 여성, 사람과 자연 등을 식민지적으로 이분하는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착취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의 창조와 자율성의 회복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Ibid: 433).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제기하는 자본주의 노동 및 생산에 대한 비판 지점은 미즈의 논의를 참고하여 노동-여가 이원론, 생산-소비 분리, 자연의 자원화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체제는 노동과 여가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본주의 정치경제 논의에서 다양

한 형태의 무임 노동을 배제해왔다. 특히 맑스는 자본주의의 생산적인 노동 개념이란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잉여 생산을 위한 노동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잉여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 형태들은 현대 경제학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연적이고 당연한 비생산적 노동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생산 노동에서 배제된 다양한 형태의 무임 노동들은 여가로 치부되기도 했다. 자본주의 임금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부담되거나 고된 일인 반면, 여가는 노동에 부재한 즐거움, 쉼, 놀이를 포함한다. 진보와 성장을 전제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노동과 여가는 양립할 수 없는데,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시간이 축소되어야만 여가가 확대되어 자유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임금노동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 생산 영역은 소비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두 영역은 시장과 유통망을 통해서만 연결된다(미즈·시바 2020[1993]: 481). 개인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양분되어, 생산자로서 인간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하고, 소비자로서 화폐를 상품과 교환한다.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익명의 시장을 위해 생산한다. 즉 생산자에게는 교환가치가 중요하지만, 소비자는 사용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지닌다. 생산자는 화폐 산출량의 최대화를 위해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 기술, 상품도 지속하여 생산한다. 동시에 소비자로서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 환경을 요구하기에, 상품의 생산과 소비는 근본적인 모순 관계를 지닌다(Ibid: 481-482). 서로 분리된 생산과 소비의 모순 관계는, 노동의 목적이 삶의 생산이 아니라 물질과 부의 생산에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때 삶을 유지하고 통제할 권리와 수단은 상품 소비에 있다.

세 번째, 자본주의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자원의 저장소로 대상화·외부화해왔다(미즈 2014[1986]: 176). 미즈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제하에 사회와 자연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사회와 자연의 관계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조직된다면 자연은 공공의 재산으로 존재

하는 반면, 이윤과 축적이 목적일 때 자연은 자원이 된다(미즈·시바 2020[1993]: 438). 자원이 아닌 공공의 재산으로 존재하는 자연은 인간사회에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존의 기반을 획득하기에,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소비의 한계를 인식한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연을 이윤과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원화하여,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상업화하여 자본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이러한 자연 자원의 과잉 개발에 기초한다(Ibid: 439).

자연을 자원으로 대상화·외부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분법적 원리에 기초한다. 미즈와 벤홀트-톰젠은 여성과 자연이 자연의 대상화와 외부화를 합리화하는 근대 과학의 논리 아래 종속되어왔다고 주장한다(미즈·벤홀트-톰젠 2013[1999]).[10] 여성, 자연,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전유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가부장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람과 자연, 정신과 물질, 다양한 국민과 계급 사이를 식민지적으로 이분하는 원리에 기초해 상품 생산과 자본 축적을 위한 착취가 이루어진다(미즈 2014[1986]: 432).

이러한 이분법적 원리의 근간에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자연-인간 이원론이 있다. 무어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 자연을 외부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 자본 축적의 기본조건이라 주장한다(무어 2020[2015]). 이 원론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자본화되는 미자본화된 영역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고 제어될 수 있으며 환원될 수 있다. 특히 농경은 본래 자연과 인간의 공동생산이었으나(Ibid: 388), 산업화한 농업에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된다.

---

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일과 소농의 일은 유사한 논리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 자연 자원은 여성에 의해 창조되는 생명처럼 '자유재'로 간주되어 산업 체제에 의해 쉽게 착취되고 전유된다.” (미즈·벤홀트-톰젠 2013[1999]: 41)

2)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연결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은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체제와 그것이 수반하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모순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노동과 여가가 분리되지 않고 여가의 즐김과 노동의 부담이 혼합된 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동은 상품 생산 목적의 교환가치보다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필요가치에 중점을 두며,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가깝거나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는 퍼머컬처와도 만나는데, 퍼머컬처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특히 산업적 농업과 그로 인한 사회적·생태적 폐해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퍼머컬처의 등장 맥락을 산업적 농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살펴보고, 퍼머컬처가 추구하는 대안이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퍼머컬처는 근대의 산업적 농업을 대량의 외부 에너지 투입에 의존하여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체제라 설명한다. 산업적 농업 체계를 유지하는 에너지는 산업화 이전의 농업처럼 태양에 의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온다. 산업적 농업의 높은 수확량은 효율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오직 막대한 외부 에너지의 보조를 통해 가능하다.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무너지게 되면 생산량이 격감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적 농업 체계는 화학비료, 농약 형태의 외부 투입이 지속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Mollison and Holmgren 1978: 3).

산업적 농업의 생산은 대규모 단일경작에 기초하며, 유전자 변형 작물과 화학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높은 수확량과 상품화를 위해 매해 땅을 갈아엎는 경운(耕耘)을 진행하며, 기계 사용과 지속적인 농약, 비료 투입에 의존한다. 이로 인한 결과는 생물다양성의 파괴, 토양 유실, 수질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다량의 작물이 공장식 축산 동물의 먹이로 재배되며, 독성 화학물질은 토양과 관개 시스템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 유해한 영

향을 미친다(Suh 2014: 75-76).

환경에 유해한 결과들은 시장 바깥의 외부효과로 규정되며, 국가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산업적 농업의 생산, 유통, 수익구조가 지배적인 경제체제에서, 퍼머컬처와 같은 다양성에 근거한 생산체계는 생산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체계의 높은 생산성은 일차원적인 수확량과 산출량만을 근거로 평가된 것이며, 일차원적 산출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적 이해에 치우친 결과이다(미즈·시바 2020[1993]: 286). 사회-생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농업의 단일경작은 오히려 비생산적이다(Ibid :285).

산업적 농업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들이 밝혀지면서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살충제 DDT[11]를 비롯한 농업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래 관행적 농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중심적, 하향식, 인간 중심적 접근의 한계로 제한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했다(Suh 2014). 이러한 정책적 접근과 별개로, 1970년대 이래 대안적 농업의 형식들이 등장하였고, 풀뿌리에서 시작된 대안농업의 실천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적 농업을 억제하고자 했다. 대안적 농업은 탈중심화, 외부 자원에 덜 의존하는 독립성, 소규모 지역사회, 자연과의 조화,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포함하는 다종작(polyculture),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등의 특성을 지닌다. 대안적 농업은 농업의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 및 농업을 통한 사회혁신(agricultural stewardship) 담론과 연결되기에, 산업적 농업과 대안적 농업은 서로 상충하는 패러다임으로 규정된다(Beus and Dunlap 1990).

대안적 농업의 사례들은 관행농업과 대조되는데, 관행농업은 산업적 농

11) DDT(Dichloro-Diphenyl-Trichlorothane)는 합성살충제로 냄새가 없으며 독성이 강해 여러 가지 곤충을 박멸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물 체내에 축적된 DDT가 인간 체내에서도 검출되며 환경오염, 곤충의 내성 형성, 인체에 대한 유해성 등 부작용이 알려졌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1972년 DDT 사용을 금지했다.

업이 '관행'화된 것을 칭한다. 관행농업은 자본집약적 농업, 대규모성, 고도의 기계화, 단작 영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 집약 축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의 생산과 연계된 농기업(agribusiness)도 포함한다(Ibid: 594).

퍼머컬처는 인간의 의식주 및 문화를 설계하는 디자인 체계로 농업은 그 일부이지만, 퍼머컬처가 제시하는 자족적인 체계에서 농업이 핵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퍼머컬처 역시 대안적 농업 모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퍼머컬처 외에도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육성된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기농업이 있다. 그러나 유기농업은 초기의 원칙과 달리 관행농업화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관행농업화란 이민노동자 고용, 단작 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대형 소매상과 운송업자 등의 자본 세력과 통합 및 계열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관행농업화된 유기농업은 유기농 인증 투입재를 사용할 뿐, 대규모 기업형 농장을 중심으로 산업화되어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하청과 계약재배를 포함한다(허장 2007). 즉 관행농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농사법들이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체제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관행농업화 양상은 한국 농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실제 농사 과정에서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모두 비료와 화학약품, 비닐과 각종 에너지 집약적 시설을 사용하며 씨앗을 구매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금창영 2022).

즉 대안적 농업으로 등장한 사례들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체제에 포섭된다면 산업적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안적 농업은 농법의 변화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체제의 변화도 포함해야 하는데, 퍼머컬처는 농업을 포함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농업에서의 대안적 실천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생태 체계(SES: sustainable social-ecological systems)에 기여하는 틀로 이해될 수 있다(Brawner 2015: 439). 특히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생태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퍼머컬처가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거부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Ibid: 430). 이러한 퍼머컬처의 사회생태 체계에 대한 접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처럼 인간을 수동적인 자연을 다루는 주체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포함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퍼머컬처를 자연-문화 이원론을 전복시킬 수 있는 실천적 비판이라고 보기도 한다(Lockyer and Veteto 2013).

퍼머컬처가 단순히 대안적 농사법에 그치지 않으며 자본주의에 기반한 사회생태 체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제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공유한다. 퍼머컬처는 산업적 농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식주와 문화를 다시 디자인하기를 주장한다. 이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제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특히 연구자는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접점을 노동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퍼머컬처는 단순히 산업적 농업 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농업과 연결된 다른 영역들을 포괄하는 자족적인 체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체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기에, 에코페미니즘이 제시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의 요소들을 공유한다. 아래에서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을 알아보고, 해당 노동 개념의 특징과 연결되는 퍼머컬처의 생산과정 및 노동에 대한 관점을 조명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인간 이원론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노동 개념의 변화를 주장한다. 미즈는 자연-인간 이원론이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정신과 육체 등을 가르는 식민주의적 구분이라 보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개념의 변화로부터 노동, 노동조직, 성별노동분업, 생산품, 노동과 비노동 사이의 관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구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즈 2014[1986]: 433).

구체적으로 미즈는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체

제와 그것이 수반하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와 모순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과 여가가 분리되지 않고 즐김과 부담이 혼합된 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적 노동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삶의 기본적 필요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임금노동 체제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계약과 판매 계약을 통해 살림에 대한 통제력을 쥐고 있음을 문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은 상품 생산 목적의 교환가치보다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필요가치에 중점을 두며, 생산과 소비의 거리가 가깝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즉,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대안적인 노동 개념은 크게 노동-여가의 이원론적 구분을 거부하며, 생산과 소비의 결합을 주장하고, 자연과의 관계 형성을 추구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Ibid: 440-446). 첫 번째, 대안적 노동 개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여가의 구분을 거부한다. 노동과 여가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때, 자본주의적 노동은 부담되며 고된 일인 반면 여가는 노동에 부재한 즐거움, 쉼, 놀이를 포함한다. 노동시간이 기술 진보를 통해 축소되면 여가가 확대되어 자유와 문화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노동과 여가의 이원론을 거부하며, 놀이와 생산, 쉼과 노동, 즐거움과 고됨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노동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적 노동의 목적은 물질과 부의 생산이 아니라 삶 자체의 생산으로, 언제나 즐김과 자기 충족,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다.

두 번째, 대안적 노동 개념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구분과 거리가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노동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 생산 영역은 소비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두 영역은 시장과 유통망을 통해서만 연결된다(미즈·시바 2020[1993]: 481). 이때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순된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며, 상품을 소비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잃는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는 노동이 시장의 교환가치 중심의 상품 생산보다 직접적인 삶의 생산, 즉 필요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노동의 생산물은 생산하는 주체나 그 주변 사람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목적

을 가지게 되며, 필수품의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세 번째, 대안적 노동 개념은 노동이 자연 혹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연은 이윤 축적을 위한 자원으로 대상화된다(미즈 2014[1986]: 176). 에코페미니즘은 이윤이 아닌 생명 유지의 관점에서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며 생존의 기반을 획득해야 하며, 자연을 자원화하지 않는 노동을 통해 자연과 비착취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노동에서 자연과 인간은 존중, 협력, 상호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자체의 고유한 주관성을 지닌다.

에코페미니즘의 대안적 노동 개념은 대안적 경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미즈와 벤홀트-톰젠은 노동 개념의 변화를 포함하는 대안적 경제를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라 칭한다(미즈·벤홀트-톰젠 2013[1999]). 자급적 관점은 지속적인 성장에 기초한 경제가 기술 발전과 생산력 팽창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임금노동이 삶에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자급적 관점은 임금노동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노동의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남성과 여성이 무보수 노동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비임금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개념의 노동은 사용 가치의 생산을 우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작고,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탈중심화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다(Ibid: 120-121). 미즈는 이러한 대안적 경제에서는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율성과 총체성을 다시 획득하여, 노동이 부담이자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노동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미즈 2014[1986]: 453).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과 연결되는 퍼머컬처의 특징은 퍼머컬처가 추구하는 자족·자립적 체계와 관련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대안으로, 퍼머컬처는 외부적인 투입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self-sufficient)이고 자립적인(self-sustaining) 체계를 제시한다. 생산과 소비는 이러한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즉 자원이 순환하는 닫힌

회로(Closed-loop) 형태의 공생적, 자립적인 거주지와 생산체계를 추구한다. 자족·자립적 체계는 생태적 퇴보나 사회적 부정(injustice)를 초래하지 않으며(Veteto and Lockyer 2008: 51), 인간을 자연 속에 위치시켜 인간과 자연은 비착취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협력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대안적 노동의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다.

퍼머컬처가 추구하는 자족·자립적 체계의 대표적 사례는 숲밭(Food Forest 혹은 Forest Garden) 개념이다.[12] 숲밭이란 숲 생태계를 모방하여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다종작(polyculture)으로 구현한 밭으로, 관목, 열매 및 과일나무, 덩굴 식물, 피복 식물, 뿌리 식물, 약초류와 허브 등 7가지 이상의 층으로 구성된다. 퍼머컬처는 숲밭과 같은 지역사회 내부의 자족적 생산체계가 생산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며, 수확량도 산업적 농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13]

자족·자립적 체계에서 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퍼머컬처는 자연의 패턴과 원리를 모방하는 디자인을 통해, 인간 노동을 포함한 외부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노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인 생태 마을 어스헤이븐(Earthaven)의 설립자들은 1년 이상 주변 경관을 관찰하며 바람, 태양, 물 등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마을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화석연료가 아닌 중력을 이용해 각 가구와 마을 시설에 물

12) 수락에서는 이를 '숲밭'이라 번역하여 부르는데, '먹거리숲'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숲밭 개념을 소개하며 '산림생태텃밭'이라 정의하고, 연구 자료를 모아 『먹거리 자급자족 산림생태텃밭 가꾸기』라는 자료집을 2020년 12월 발행한 바 있다.

13) 그러나 퍼머컬처의 생산성에 대한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입증된 근거를 따르기보다는, 경험적 사례 증거(anecdotal report)와 생태적 원리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다종작 및 다년생 작물 중심의 영속적인 체계를 통해 토지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퍼머컬처의 주장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퍼머컬처의 생산성과 관련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Ferguson and Lovell 2014: 267).

을 배분하는 시스템 설계의 기초가 되었다(Ibid: 51). 이처럼 퍼머컬처는 자연을 자원화하기보다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생활에 반영하고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과 외부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퍼머컬처에서 인간의 노동은 화석연료 기반의 기계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기술 진보를 통해 인간의 노동을 축소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를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으나, 퍼머컬처와 자본주의의 효율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다. 퍼머컬처는 자본주의적 노동을 통한 생산에서 발생하는 자연에 대한 악영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며, “자연에 맞서기보다 자연과 함께 일하라”(Ingram et al. 2014: 8)고 주장한다. 또한, 퍼머컬처에서 나타나는 노동집약성은 자족·자립적 체계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며 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 두 가지 입장이 공통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접점을 특히 노동 개념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미즈는 대안적 경제에서는 생산에 관한 결정이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자연, 생태,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한다(미즈 2014[1986]: 450). 퍼머컬처가 추구하는 생산체계 역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대안적 경제에 부합한다.[14]

에코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은 퍼머컬처에서 추구하

14) 퍼머컬처는 생산과정에서 현대 경제학에서 외부효과로 규정하는 요소들, 가령 토양· 수질 오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 및 쓰레기 배출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퍼머컬처 윤리와 디자인 원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퍼머컬처 윤리인 “소비와 재생산에 한도를 두고 잉여를 재분배하라”는 수확량의 확대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소비에 한계를 정하고 생산의 잉여와 부산물은 사람과 지구에 재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저장하라’, ‘재생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고 중시하라’,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마라’,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와 같은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들도 대안적 경제에 부합한다.

는 바이기도 하다. 퍼머컬처는 “음식, 주거 등 생활을 위한 자원과 생계(livelihood)를 위한 수단의 관리 권한과 능력을 중앙집중적 권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Permaculture Activist 2004: 3; Veteto and Lockyer 2008: 48에서 재인용)이라 정의된다. 생활과 생계를 위한 수단과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퍼머컬처의 지향성에 주목하여, 퍼머컬처를 기존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판하며 고안된 대안적 발전 전략이라 해석하기도 한다(Vetoto and Lockyer 2008: 47).

연구자는 수락 구성원들의 퍼머컬처 실천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안적 노동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구체화한다. 실제로 미즈는 자본주의 체제의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대안의 실천적인 사례로 퍼머컬처를 언급하였다. 그는 자급적 전망의 사례로 물 보존과 자급을 위한 인도의 민중 운동 사례를 기술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자급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농업이 새로운 탈중앙화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미즈는 자연농법의 창시자 후쿠오카 마사노부와 퍼머컬처의 공동 창안자 빌 몰리슨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미즈 2014[1993]: 498).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따라,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교집합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농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그 구체적 사례로 수락을 살펴본다.

4. 선행연구: 여성과 농사

국내 퍼머컬처 실천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농촌 여성 농민이나 도시 여성들의 농사 실천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인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농사짓는 여성들에 주목한 연구들

은 크게 농촌의 여성 농민과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여성들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농촌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귀농·귀촌 및 토착 여성 농민들의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김효정 2011; 진명숙 2019)과 농산물 꾸러미 사업(정은정·허남혁·김홍주 2011; 이수현 2015)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들은 근대 과학에서 여성 농민의 토착 지식이 무가치하게 다뤄졌음을 지적하며, 여성의 노동과 문화, 지식을 바라보는 대안적인 경제 및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효정은 토종 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농가 내 여성 고유의 노동이 가시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수현도 소규모 직거래 유통인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하는 '언니네텃밭' 사례에 주목해, 여성의 가사노동 영역에서 상품이 발굴되며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가시화된다고 말한다.

비노동으로 취급되어 온 여성의 재생산노동 및 여성 농민의 토착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문제 제기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진명숙은 여성 노동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여성주의적 노동 개념을 염두에 두며 귀농·귀촌 여성들의 토종 씨앗 지키기 실천을 살핀다. 귀농·귀촌 여성들은 자급농·자립농을 지향하며 공동 농사, 협업, 영농조합 등 경제적 협동을 통해 공동체적 경제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실천은 자본주의적 생산노동 또는 재생산노동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그 경계를 넘나든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농촌 여성 농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노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이 있다. 농촌 여성 농민들이 소규모 직거래나 경제적 협동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락 구성원들도 퍼머컬처 기반의 공동 농사를 지으며 생태적, 경제적 대안을 추구한다.

그러나 농촌 여성 농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연구에 참여한 농촌 여성들의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으며, 기혼 여성이 대부분이다. 토착 여성 농민들은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귀농·귀촌 여성들도 가족 단위로 이주한 기혼 여성이 다수이다. 가령 진명숙의 연구 참여자 7명은 모두 기혼 여성이며, 30대 1명을 제외하고는 40, 50대에 분포한다.[15] 두 번째, 선행연구들이 소규모 직거래, 공동 농사 등

15) 농촌의 비혼 여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도 소수 있다. 비혼 여성의 농촌 이주를 다룬 연구(정다래 2009; 최은주 2012)들은 여성들이 대안적 가치와 삶의

기존의 농산업 구조나 노동 방식과 다른 시도들에 주목했으나, 그러한 사례들에서 여전히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농촌에서 생산하며 도시에서 소비하는 관계 속에서 농민·농부의 범주는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자 중심의 여성 농민만 다루었던 것에서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도시에서 농사짓는 여성들에 주목한다. 그 구체적 사례인 수락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기혼, 비혼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떠한 농사를 실천하는지 보여준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농사 실천을 다룬 선행연구로 김효정(2013)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 사례들에 주목한다. 그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비혼 여성들에게 농사는 단지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놀이 문화로 기능하고 있으며,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여성주의적 실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해당 연구는 한국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행위를 가시화하며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동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포착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이분법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노동과 비생산 노동을 나누는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의 대안을 수락 구성원들의 퍼머컬처 실천에서 찾고자 한다.

5.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국내 퍼머컬처 실천 양상을 수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을 에코페미니즘에서 논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적 노동의 필요성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방식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한 것이라 보며 귀농·귀촌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여성의 농사 실천에 주목하기보다는 농촌 이주에 주목하였는데, 비혼 여성들이 미디어 속 농촌의 이미지나 해외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이주에 관심을 가졌으며(최은주 2012), 귀농을 하게 되면서 생태적, 대안적 가치나 관점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정다래 2009).

첫째, 퍼머컬처의 국제적 확산 과정과 실천 양상은 어떠하며, 국내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퍼머컬처를 도입하였는가? 특히 수락의 등장 배경은 어떠했는가?

둘째, 수락 구성원들의 퍼머컬처 실천을 자본주의 사회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들은 왜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퍼머컬처를 실천하는가?

셋째,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 속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가? 대안적 농사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구성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퍼머컬처의 형성과 국제적 확산 과정을 알아본 후, 국내 퍼머컬처 실천 양상을 살펴본다. 퍼머컬처는 1970년대 호주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였으며, 한국에는 2000년대 초에 도입되어 성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수도권 기반의 퍼머컬처 실천 단위인 수락이 등장하였다.

Ⅲ장에서는 수락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구성원들이 농사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게 된 개인적 경험과 수락에 참여하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다. 특히 구성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농사 및 퍼머컬처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 농사법의 특징을 관행농업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대안적 농사법으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일상적, 비일상적 일과 속에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노동 개념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Ⅱ. 퍼머컬처의 시작과 한국 내 도입

이 장에서는 퍼머컬처의 형성 및 국제적 확산 과정과 한국에 도입된 양상을 살펴본다. 퍼머컬처는 1970년대 호주에서 고안된 지속 가능한 농업이자 생활양식이다. 퍼머컬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형되며 지역사회의 풀뿌리 프로젝트, 대학 교육과정 및 직업 자격, 퍼머컬처 의뢰 및 컨설팅 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 양상에 대한 보고들이 호주, 북미, 유럽 등지의 백인 및 영어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 비서구 국가의 실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한국의 퍼머컬처는 2000년대 초 농촌 마을 컨설팅, 전원마을 조성과 같은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4년부터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PDC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퍼머컬처 실천 모임 또는 단체가 형성되었으며, 2022년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2020년경부터는 공공기관 사업과 교육기관에 도입되거나, 상업화된 퍼머컬처 시공 업체도 등장하며 확산하였다. 수락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퍼머컬처 실천 사례로,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별 도시민들이 도시의 소비적 생활양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퍼머컬처의 형성과 확산

1) 호주에서의 퍼머컬처 형성과 성장

Ⅰ장에서 퍼머컬처의 정의와 영속적 농업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 데 이어, 이 절에서는 퍼머컬처가 고안되고 확산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조명한다. 호주의 잡지 유기농 가드너(Organic Gardener)의 편집자 페인

(Steve Payne)과 저널리스트 그레이슨(Russ Grayson)은 퍼머컬처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4가지 단계로 정리했다(Grayson and Payne 2007). 퍼머컬처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이들이 제시한 1972~1976년의 형성기, 1976~1981년 용어의 등장과 확산기, 1980년대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기, 1990년대 통합과 확장기로 살펴볼 수 있다.

(1) 단계별 발전 과정

퍼머컬처 형성기(1972~1976년)

퍼머컬처는 1970년대 초반 호주 태즈매니아(Tasmania)를 배경으로 고안되기 시작했다. 퍼머컬처 창안자 중 한 명인 몰리슨(Bill Mollison)은 태즈매니아의 숲과 해안의 생태계를 관찰하며, 그가 관찰한 구조와 작용들을 농업과 같은 인간의 필요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전통적인 자급적 농업이 에너지를 투입하기보다는 생산해내며 부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몰리슨은 1968년부터 태즈매니아 대학에서 환경심리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1973년 환경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태즈매니아에 오게 된 홈그렌(David Holmgren)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3년간 홈그렌과 몰리슨은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퍼머컬처 개념을 고안하였다(Holmgren 2002).

퍼머컬처는 1960, 1970년대 도시화, 산업적 농업, 자원 고갈 등 사회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대안적인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경제 성장, 식량 생산, 에너지 산출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퍼머컬처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타난 대안적 농업 철학으로는 생명 역동(biodynamic) 농업, 유기농업 등이 있으며, 퍼머컬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당시 탈근대적 전환기의 대항문화(counterculture)에 대한 관심도 퍼머컬처의 형성과 이후의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Smith 2015).

용어의 등장과 확산기(1976~1981년)

퍼머컬처라는 용어와 개념은 1976년 태즈매니아 유기원예·농업 협회(Tasmanian Organic Gardening and Farming Society)에서 펴내는 간행물에 “A Permaculture System for Southern Australian Conditions: Part One”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2년 후인 1978년에는 책 『Permaculture One: a Perennial Agriculture for Human Settlements』이 출간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78년 첫 번째 퍼머컬처 잡지 퍼머컬처(Permaculture)가 등장했다. 퍼머컬처는 당시 청년 실업과 토양 훼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호주에서, 사회·생태적 문제의 원인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일적(holistic) 체계의 관점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Grayson and Payne 2007).

퍼머컬처는 농업, 생태학, 사회정의, 유토피아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을 혼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으나, 학계에서는 한 가지 분야에 속하지 않는 학제적 성격으로 인해 논쟁을 촉발하였다. 처음 학계에서 만나 퍼머컬처를 고안했던 홈그렌과 몰리슨은 이후 퍼머컬처 실천을 심화하며 사회운동으로 이끄는 데 전념했다. 특히 몰리슨은 대중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1979년부터 2주 기간의 PDC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PDC 참여자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퍼머컬처 실천이 확산하였다. 1981년 몰리슨은 대안적 노벨상으로도 알려진 올바른 삶 상(Right Livelihood Award)[16]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퍼머컬처가 생태위기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해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기(1980년대)

1980년대에는 잡지 퍼머컬처와 퍼머컬처 국제 저널(Permaculture

16) 인류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에 실제적이고 모범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국제상으로 1980년에 창설되었다.

International Journal)을 중심으로 분산된 퍼머컬처 실천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특히 디자인 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호주 내 10개였던 퍼머컬처 관련 단체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적으로 80개로 늘어났다(Ibid). 1988년 퍼머컬처는 호주의 주류 방송(ABC: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퍼머컬처에 영향을 받은 최초의 퍼머컬처 생태 마을인 크리스탈 워터스(Crystal Waters)도 형성되었다.

퍼머컬처 개념의 발전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몰리슨은 1988년 퍼머컬처 참고서인 『Permaculture: A Designers' Manual』을 비롯한 저서들을 다수 출간하였으며, 초창기 PDC를 이수하고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PDC 과정을 진행하도록 권했다. 퍼머컬처라는 용어와 개념은 몰리슨과 홈그렌이 고안한 것이나, 퍼머컬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해서 변화하며 재구성되어왔다(Perillo 2017). 유동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머컬처는 1970, 80년대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국제적 확산을 바탕으로 각국의 퍼머컬처 활동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퍼머컬처 대회(IPC: Inter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도 조직되었는데, 1984년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후 2년 간격으로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다.

통합과 확장기(1990년대)

1990년대 퍼머컬처는 지속적인 확산세 속에서 서구 및 비서구 국가에도 확산하였다. 호주 내에서는 ABC 방송국에서 전 세계의 정원사(Global Gardener)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유텃밭이나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다. 퍼머컬처 입문 및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Permaculture Design Course, PDC) 과정 수강생들도 증가했다. 또한, 소위 저개발된 주변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북반구의 비정부기구에서 남반구 국가에 퍼머컬처를 도입하기도 하였다.[17]

17) 이러한 경우와 달리 자발적으로 퍼머컬처를 도입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

1990년대 초반 국제적으로 약 12,000명이 퍼머컬처 디자인을 교육받았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25만 명까지 증가했다(Brookman and Brookman 2005: 5).

이처럼 국제적으로 퍼머컬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퍼머컬처 고안자 중 한 명인 홈그렌은 자립적(self-reliant) 생활양식을 위한 실용적 디자인 기술을 심화하기 위해 호주 남동부의 시골 마을 멜리오도라(Melliodora)에서 직접 퍼머컬처 원리를 실험해왔다. 그는 멜리오도라에 퍼머컬처 실현지를 조성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퍼머컬처 아이디어들을 실현하였다.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Ten Years of Sustainable Living at Melliodora』(1995)에서는 소규모의 생산적 농장,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주택, 경사지를 이용한 식물과 나무 작물 식재 등을 다루었다.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를 재해석한 『Permaculture: Principles and Pathways Beyond Sustainability』(2002)를 저술하며 주목받았다. 이 저서에서 홈그렌은 농업 디자인에만 초점을 둔 다른 퍼머컬처 저서들과 달리, 지속 가능한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Perillo 2017).

(2) PDC(Permaculture Design Course): 호주 퍼머컬처의 확산 수단

퍼머컬처가 앞서 살펴본 시기들을 거쳐 호주 및 여러 국가로 확산할 수 있었던 주된 통로는 퍼머컬처 교육과정인 PDC이다. PDC와 다른 형태의 퍼머컬처 워크샵이나 강의도 이루어지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어 쿠바의 경우 주된 무역 상대였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1991년 붕괴한 후 미국의 식량 수출 금지로 식량 및 재화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이전과 같은 관행화된 대규모 국영 농장이 아닌 거주지역 내의 정원과 농장 등 대안적 형태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게 되었다. 퍼머컬처는 1993년 쿠바에 도입되어, 비정부기관인 자연과 인간을 위한 재단(FANJ: Foundation for Nature and Man)이 1994년 설립되었다. FANJ는 쿠바 전역에 퍼머컬처를 알리고 지역별 활동가 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퍼머컬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Caraway 2018: 3-4).

일반화된 것은 2주간 진행되는 PDC로, 총 72시간의 수업과 실습을 통해 퍼머컬처 윤리와 디자인 원리에 기초한 농업 및 다양한 생활 철학과 기술을 다룬다. PDC는 퍼머컬처 공동 창안자인 몰리슨이 1978년 퍼머컬처 연구소(Permaculture Institute)를 설립하여 퍼머컬처 실천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979년 PDC가 최초로 진행된 이후, 1980년대에 PDC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몰리슨은 그 내용을 『Permaculture: A Designers' Manual』(1988)에 저술하였다(Massicotte and Kelly-Bisson 2019: 584).

1980년대에 걸쳐 몰리슨이 진행한 PDC를 통해 퍼머컬처 디자이너와 교육자가 다수 양성되었으며 PDC 교육 내용이 표준화되었다. PDC가 다른 형태의 퍼머컬처 강의와 차별되는 점은 PDC 이수자는 이후 직접 PDC를 진행하며 퍼머컬처를 교육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PDC가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만약 퍼머컬처를 가르치는 교육자 역할에 관심이 있는 경우 가장 표준화되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인 PDC를 수료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 몰리슨의 PDC 이수자들이 자신만의 PDC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퍼머컬처가 확산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PDC가 퍼머컬처를 교육하는 가장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Ibid).

한편, 초창기 PDC의 교육 내용과 구조를 더 유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퍼머컬처를 설명하는 다른 방식들도 생겨났다. 후세대 퍼머컬처 교육자들은 PDC에 몰리슨의 초기 교육모델이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적 변화를 개선해왔으며, PDC 안내서로 자주 채택되는 저서들을 출간하기도 했다.[18]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그레이슨은 2016년 호주 퍼스(Perth)에서 열린 제13차 오스트랄라시아퍼머컬처대회(APC: Australasian

18) 호주의 퍼머컬처 교육자이자 국제개발 활동가인 로즈마리 머로(Rosemary Morrow)의 『Earth User's Guide to Permaculture』(1994)가 대표적이다. 농업, 환경과학, 원예학 전공 배경이 있는 머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퍼머컬처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PDC가 교육 기술에 대한 고민 없이 몰리슨의 커리큘럼을 모방해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머로는 이를 보완해 자신만의 퍼머컬처 교육을 수립하면서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지역에서 퍼머컬처를 가르쳤다.

Permaculture Convergence)에서 퍼머컬처 디자이너 및 교육자들이 PDC 교육 과정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Grayson 2016). APC에 참석한 퍼머컬처 교육자들은 80년대에 퍼머컬처 연구소(Permaculture Institute)에서 설정한 PDC의 내용과 구조만이 유일하고 유효한 교육 과정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PDC 교육 과정에서 공통된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했다. 일부는 고정된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퍼머컬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퍼머컬처가 다양한 참여자들의 실천 속에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Ibid).

퍼머컬처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분화와 변화는 PDC를 진행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중앙 권위체가 부재하기에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PDC는 최소 72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으나, 특정 교육 기관이 PDC 진행과 수료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지니지는 않는다. 72시간 과정인 PDC를 이수하면 누구든 퍼머컬처 디자이너의 자격으로 자신의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를 진행할 수 있다. 고정된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퍼머컬처 교육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퍼머컬처가 지역마다 다른 자연 경관과 기후, 생물종 등에 따라 변형과 적응을 거치며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19]

이처럼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통일된 유효한 교육 모델을 정립하기보다 교육자나 지역적 특징에 따라 변형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추구하지만, PDC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언급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다. 퍼머컬처 윤리와 디자인 원리는 퍼머컬처 개념의 근간이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외에 토지이용을 위한 구획화(Zoning), 투입과 산출 구조, 미세 기후 관찰, 토지 측량 등의 디자인 기법도 PDC에 포함된다. PDC의 주된 목표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여 간단

19) 미국의 경우 헤멘웨이(Toby Hemenway)의 『가이아의 정원: 텃밭에서 뒷산까지, 퍼머컬처 생태디자인』(2014[2001])이 대표적인 퍼머컬처 입문서로 알려져 있는데, 북미 지역의 기후와 생태에 맞도록 지역화한 퍼머컬처 디자인 원리와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주변 경관, 토착 생물종, 물과 태양, 바람 등 에너지의 흐름과 기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공간 디자인에는 농장이나 텃밭뿐만 아니라 거주지, 작업장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내용 외에 에너지 자립적 건축과 적정기술, 수로 시스템 구현, 숲 조성과 관리, 퇴비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 자생하는 풀의 이름과 효능 및 활용법도 교육한다. PDC 수료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특정 지역사회나 공간을 사례로 삼아 활용 목적과 사용자에 맞추어 직접 디자인하는 과제도 주어진다.

호주의 경우, 비교적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PDC를 보완하기 위해 심화한 퍼머컬처 전문가 과정(APT: Accredited Permaculture Training)도 이루어지고 있다. APT는 호주 내에서 퍼머컬처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이며, 퍼머컬처 호주(PA: Permaculture Australia)의 APT 팀이 교육 내용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호주에서는 대학과 직업교육기관에서 퍼머컬처를 학위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계획으로 인가되어 호주 각 주나 지역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퍼머컬처 개념과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인 만큼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립대학 교육과정뿐 아니라 지역마다 PDC를 진행하는 다양한 농장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호주의 퍼머컬처 실천 양상은 단순히 산업적 농업에 대한 비판으로 대안적 농사 방식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퍼머컬처에 기초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PA는 2014년 호주 내 퍼머컬처 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총 177명의 응답자가 어떻게 퍼머컬처를 실천하는지 분석하였는데, 특히 고용 및 사업화 등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해당 조사에서 퍼머컬처 전문 과정인 APT를 수료한 경우는 응답자의 약 절반인 8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42%는 토지를 구매해 퍼머컬처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였고,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도 4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총 184건의 교육과정

을 진행했는데, PDC, APT, 지역사회 워크샵, 심화 및 전문가 과정 등을 포함하여 약 5년간 2만 명 이상이 교육받았다. 71%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3%는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Francis 2014; Kristensen 2018: 25에서 재인용).

2)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 양상

전세계 퍼머컬처 실천 양상은 지역 단위의 개별 프로젝트 및 단체와 국제 퍼머컬처 대회(IPC: Inter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역 단위에서 퍼머컬처는 실내나 가정의 작은 텃밭부터 농촌 및 도시 근교의 농장, 개인적 프로젝트부터 마을 단위에서 퍼머컬처를 도입한 사례 등, 다양한 층위와 규모로 실천되고 있다. 게릴라 가든(guerrilla garden), 종자 보존 프로젝트,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 주거협동조합 등이 퍼머컬처를 적용하거나 퍼머컬처에서 파생된 구체적 사례이다. 이러한 퍼머컬처 실천의 공통된 특징은 정부나 기업과 연계하기보다는 개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풀뿌리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퍼머컬처는 다양한 현대 환경 운동 및 지역사회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퍼머컬처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문화, 실천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관점과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이다(Veteto and Lockyer 2008). 생태마을(ecovillage), 전환마을(transition towns), 탈성장(degrowth) 운동이 퍼머컬처 운동의 대표적인 파급효과로 꼽힌다(McAdam 2013: 605-607). 퍼머컬처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지적·실천적 지식과 기법을 공유하며, 국제 및 지역적 협력을 추구한다. 이러한 실천 방식은 사회·생태적 문제에 대해 하향식 해결 방식을 취하는 기존의 관행과 위계적 정치구조를 비판하며, 탈중앙적인(decentralized) 특징을 보인다(Kristensen 2018: 26).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대륙 단위로 연합하거나 교류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별 실천 단위를 파악하고 교류의 장을 마

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구축한 퍼머컬처 네트워크 단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퍼머컬처에 대한 소개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해당 지역 및 국가에서 조직화하지 않은 개별 퍼머컬처 실천 사례들을 목록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퍼머컬처 연합(The Permaculture Association)은 영국 지역의 퍼머컬처 프로젝트를 모아 지도화하고 있다. 1970, 80년대부터 퍼머컬처 실천이 시작된 호주, 미국, 유럽 등지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공유텃밭이나 개별 프로젝트 외에, 퍼머컬처 농장 운영,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화된 조직체들이 상업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20]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수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를 보이는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한 해에 69건의 퍼머컬처 워크샵과 PDC 과정이 진행되었고, 누적된 퍼머컬처 프로젝트 목록은 277건, 퍼머컬처 관련 책은 100권 이상 출간되었다(Ferguson and Lovell 2015). 2018년 기준 미국 내 63개 대학에서 퍼머컬처 강의를 제공하는데, 학교에 따라 학점에 포함되는 PDC를 제공하기도 한다(University Permaculture 2018). 미국 퍼머컬처 양상을 분석한 스콧(Scott 2010 unpublished)은 미국 내 퍼머컬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에 퍼머컬처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초로, 퍼머컬처 창안자 중 한 명인 몰리슨이 워싱턴의 에버그린 주립대학(The Evergreen State College in Olympia)에서 퍼머컬처 강의를 진행하였다(Carey 2005; Scott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미국에서 퍼머컬처를 확산시키는 데 보다 더 영향을 끼친 것은 호주에서 몰리슨과 함께 퍼머컬처를 공부했던 미국인들로, 이들은 1985년 시애틀에서 북미 퍼머컬처 연구소(PINA: Permaculture Institute of North America)를 설립하고 퍼머컬처 활동가(Permaculture Activist)라는 잡지를 만들었다.[21] 또한, 1984년 호주에서 첫 번째 IPC가 진행된 후 2차 IPC는 1986

---

20) 예를 들어 미국의 퍼머컬처 회사인 애플씨드 퍼머컬처(AppleSeed Permaculture)는 생태적 농장 디자인과 식재 계획을 컨설팅하는 회사로, “경관의 생산성, 수익성, 기후 회복력(resilience), 글로벌 체제에의 기여”를 위한 전략과 해법을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출처: 애플씨드 퍼머컬처, https://www.appleseed.design/ (2022.02.19. 접속))

21) Permaculture Institute of North America, “History of PINA A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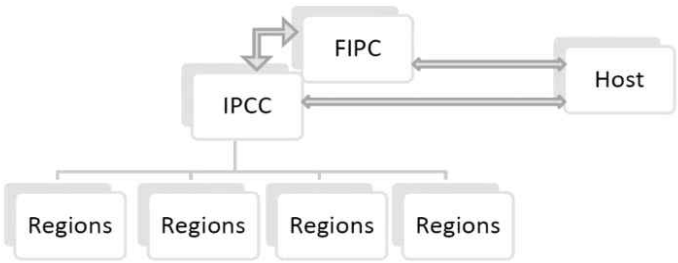
년 8월 미국 북서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IPC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여러 퍼머컬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IPC는 각국의 퍼머컬처 실천 주체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결망 역할을 한다. 1984년에 호주에서 시작되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IPC에는 전 세계 퍼머컬처 디자이너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퍼머컬처 운동의 전략을 세운다. 최근 진행된 IPC는 2013년 쿠바, 2015년 영국, 2017년 인도였으며, 2019년의 경우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걸쳐 아르헨티나에서 제14차 IPC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기되어 2022년 11~12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IPC는 매번 다른 주제와 형식을 취하며, '지구를 돌보라, 사람을 돌보라,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퍼머컬처 핵심 윤리에 따라 워크샵과 토론회 등을 구성한다.

IPC 위원회(IPCC: Inter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 Council)는 IPC 주최국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IPC 위원회는 2013년 쿠바에서 개최된 IPC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 영국에서 열린 IPC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IPC 위원회에는 20개국의 국가별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최국을 선정하게 되면 직전 IPC를 진행한 국가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다.[22] IPC의 구체적인 조직과 진행, 기금 모금은 개최국에서 맡으며, IPC 위원회는 이전 개최국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IPC를 홍보하는 등 IPC 개최국을 지원한다. 또한, IPC 전후로 PDC를 진행하거나 지역사회의 퍼머컬처 현장 투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IPC 위원회는 국제 퍼머컬처 대회 프렌즈(FIPC: Friends of Inter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s)와 협력하는데, FIPC는 IPC의 개별 주최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구로 예정된 IPC의 홍보나 IPC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 대표단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History of PINA & North American Permaculture," https://pina.in/history-of-pina/ (2022.07.30. 접속)

22) 20개국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태국, 오스트리아, 미국, 인도, 프랑스, 라이베리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튀니지, 프랑스, 케냐, 스페인, 베네수엘라, 네팔이다.



<그림 4> IPCC의 구성 (출처: IPC 웹사이트 https://internationalpermacultureconvergence.org/)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IPC 외에도, 개별 대륙과 특정 국가 내 지역별로 세분화된 퍼머컬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퍼머컬처 대회(European Permaculture Convergence), 아시아태평양 퍼머컬처 대회(Australasian Permaculture Convergence), 동남아시아 퍼머컬처 대회(Southeast Asian Permaculture Convergence), 북미 퍼머컬처 대회(North American Permaculture Convergence), 플로리다 퍼머컬처 대회(Florida Permaculture Convergence), 위스콘신 퍼머컬처 대회(Wisconsin Permaculture Convergence)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퍼머컬처 행사들은 퍼머컬처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퍼머컬처를 알리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3) 퍼머컬처의 지역적 편중을 넘어서

(1) 퍼머컬처 실천의 서구 편중성

퍼머컬처 실천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성별, 인종, 교육 수준에 따라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서구 국가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살펴보자. 우선 퍼거슨과 러벨은 45개국 731개 사례를 분석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국가는 미국(59%), 호주(15%), 캐나다(8%), 영국(5%)로 서구 국가에 집중

되었고 나머지 41개국에 1~9개 사례가 분산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389), 남성(328), 그 외(14)로 나누어져 여성 참여자가 비교적 다수이며, 인종 또는 종족 정체성은 백인(661), 히스패닉(16), 아시아 또는 태평양 도서국(10),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9), 아메리카 원주민(6)이다. 교육 수준은 모두 높은 편으로 최종 학력 비중은 4년제 대학(300), 석사(158), 고등학교(125), 2년제 대학(114), 박사(34) 순이었다(Ferguson and Lovell 2015).

영국 퍼머컬처 연합에서 2015~2016년 36개국 451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도 참여자의 국적과 퍼머컬처 실천 지역이 유럽 및 북미, 호주 등 서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Van der Velden, Goldring, Langford, Clayfield, Walta, Lillington, Starhawk, Brennan, Carrion, and Van der Kampf 2017). 설문에 사용된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개인 응답자의 국적은 호주(32.6%), 미국(21.6%), 영국(16%)이 우세했다. 단체 단위의 설문조사에는 52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유럽 내 20개 국가(53%), 북미(16%), 오세아니아(10%), 아프리카(10%) 순이다.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유럽, 호주, 북미 중심 사례가 다수이다. 해당 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퍼머컬처 사례가 많으나 언어의 한계로 인해 통계 조사에 잘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에 공개된 다른 인터넷 자료들은 비서구 및 비영어권 국가의 사례들이 비교적 더 포함되어 있다. 세계 퍼머컬처 지도(World Permaculture MAP 2015)의 경우, 구글 지도에 전 세계에 분포한 약 740개의 퍼머컬처 단체들을 목록화하고 있는데, 지도상에 표시된 퍼머컬처 단체는 북미, 유럽, 호주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에는 일본, 터키, 이스라엘, 홍콩을 제외하고는 퍼머컬처 단체 사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퍼머컬처 글로벌(Permaculture Global)은 퍼머컬처 실천 주체, 교육자, 컨설턴트, 봉사자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웹페이지

내에 세계 퍼머컬처 프로젝트(Worldwide Permaculture Projects)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의 자발적인 등록을 통해 총 2731건의 프로젝트가 목록화되어 있다.[23] 그림 2의 지도화된 프로젝트 목록은 모든 대륙에서 퍼머컬처 기반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중서부 유럽 국가들이 각 800, 500건 이상, 호주에서 200건 이상으로 가장 많다.

<그림 5> 세계 퍼머컬처 프로젝트
(출처: 퍼머컬처 글로벌 웹사이트 https://permaculturegloba l.org/projects)

하지만 여전히, 퍼머컬처 실천 양상에 대한 자료들은 영어 및 다른 유럽권 언어에 치중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그 외의 언어권에서 이루어지는 퍼머컬처 실천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비영어권 및 비서구 지역의 퍼머컬처 실천 주체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퍼머컬처 현황 조사나 국제행사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퍼머컬처 관련 출판물의 지리적 분포 역시 서구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1978~1987년 퍼머컬처 등장 초기에는 미국과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가 각각 49%, 41%를 차지하였으며, 2008~2013년에는 북미 35%, 오세아니아 8%, 유럽 22%, 아프리카 18%, 라틴아메리카 6%, 남아시아 6%, 동아시아 4%, 서아시아 2%로 나타났다(Ferguson and Lovell 2014).

23) 2022.07.21. 기준이며 지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2) 비서구 주변부의 퍼머컬처 실천

퍼머컬처 운동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서구 지역에 편중된 것은, 이 운동이 초기에 서구 지역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퍼머컬처는 호주에서 고안되어 영어를 매개로 확산했으며, 특히 호주에서 1960년대 말부터 소비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땅으로 돌아가자(Return·Back to the land)'(Crosby, Lorber-Kasunic, and Accarigi 2014)는 아이디어와 대안적 생활양식 운동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이 다른 서구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질문과 대안적 하위문화의 모색 등, 68운동이라 불리는 사회적 격동은 서구사회에서 퍼머컬처가 등장하고 확산하는 사회적, 정치적, 지적 토대가 되었다(Grayson 2019).

이러한 상황에서, 비서구 지역에서의 퍼머컬처 실천 양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의 배경으로는, 초기 퍼머컬처 운동이 1960-70년대 나타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서구사회에 집중된 개발과 경제 성장의 결과에 대한 자발적 비판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비서구 사회에서의 환경 분야 및 퍼머컬처 운동은 이러한 맥락과 다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호주 및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개발과 소비의 대안으로 퍼머컬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과 달리, 비서구 사회의 퍼머컬처 운동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구 비정부기구에 의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인도주의적 형태를 지닌 서구 지식인의 신식민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Morel, Leger and Ferguson 2019: 15-16).

하지만, 남반구에서의 퍼머컬처 실천과 적응 양상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퍼머컬처는 단순히 과잉 개발된 서구사회에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축소되어 이해될 수 있다. 파더이는 퍼머컬처 실천 사례와 네트워크, 조직, 행사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였음에도, 남반구에서의 퍼머컬처 실천 양상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

족하다고 비판한다(Fadaee 2019). 이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운동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서구사회의 맥락에 치중해있으며,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남반구와 북반구의 기여와 책임이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서구 중심의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비서구, 주변부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인도의 경우, 1986년 빌 몰리슨이 방문하여 농부와 대안적 농업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한 것이 퍼머컬처 운동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후 인도의 개발 분야 비영리기구의 도움으로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에 퍼머컬처 농장이 세워졌으며, 퍼머컬처와 관련한 출간물도 발행되었다. 1989년 인도 퍼머컬처 연합이 조직되면서 실습 중심의 워크샵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인도 남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며 확산하였다. 2016년에는 전국 퍼머컬처 대회(NPC: 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가 조직되어 1,000명 이상의 농부, 학자, 활동가들이 모였으며, 2017년에는 제13차 IPC가 인도에서 개최되었다. NPC와 IPC는 인도 내에서 퍼머컬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Ibid: 725).

이외에 멕시코, 이집트, 중국,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태국, 인도, 세네갈, 에콰도르 등에 설립된 퍼머컬처 단체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Nierenberg 2015). 이 중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면, 먼저 엘살바도르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퍼머컬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1990년대에 내전이 종결된 후 농부들이 퍼머컬처와 유기농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2002년 엘살바도르 퍼머컬처 연구소(IPES: Instituto de Permacultura of El Salvador)가 설립되어 농부 간 교류가 확장되었다. IPES는 수치토토(Suchitoto)에 퍼머컬처 시범 공간을 조성하여 PDC와 전문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퍼머컬처는 점차 전국의 작은 마을들로 확산하였다. 또한 수치토토 농업 포럼(Mesa de Agricultura de Suchitoto)을 개최하여 퍼머컬처 프로그램 졸업생과 비영리 기구, 마을 주민, 지방정부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태국에서는 2009년 퍼머컬처 연구소 아시아(PIA: Permaculture Institute Asia)가 설립되어 퍼머컬처 연구농장과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매단체인 퍼머컬처 연구소 태국(Permaculture Institute Thailand)은 다양한 퍼머컬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도 2011년 첫 PDC 진행을 시작으로 2012년 비영리기구 퍼머컬처 우크라이나(Permaculture in Ukraine)가 설립되었으며, 매년 PDC를 진행해왔다.

말라위의 경우 2009년 제9차 IPC가 개최된 국가로, 당시 비영리 기구 쿠사말라 농업생태 연구소(Kusamala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Ecology)가 설립되어 PDC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병원이나 학교의 텃밭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인구의 80%가 생계형 농부인 말라위의 경우, 영양실조 종식, 식량안보,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토착 작물과 자원을 활용하는 농생태학적(agro-ecological) 시스템으로서 퍼머컬처를 도입하고 있다.

2. 퍼머컬처의 국내 도입

1절에서 살펴보았듯 퍼머컬처는 1970년대부터 서구 국가 중심으로 확산하였으며, 비서구 국가들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에 비해 퍼머컬처가 늦게 도입된 편으로, 2003년 퍼머컬처 교육 프로그램이 처음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경부터 PDC가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퍼머컬처 실천 단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을 전후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안적 농업과 자급적 농사 실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퍼머컬처 실천의 확대 역시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의 퍼머컬처 도입 양상을 크게 2003년 도입기와 2014년 확산기, 그리고 2020년 이후의 정착기로 살펴본다. 2014년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한국에서 퍼머컬처 실천의 조류

가 구체화되어 전국적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다수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2020년 이후를 정착기로 본 것은 다수 형성된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교류와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를 거쳐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를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2003~2013년, 2014~2020년, 2020년~현재까지의 세 시기를 중심으로 국내 퍼머컬처 실천 양상을 살펴보자.

1) 도입기(2003~2013)

한국에는 퍼머컬처는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처음 퍼머컬처 개념을 대중에게 알렸던 것은 사회적 기업 ㈜이장의 임경수 전 대표이사로, 그는 호주의 생태 마을 크리스탈 워터스(Crystal Waters)에서 PDC를 수료한 후 2001년 강원도 춘천에서 주식회사 이장을 창업하며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장은 농촌의 환경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목적 아래 생태 마을 조성, 농촌 마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신동호 2009).

임경수 전 대표이사는 ㈜이장 활동을 하던 2003년에 '퍼머컬처 디자인 스쿨'과 2011년 '퍼머컬처 대학'이라는 퍼머컬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저서로 『이제, 시골 - 퍼머컬처로 귀향을 디자인하다』를 펴내기도 하였는데, 귀농 희망자에 초점을 두고 농촌 생활 디자인에 퍼머컬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저술 활동을 바탕으로 그의 주된 관심이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농촌 마을 조성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인구에 맞춘 사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퍼머컬처를 실현한다는 목적보다는 농촌의 지속과 공동체성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단체·공기업과 협업한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에 집중해왔으며, 이러한 사업에서 퍼머컬처는 농촌에 적용되어야 할 생태적 농업의 사례로서 다루어졌다. 크리스탈 워터스처럼 퍼머컬처 윤리, 디자인 원리에 기초한 생태 마을을 계획적으로 형성한 해외 사례와 달리, 기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하향식 사업 모델에 퍼머컬처를 적용했기 때문에 퍼머컬처에 대한 이해와 관련 활동이 단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퍼머컬처를 소개한 사례로는,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농촌 마을인 민들레공동체 산하의 대안기술센터가 주최하여 2010년과 2011년 총 두 차례 PDC를 진행했다.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의 퍼머컬처 교육가 모랙 갬블(Morag Gamble)과 이반 레이몬드(Evan Raymond)를 초청해 진행하였으며, 이때 ㈜이장도 협업하였다. 해당 PDC는 교육가 및 교육 장소의 특성상 기존 생태 마을 및 농촌 마을에 퍼머컬처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10여 년간은 ㈜이장을 중심으로 한 농촌 마을 조성 사업을 바탕으로 주로 단기적인 퍼머컬처 개념 강의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 퍼머컬처를 확산하는 가장 보편적인 교육 과정인 PDC는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퍼머컬처를 실천하며 교육하는 후세대가 형성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초기 퍼머컬처 양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2014년부터로, 전환 마을 운동과 PDC를 중심으로 한 퍼머컬처 교육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2) 확산기(2014~2020)

국내에서 한국인 퍼머컬처 교육자에 의해 PDC 과정이 진행된 것은 2014년 전환 마을(Transition Town) 운동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우선 전환 마을 운동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전환 마을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자. 전환 마을 운동은 서구사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로 인한 불균형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남반구(Global South) 지역사회에 가해졌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전환 마을 운동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며, 저탄소(low-carbon)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Transition Network 2021a). 구체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생산, 경제 활동 등의 재지

역화(relocalisation), 시민들의 자급(self-sufficient)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습득(reskilling)을 추구한다(Hopkins 2008). 또한, 마을의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적인 전환(Inner Transition)에도 관심을 기울인다(Transition Network 2021b). 이러한 지역 기반 활동을 통해 더 회복력 있고(resilient)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퍼머컬처 운동의 대표적 파급효과에 해당하는 전환 마을 운동은 2005년 아일랜드의 마을 킨세일(Kinsale)에서 시작되었다. 대안학교 킨세일 칼리지에서 퍼머컬처를 공부하던 학생들은 석유 생산이 감소하는 피크오일(peak oil)에 경각심을 가지고, 퍼머컬처 원리를 적용하고자 화석연료에 덜 의존적인 생활양식을 설계했다(Stites 2014: 20). 당시 킨세일에서 퍼머컬처를 가르쳤던 롭 홉킨스(Rob Hopkins)는 이후 영국 남서쪽의 소도시 토트네스(Totnes)로 이주하면서 2006년부터 전환 마을 토트네스(TTT, Transition Town Totnes)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토트네스는 전환 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토트네스 주민들은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2006년 9월 주민 450여 명이 모여 식량, 에너지, 거주, 교육 등 분야별 활동 그룹을 형성하였다. 가장 먼저 식량 분야에서 학교 농장 활동을 시작했으며 작물 재배, 옷 수선, 자전거 수리 등 실용적인 기술을 나누는 기술 공유(Skillshares),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거나 텃밭이 없는 가구에 땅을 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환주택(Transition Home) 등의 분야별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Gui and Nardi 2015: 362-364). 토트네스는 지역 먹거리 운동, 영국 최초의 지역화폐인 토트네스 파운드(Totnes Pound), 에너지 자립 운동 등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지역 주민 주도의 대응 모델로 주목받았다(최인수 2014).

토트네스의 영향을 받아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325개 마을이 전환 마을 운동에 참여하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대륙으로도 확산하였다(Aiken 2012). 토트네스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전환 트레이닝(Transition Training) 수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2,500명 이상의

전환 교육가가 형성되었다(Hopkins 2011: 22). 2011년 기준 34개국에서 1천여 개의 지역사회가 전환 마을을 선언하였으며(Ibid: 292), 전환 마을뿐 아니라 전환 도시, 전환 대학, 전환비즈니스 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전환 운동(Transition movement)이라 통칭한다(Hopkins 2012). 2022년 기준 전환 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전환 그룹(TG: Transition Group)은 48개국 1,109개이다.[24] 2011년 전환 마을이 형성된 국가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등 북반구 국가에 집중되었으나 2022년 기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사례도 나타났다.

퍼머컬처와 전환 마을 운동은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시작된 운동이라는 점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퍼머컬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환 마을 개념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전환 마을 운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히데 에노모토(Hide Enomoto)가 퍼머컬처를 배우며 알게 된 동료들과 함께 2008년 전환 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일본 전역에 확산하고자 전환 일본(Transition Japan)을 설립했다(Hopkins 2021). 전환 마을을 선언하고 지역의 생태적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퍼머컬처 기반의 공유 텃밭이나 학교 텃밭은 거의 모든 마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 자립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환 마을 운동은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 내에서 자립적·생태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환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 외부 투자를 받아 일회적인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찾아내고 계발하여 자립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책 읽기나 영화 보기 등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며, 기존의

24)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는 각국의 전환 마을 운동을 기록하며, 각 지역에서 전환 모델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체이다.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전환 그룹들을 표시한 지도를 참고하였다(https://transitionnetwork.org/transition-near-me/).

마을 모임이나 단체들이 전환 마을 운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도 한다(서울혁신센터 2021).

한국에 전환 마을의 개념과 운동을 들여온 것은 '전환 마을 은평' 대표 유희정으로, 그는 토트네스에 거주하며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 은평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환 마을 은평을 선언했다(조은비 2022). 그는 '퍼머컬처 학교', '잡초라도 충분한 풀학교', '숲밭가드너 학교' 등, PDC를 비롯한 퍼머컬처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퍼머컬처와 전환 마을 운동을 알리고 있다. 퍼머컬처 농장이나 텃밭이 생기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자립적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주민들의 연결망이 형성되며, 이들을 통해 전환 마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울혁신센터 2021).

전환 마을 은평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풀을 이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먹거리를 만드는 풀학교, 프로그램과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채식 식당 '전환마을부엌 밥풀꽃'이 있다. 밥풀꽃은 2015년 11월 먹거리 자립을 위한 마을식당으로 개업했다(유희정 2017). 이러한 활동에서 사용되는 풀이나 식재료들은 최대한 은평구나 수도권에서 생산된 것, 또는 퍼머컬처나 유기농업으로 농사짓는 농부의 생산물을 사용한다. 이처럼 퍼머컬처는 지역의 자립적 생활양식을 위한 기반이 된다.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된 전환 마을은 퍼머컬처 교육을 동반하며 서울 영등포의 하자센터, 마포의 성미산마을, 충남 금산의 간디학교를 중심으로 한 숲속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였다. 이들은 2017년 2월 '한국 전환 마을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그림 6> 전환 마을 선언 사례
(출처: 전환마을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그렇다면 국내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진행된 PDC와, 이를 통해 형성된 퍼머컬처 활동가들의 지역별 실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환마을 은평 대표 유희정은 퍼머컬처 교육 및 텃밭 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지에 퍼머컬처 텃밭을 만들고, PDC를 통해 퍼머컬처 활동가를 양성해왔다. 2014년 9월 첫 번째 PDC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1~2회 이상 PDC를 진행해왔으며, 2022년 기준 18회 진행되었다.[25]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PDC가 진행되었는데, 진안, 영동, 양평, 파주,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화천, 부산, 춘천, 강릉, 대전, 광명, 금산, 강화 등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유지와 생태적 생활양식에 관심 있는 인근 지역 주민 간의 관계망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PDC는 2주 동안 합숙하며 진행되지만, 여건에 따라 매 주

25) 퍼머컬처 학교, https://www.facebook.com/permacultureschoolkorea, (2022.10.30. 접속)

말이나 1달에 1~2일씩 나누어 수업과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몇 개월간 진행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PDC를 계기로 함께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처음부터 특정 마을 단위나 소모임 차원에서 PDC 진행을 요청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PDC는 매회 진행되는 지역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데, 해당 마을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공간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참여자들은 각 주제에 해당하는 최종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강릉에서 진행된 PDC의 주제는 “전환 도시 강릉과 생태교육 공동체 디자인”이었다.[26]

참여자들은 PDC를 수료한 후 퍼머컬처 실천을 이어가면서, 지역 내에서 농사를 비롯한 생태적 활동을 더 확장하기 위해 전환 마을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진행해온 생태적 전환과 관련한 활동들이 퍼머컬처 농사와 함께 확장되어 전환 마을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릉의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 강릉 거주민 4명이 모여 책 읽기, 밥 같이 먹기, 농사 모임 등을 진행하다가 2019년부터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상점인 ‘내일상회’를 만들어 기후 위기, 대안경제, 생태주의 관련 책과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강릉 해변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협동조합 ‘생태전환마을내일’로 확장하였으며, 2021년 강릉 구정면에 퍼머컬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퍼머컬처 텃밭을 조성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이혜림 2022). 이처럼 강릉에서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전환 마을 운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8월 강릉에서 PDC를 진행하게 되면서 PDC 수료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전환 마을 강릉을 선언하였다.

3) 정착기(2020~현재)

2014년부터 전환 마을 운동과 퍼머컬처가 함께 성장하는 동안, 퍼머컬처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관심도 점차 높아져 공공기관 사업이나 교육

---

26) 전환마을 네트워크, https://www.facebook.com/koreatransitionnetwork/photos/a.324199754661372/1531981493883186 (2022.10.28. 접속)

기관 등 제도적, 정책적 영역에서도 퍼머컬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충북 보은 판동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충북 영동 추풍령 중학교는 2021년부터 학교 내에 퍼머컬처 숲밭을 조성하고 교과과정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퍼머컬처를 도입했다(전윤서 2021; 심우리 2022).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2021년부터 쌍문동 도시농업공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이론과 실습 퍼머컬처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에도 2020년부터 퍼머컬처 공유텃밭이 조성되어 참여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퍼머컬처를 사업화한 사례도 등장하였다. 퍼머컬처 텃밭 시공과 교육 등을 상품화하여 수익 창출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화된 사례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한국에는 전무했다. 퍼머컬처가 처음 국내에 소개되고 약 20년 후 등장한 '애플체인'은 도시나 농촌의 체험농장, 유치원, 옥상정원, 개인 정원 등을 대상으로 생태조경 시공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이다. 대표 이진호는 2019년 회사에서 사내벤처 공모전으로 애플체인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맛있는정원코리아로 이름을 바꾸었다. 퍼머컬처 입문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퍼머컬처 농법의 상업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김종선 2020).

전환 마을 운동의 흐름에서도 전국적으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지역사회 모임이나 단체가 다수 형성되었으며 이는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는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지역별 모임, 단체, 기관들과 PDC를 이수한 활동가들이 서로의 활동을 인지하고, 협업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출범하였다.

처음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이다. 2019년 기준으로 총 10회의 PDC가 진행되면서 100명 이상의 PDC 수료자가 나왔기에, 퍼머컬처 학교를 운영하는 전환 마을 은평 대표 유희정은 한국에서도 퍼머컬처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앞서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 양상에서 다룬 해외 퍼머컬처 사례

에는 국가, 대륙, 도시별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연합체도 다수 존재하며,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퍼머컬처 실천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회를 시작하고자 했다. 2020년 2월 의정부시의 수락 텃밭에서 퍼머컬처 총동문회를 열어 PDC 수료자들이 모여 네트워크 출범을 논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출범이 미루어지다가, 2022년 8월 강릉에서 진행된 PDC 수료식과 함께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연구자는 2022년 8월 강릉에서 열린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에 참여하여 전국의 퍼머컬처 텃밭과 모임, 단체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는 2022년 8월 처음 진행되었는데, 이때 강릉에서는 PDC 수료식과 전환 마을 강릉 선언식, 퍼머컬처 총동문회,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 퍼머컬처 네트워크 출범식을 함께 진행했다.[27]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전국 20여 곳의 퍼머컬처 실천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발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수락을 포함하여 파주 '평화마을 짓자', 춘천 '강원 도시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강릉 '생태전환마을 내일' 협동조합, 부산의 '학리 기후변화 교육센터'와 '온 배움터', 경북 구미 '생태감성충전소 아지랑', 충북 영동군 추풍령 중학교 내 숲밭과 학교 협동조합인 '추풍령쿱피스', 경남 거창군 '지구 온도를 낮추는 농부모임' 등이 있다.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에서 소개된 각 지역의 사례들은 크게 마을,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 단위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인 파주의 '평화마을 짓자'는 학생, 선생님, 예술가, 농부 등 예술, 농사, 평화에 관심이 많은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형성한 마을이다. 이들은 사단법인의 형태로 함께 농사를 지으며 2019년부터 먹거리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례는 춘천의 '강원 도시농업 사회적

27) 8월 13일에는 PDC 17기 수료식, 전환 마을 강릉 선언식과 퍼머컬처 총동문회, 14일에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 15일에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 출범식이 이루어졌다.

협동조합'으로, 2015년 '씨앗과 농부'라는 토종 씨앗 지키기 및 텃밭 교육 협동조합으로 시작하였다. 2021년부터 퍼머컬처 워크숍과 PDC를 통해 텃밭 두 곳을 조성했으며, 이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거점이자 학교 텃밭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들과 함께 전환 마을 춘천을 선언했다.

교육 기관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등 공공 교육 기관 외에도 텃밭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체가 있다. 부산의 '학리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폐교를 지열,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로 리모델링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센터의 활동가들이 함께 퍼머컬처 기반의 농사를 지으며, 텃밭에서 학생 체험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도 열고 있다. 이외에 경북 구미의 '생태감성충전소 아지랑'은 2019년 '만유의 숲밭'을 조성하여 '숲밭 놀이터', '어린이 동물학교', '허브 생활재 만들기', '하루종일 자급자족 놀이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동 농사 모임도 꾸리고 있다.

마을, 협동조합, 교육기관이 모두 연계하여 퍼머컬처를 실천하기도 한다. 부산 금정구에는 생태교육협동조합인 '온 배움터'와 주민자치 조직 '금샘마을공동체', 그리고 화명초등학교가 연계되어 있다. 금샘마을은 처음 공동육아를 위해 정착한 가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왔으며, 같은 지역에서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온 배움터와 활동을 공유해왔다. 이에 참여해온 주민들이 2020년 PDC를 이수한 후 인근 화명초등학교에 퍼머컬처 숲밭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학교 측의 수락으로 학부모와 주민, 교원들이 교내에 밭을 조성했다. 화명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퍼머컬처 농사와 퇴비 만들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락은 기존 퍼머컬처 실천 단위와 유사하면서도, 이들과 다른 독특성을 지닌다. 위와 같은 전국의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임이나 단체를 토대로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주목한 수락은 기존의 주민조직이나 단체를 모체로 두지 않는다. 수도권

지역 거주민이 참여하는 수락은 특정 지역구, 마을 등의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매년 모집하는 수락 구성원들은 텃밭이 위치한 의정부시나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시 도처에 거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락은 퍼머컬처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마을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퍼머컬처를 실천하게 된 것과 달리, 처음부터 퍼머컬처 실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락은 도시 중심의 소비적 생활양식에 더 비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례이다. 마을 내 모임이나 농촌 등 도시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도시의 생활양식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문제의식을 퍼머컬처 실천으로 연결하고 있다.

물론 도시농업도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락이 도시농업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락은 기존의 도시농업과 차이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도시농업은 1990년대 이후 성장하여, 2000년대 말부터는 도시농업의 산업적 기능, 환경보전 기능, 문화적 기능 등에 주목하게 되면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였다(손슬기 2013). 이러한 국가 주도의 도시농업은 주로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로 이루어지며, 텃밭은 개별 분양을 통해 일괄적인 형태로 획일적인 일년생 중심의 작물 재배만 이루어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유지로서 가꾸어지기보다는 개별 핵가족 중심의 개인적 농사에 그친다. 이와 달리 수락은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이 아니라 20대에서 60대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들이 참여하며 여가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텃밭은 다양한 생물종과 다년생 식물을 포함하도록 디자인하며, 개별 밭을 분양하긴 하지만 이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밭 속에 위치하여 공동 농사 중심으로 활동한다.

결국 수락은 도시 내에서의 자립적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먹거리, 에너지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분이라도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락의 구체

적 형성 및 변화 과정이 어떠한지, 또 구성원들은 어떻게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수락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Ⅲ. 퍼머컬처 공동체 수락

이 장에서는 먼저 퍼머컬처 실천의 지역적인 형태인 수락을 소개한다. 한국의 퍼머컬처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그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전국 각지에 등장하였는데, 연구자는 수락을 이러한 실천 단위 중 하나로 파악한다. 수락은 2020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공동 농사 형태를 통해 퍼머컬처를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활동 시작 2년째인 2021년부터는 모임 횟수를 증가하고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장기적 활동을 위한 구성원 간 유대 형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수락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가 퍼머컬처 운동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장의 후반부에서는 수락 구성원들이 농사와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고 수락에 참여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가 하나의 운동으로서의 퍼머컬처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구성원들이 이윤만을 추구하기보다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며, 소비 영역에서의 실천을 포함해 대안적 생활양식을 모색해왔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임금노동과 소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급 비중을 높이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이때 농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구성원들이 농사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게 된 개인적 경험 그리고 수락에 참여하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다.

또한 연구자는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놓여있는 관행(慣行)농업과 농촌에 대한 낭만적 시각에 대한 비판의식을 조명한다. 구성원들은 대안적 농업과 문화를 실천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느끼며 수락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자급·자족의 비중을 높이는 삶을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으로 간주되며, 자본주의적 노동과 소비

에 의존하는 삶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와는 달리, 수락 구성원들은 농촌 이주를 궁극적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반드시 도시를 떠나 농촌에 가야만 생태적 삶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본 장의 후반에서는 이처럼 수락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퍼머컬처의 구체적 실천 양상을 살펴본다.

1. 수락의 형성과 변화 과정

수락은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3년째 공동 농사에 참여할 구성원을 매년 모집하고 있다. 수락은 고정된 운영진과 참여자를 두기보다 1년 주기의 농사를 중심으로 매년 구성원을 모집하며 유동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며 수락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참여를 이어가며 개인 텃밭의 규모도 여력에 따라 매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는 수락 구성원들이 텃밭을 조성하고 위와 같은 공동 농사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형성과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수락 형성 초기(2019~2020)와 전환기(2021~현재)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초기(2019~2020)

수락은 국내에서 전환 마을 운동을 시작한 전환 마을 은평 대표이자 퍼머컬처 활동가인 유희정의 주도로 시작하였다. 퍼머컬처 활동가 유희정은 2014년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PDC, 풀학교 등 퍼머컬처 교육과 텃밭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적되었다. 수락은 이 중 서울·경기 지역 거주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 퍼머컬처 실천 모임이다.

수락은 2020년 3월부터 1년 단위의 농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어진 '겨울 작목반'과 2020년 2월에 진행된 'PDC 동문회'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겨울 작목반은 겨울을 나고 다음 해의 봄에 수확하는 마늘, 양파 등의 작물을 심기 위해 모집한 단기 작

목반이다. 수락 텃밭을 조성하기 전, 수락 텃밭이 위치한 부지 내의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겨울 작목반 참여자 중 일부는 이듬해 3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수락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대보름에는 기존에 PDC를 수료한 사람들이 수락 텃밭에 모여 1박 2일의 동문회를 진행했다. 주요 목적은 향후 국내 여러 지역의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출범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PDC 동문회를 통해 수락 텃밭의 공간을 접한 PDC 수료자 중,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지을 땅과 관계망을 원했던 사람들도 수락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락 구성원 모집은 2020년 2월에 이루어졌다. 매년 2월경 1년 동안 참여할 구성원을 모집한다. 2020, 2021년의 구성원 모집은 퍼머컬처 활동가 유희정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22년부터는 수락에 3년째 참여하는 구성원 중 2명이 자원하여 구성원 모집과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였다. 모집 방식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퍼머컬처를 실천하며 스스로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되실 분”, “퍼머컬처 철학과 실천을 추구하시는 분”,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요건이다. 신청서를 통해 퍼머컬처에 대한 지식이나 농사 경험을 확인하긴 하지만 이는 필수적이지 않다. 수락 텃밭에 오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지, 공동 모임뿐 아니라 개인 밭을 돌보기 위한 시간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2020년 첫해에는 3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퍼머컬처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림 7> 2020년 수락 모집 포스터 (출처: 퍼머컬처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위 그림에 나온 것처럼 수락은 ‘퍼머컬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

다. 스스로 ‘공동체’라 이름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적 이익이나 이윤 추구의 목적보다는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대안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텃밭을 분양하는 주말농장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동 밭과 개인 밭을 나누어 돌보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국가 소유의 주말농장에서 밭을 분양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수락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성원들은 공동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퍼머컬처 실현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생태적,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하고 있다. 수락 텃밭은 사유지를 임대한 것이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농업을 비롯한 대안적 생활양식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공유지 성격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요인이자 수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하게 되는 핵심적인 신념은 퍼머컬처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집 공지뿐 아니라 수락의 약속에도 잘 드러난다.

퍼머컬처 활동가 유희정은 2020년 수락 구성원을 모집할 때부터 퍼머컬처 원리와 윤리를 반영한 ‘퍼머컬처 공동체의 약속’을 제시하였으며, 구성원들은 매년 논의에 따라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도 하며 약속을 지키고 있다. 약속에는 퍼머컬처 기반의 농사 방식과 모임의 운영 방식이 포함되며, 기후·생태 위기 대응과 생명 다양성 회복을 중시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아래는 2020년 기준의 약속문이다.

<퍼머컬처 공동체의 약속>

①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 대기 중 배출된 탄소를 흙 속에 가둔다.

② 나무와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산소를 생산한다.

③ 무경운, 무화학비료, 무농약, 무비닐을 실천한다.

④ 자가퇴비생산, 피복작물재배, 섞어심기, 순환농법, 상생농업, 숲밭, 다년생 작물 재배 등 퍼머컬처 기반 농업을 실천한다.

⑤ 디자인 텃밭을 만들어 무경운을 실천하면서도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텃밭을 만든다.

⑥ 공동체에 기반한 농사를 실천한다.
⑦ 개인텃밭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배하되 공동체의 원칙을 지킨다.
⑧ 월 1회 공동체 모임에 참가하여 공동교육, 공동경작, 공동수확한다.
⑨ GMO 작물은 심지도 먹지도 않는다.
⑩ 밭에 가려온 쓰레기는 되가져간다.
⑪ 밭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믿고 다양성을 소중히 여긴다. 이
⑫ 텃밭을 지구의 마지막 생명을 싣는 방주로 생각하며 소중히 한다.

2020년 수락의 운영 방식은 2021년 이후와 차이가 있다. 2020년의 경우, 매월 1회 모임을 진행하며 공동 텃밭을 돌보았다. 이외에 각각 희망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감자, 고추, 고구마, 땅콩, 콩 작목반을 꾸렸는데, 참여자 중 1명이 작목반 반장을 자원하여 절기별 작업을 안내하면서 1년간 해당 작물을 길렀다. 작목반의 경우 공식 모임 외에도 각 작물의 식재 시기, 수확 시기 등에 따라 추가로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매회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4개의 울력[28] 조로 나누어 번갈아 뒷정리와 간식 준비 등을 맡았는데, 이는 매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전환기(2021~현재)

2020년에는 처음 공동 농사를 짓는 모임을 시작하고 밭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2년 차가 되는 2021년부터는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쌓기 시작했다. 특히 수락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모임이 매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며, 모든 구성원이 1번씩 모임을 이끄는 '매니저'를 맡았다.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락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락에서 추구하는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 저마다의 생각과 고민을 바탕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들이 농사

28) 울력은 본래 전통적 마을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힘을 합쳐 일하는 행위를 칭한다. (출처: 한국 민속대백과사전)

를 비롯한 자립적 생활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1년 만에 끝나지 않는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수락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전환기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모임이 월 2회로 늘어난 것은 2020년의 경험에서 월 1회로는 공동 텃밭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월 1회 외에도 구성원들이 자주 추가 일정을 잡고 모여 풀을 베거나 수확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모임 횟수를 늘린 것 외에도, 매회 모임을 안내하는 매니저를 두어 구성원들이 함께 모임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매니저는 공동 경비로 간식을 준비해오며, 조율로 모임을 시작한 후 그날 할 일을 안내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챙긴다.

2020년 첫해는 퍼머컬처 활동가 유희정의 주도로 운영되었으나, 그는 장기적으로 수락의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모임을 꾸려나갈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고 월 2회의 모임과 매니저를 제안했다. 구성원들은 이에 동의했는데, 수락을 정해진 담당자가 있는 단기적인 농사 프로그램으로 여기기보다는 장기적인 퍼머컬처 실천의 공간과 참여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에는 구성원 규모를 늘리기보다 기존 2020년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수락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2020년의 구성원 35명 중 연이어 참여하고자 하는 21명과 이들의 지인에게 한정하여 신규 구성원을 2명 모집하여, 총 23명이 참여하였다.

2021년 수락 운영 방식의 변화는 개인별 농사가 아니라 공동 농사 모임으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하겠다는 수락의 지향성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측면은 수락의 약속에도 반영되었다. 아래는 2020년 수락의 약속 12가지에 더해, 2021년에 추가된 약속들이다.

⑬ 공동 농사의 수확물 1/3은 공동체에 되돌려준다(씨앗, 먹거리).
⑭ 모든 공동체원은 1년에 한 번 모임을 이끈다.
⑮ 공동체 울력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돌본다.
⑯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에는 개인 텃밭의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중 13번째, 15번째 약속은 2020년부터 수락 구성원들이 지켜 온 사항이지만 약속에 반영하진 않았다. 2021년 모임이 늘어나고 구성원들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서, 공동 농사의 운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락의 약속으로 추가하였다. 16번째 약속은 2020년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하였다. 공동 농사가 익숙하지 않았던 초반에는 구성원들이 공동 텃밭에서 일하다가도 바로 곁에 있는 개인 텃밭을 지나치지 못하고 손을 대며 공동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2021년 수락은 2년째 참여하는 구성원이 다수로, 이들이 모두 매니저로서 모임을 안내하면서 소수의 주도적 역할에 의존하기보다 함께 모임을 꾸려가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나 팀워크를 형성하면서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현재 임대한 텃밭 부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공간을 찾아 함께 농사를 짓자고 말한다. 구성원들은 농사를 비롯한 퍼머컬처 실천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며, 수락에서 그 과정을 함께 할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퍼머컬처를 통해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2021년 수락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공동 농사를 짓는 모임의 운영과 별개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구성원 간 유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1년 차였던 2020년을 거쳐 2번째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역할 분담에 더 익숙해졌으며, 자신의 관심사나 특기를 살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부에 열린 행사에서는 각자 수확물을 이용한 요리나 허브를 활용한 음료 판매, 물건 나눔, 음악 연주 등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참여했다.

2. 구성원의 특성과 참여 동기

수락이 초기와 전환기를 거쳐 현재의 활동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락을 구성해 온 사람들의 농사에 대한 관심과 조직 유지

를 위한 헌신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구성원들의 연령대, 활동 분야 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구성원들이 농사 커뮤니티인 수락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본다.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참여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자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려 온 삶의 경험 혹은 삶의 궤적을 조명한다. 특히, 이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핵심 동기로 구성원들이 지닌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생활양식 모색의 노력에 주목한다.

1) 구성원의 특성

2021년 수락 구성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분포하며, 20대 4명, 30대 7명, 40대 5명, 50대 5명, 60대 2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의 90% 이상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쳤다. 모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휴직 중이거나 은퇴한 사람들을 포함해 구성원 절반이 환경, 생태, 교육 등 분야의 비영리 조직에 종사하며 그 외 구성원들도 개인 작업자나 활동가로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수락 구성원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연령대는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특성과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사례를 주로 다룬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총 731명 중 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참여자가 492명으로 나타났다(Ferguson and Lovell 2015). 연령대의 경우, <그림 8>은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36개국 451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및 연령 분포로, 36세 이상에 비교적 치우쳐 있지만 20대부터 60대 이상이 모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Van der Velden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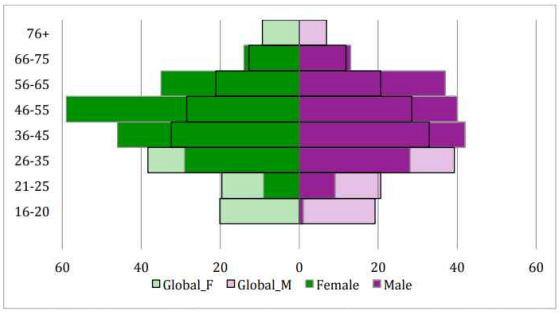


Figure 2 Population pyramids for permaculture respondents compared to global population in 2015. Dark colours show the distribution for permaculture, and pale colours with black border show the global equivalent for each gender and age group (n = 362).

<그림 8> 퍼머컬처 실천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Ibid: 8)

특히 2021년 수락의 구성원 23명은 전원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2020년 수락의 경우 구성원 35명 중 남성이 3명으로 약 10%를 차지했으나, 이들이 2021년에는 모두 지속하지 않았으며 신규 구성원 2명도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이다.[29] 여성 참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전 세계 퍼머컬처 실천 양상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한국에서 유독 성별 편중이 심한 편이다. 해외 연구 사례에서는 총 731명의 연구 참여자 성별이 여성(389), 남성(328), 그 외(14)로 여성이 더 많지만 국내 수락의 사례처럼 9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는다(Ferguson and Lovell 2015).

모집 과정에서 성별 제한을 두지 않음에도, 수락을 비롯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DC, 풀학교 등의 퍼머컬처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여자가 대다수인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성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부재하지만, 여성 참여자가 남성보다 다수인 것은 국내 퍼머컬처 실천 전반의 특징이다. 수락 구성원들은 모두 자신이 참여했던 퍼머컬처 교육이나 모임, 여타 생태주의적 활동에서 항상 여성이 과반수였다고 언급했다.

국내외 퍼머컬처 실천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퍼머컬처 내부에서 나타나는 남성중심적 교육 및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해외 퍼머컬처 운동 내부에서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PDC를 비롯한 퍼머컬처 교육 진행과 운영 등이 남성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의 무임금 활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Olson-Ramanujan 2013; Moyles 2016). 앞선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듯

29) 2022년 수락의 경우, 구성원 30명 중 남성은 2명이다.

여성 참여자가 남성보다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퍼머컬처 디자이너, 교육자, 저자, 연사 등 지도자의 역할은 대부분 남성이 맡는 불균형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퍼머컬처 활동가들은 퍼머컬처가 탈중앙적 운동임에도 여전히 백인 중산층 남성의 리더십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Moyles 2016).[30]

수락을 포함해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서는 교육, 운영 등 주도적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와 달리 나머지 퍼머컬처 사례에서는 남성이 대표직을 맡아 퍼머컬처를 교육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퍼머컬처 운동은 서구사회에서처럼 남성 중심적 양상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질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퍼머컬처와 연결되는 전반적인 환경·생태·시민운동 분야에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수락 구성원들은 자신이 종사하거나 활동하는 환경·생태 관련 영역에서도 특정 직함이나 주도적 역할이 남성에 집중되며, 퍼머컬처 운동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이는 수락의 모임 분위기와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수락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관계와 이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2021년 수락 구성원 중 퍼머컬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 구성원은 13명으로, 8명은 한국에서 PDC를 이수했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관심사에 따라 노출되는 포스팅을 보고 PDC 모집 소식을 알게 되거나, 이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형성한 관계망을 통해 퍼머컬처를 소개받고 PDC에 참여했다. 이외에 5명은 외국에서 처음 퍼머컬처 개념이나 생태적 농법을 접했다. 유기농가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우프(WWOOF: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장애인 생활공동체 캠프힐(Camp hill), 삶을 위한 학교라는 뜻의 덴마크 국제시민학교(IPC: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가 그 사례이다. 퍼머컬처를 처음 접한 경우에도 수락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2021년 구성원들은 신규 구성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에 퍼머컬처 기반의 요리나

30)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3년 10월 미국 동북부에서는 여성 퍼머컬처 활동가들의 모임이 시작되기도 했으며, 퍼머컬처 운동이 젠더 문제와 같은 사회적 동학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가공법, 자생적 풀에 대한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어서,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생활양식 모색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

구성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적 노동과 생산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임금노동 경험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은 에코페미니즘에서 제기하는 비판 지점과 유사하다.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가 내재하는 노동-여가 이원론, 생산-소비의 분리, 자연에 대한 자원화를 비판한다. 이러한 지점들을 수락 구성원들의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에 즐거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화폐소득 및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과 즐거움은 상반된다고 여겨지는데, 구성원들은 즐거움을 희생하는 노동이 지배적인 노동 형태인 것에 의문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구성원 들깨는 생계 소득을 위한 노동으로써 행해지는 “관행농”의 농사 방식은“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관행농을 포함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며 노동은 “돈을 위한 수단”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 (관행농은) 재미없어 진짜로. 재미없어. 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함부로 농약 치고. 돈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니 재미가 없지.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싶진 않은 거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즐겁게 살아야지. (들깨)

또한,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에 “재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신적 만족감이나 충족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낀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진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노동이 항상 내면적인 만족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구성원 수선화는 자신이 좋아하던

것도 “일이 되면” 재미가 없으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구성원 옥수수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조직과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과 물질적 풍요를 얻지만, 물질적 풍요와 반대되는 정신적 풍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 지금 내가 ○○(직장)에서 약간 정신적으로는 빈곤한데, 뭔가 채워내지 못한, 자아실현이라든지 잘 채워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월급 받고 그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 조직이 주는 안정감. 그런 건 또 풍족하고. 근데 정신은 빈곤. 그런 상태. (옥수수)

이윤 추구가 목적인 노동이 구성원들에게 재미가 없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자본주의적 노동이 성과, 결과, 절차 중심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하는 구성원 해바라기는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 하는 조직 문화의 한계를 언급한다. 노동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자연스러운” 절차를 따르게 된다.

> 사실 일을 할 때는, 도시에서 교육이라는 걸 할 때는 틀에 짜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되고.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 …‘밭에서 교육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짜여지면 진짜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밭을 하나의 교육장, 교육수단으로 활용해서 이걸 뽑아먹는 식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저는 밭일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데 거기에 좀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아닌 거 같다. (해바라기)

구성원들은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와 이직을 택하기도 한다. 구성원 박하는 이전에 일했던 직장이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음에도, 육식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하거나

배제되었음을 떠올린다.

> 지금 직장 분위기는 고기 안 먹으면 당연히 베이스로 생각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기를 먹고, 왜 고기를 안 먹냐고, 내가 체력이 약한 걸 또 아니까 고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였거든. 사장이 고기 먹는 사진 되게 많이 올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뭔가 생각하는 가치랑 삶이 되게 따로 노는 듯한. 내가 환경 때문에 고기 안 먹는 거라고 나중에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진 않는 거지. (박하)

특히 구성원 박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는 영리 기업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 내가 있었던 회사가 AI, 인공지능으로. 왜 인공지능이 필요한지 나는 동의가 안 돼서 그만뒀지만. 굳이 그 기계를 만들어서 와이파이 쓰고 전기 쓰면서, 그 만드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이고, 근데 국가에서는 모든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지금 먹히는 사업인 거지. 근데 웃기는 건 그 사업도 그 기계를 팔아서 사업하느냐, 그게 아니라 거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는 거야. 결국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거지.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 그니까 뭔가를 위한 뭐를 만드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박하)

즉 구성원들은 영리적 성과를 목적으로 노동을 수단화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즐거움과 정신적 만족감을 얻지 못하며, 관심이 있는 분야임에도 피상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에 한계를 느낀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기업보다는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에서 사회문화 및 생태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안적 가치와 문화 형성을 추구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리기업에서 일하다가 비영리적 조직으로 이직한 구성원들도 있다. 여성문화운동단체로 시작한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한 구성원 딸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장"이라는 직위명보다는 자신이 지닌 "활동가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나도 주류 생활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약간 나도 활동가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그냥 사장 활동가다. (딸기)

하지만, 구성원들은 영리보다 사회·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는 화폐소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구성원 바람의 경우,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을 벌려고 나를 갈아넣"으며 돈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두는 노동보다는 자신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가 비영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일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한 데엔 "생존할 정도"의 돈을 보장받는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저는 아주 적긴 하지만 연금이 나오고. 딱 생존할 정도, 혼자 생존할 정도의 연금. … 근데 이게 되게 큰 거 같아요. 내가 한 달에 뭐 '백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나와'하는 사람하고 '1원도 안 나와' 하는 사람하고 돈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생존은 할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남은 삶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벌려고 나를 갈아넣기보다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돈이 나오면 좋겠다, 그럼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다, 정도의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요. (바람)

즉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화폐소득을 위한 임금노동에 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데, 가령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조직에서 일해온 구성원 수선화는 주 5일을 출퇴근하는 노동

형태에 의문을 제기한다.

> 회사에서 일하는 건 재미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좋아서 가도 이게 일이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만두면서 든 생각은 직장을 가지면 안 되겠다. 어디 굳이 매여서 주 5일을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굳이 그래야 되나? (수선화)

이처럼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에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농사와 퍼머컬처, 나아가 수락 참여로 이어졌는지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의 경로를 통해 살펴보자. 구성원 해바라기, 들깨, 바람은 기존에 자본주의적 노동을 수행하며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공허함, 회의감, 의문을 마주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구성원 해바라기의 경우, 과거 “대기업 갈 것 같은 느낌”이었던 자신이 일종의 자본주의적 인간상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변화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난 뒤 공허해진 마음을 충족시키고자 각종 대외활동을 하였으나 크게 달라짐을 느끼지 못했다. 이후 해외로 국제 자원 활동을 떠났던 경험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한다.

> 저도 진짜 치열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4시간씩 자 가면서 맨날 공부만 하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어찌저찌 대학에 왔지. 왔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20살 때 딱 입학을 했는데 내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대학에 온다는 목표가. 그래서 그해 4월에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는 반수를 해야겠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목적이 대학밖에 없으니까, 나는 더 높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목표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공허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아 찾기 여정을 막 떠난 거 같아요.** 대외활동 진짜 많이 하고. 그걸 해야 뭔가 충족이 되니까 내가. 근데 이걸 해도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22살인가 그쯤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외 국제 자원 활동으로 5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좀 터닝 포인트였던 거 같긴 한데.** 그전에는 화장도 진짜 많이 하고 옷도 막 원피스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갔는데 맨날 냉장고 바지에 티셔츠에 화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안경 끼고 다녀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작은 마을에 저희가 가서 직업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나름 알려준다고 갔지만 저는 더 배운 게 많았던 게, 마을을 지나다니면 막 인사를 해요. 애기들 막 뛰어다니고 자기만의 전통 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면 환대를 막 해줘요. 나와서 춤을 막 추는데 8가지 손동작을 보여주면서 음식도 환대해주는데, **그때 좀 내가 너무 해야되는 거, 명예 이런 것들에만 억눌려 있었구나 하면서 해방감이 느껴져서. 그 뒤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죠. ○○이 달라졌다. 갑자기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더 프리하게 입고, 그때부터 갑자기 농사, 텃밭 쪽도 쭉쭉 진행됐으니까.**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전까진 막 착하고 말 잘 듣고 대기업 갈 것 같은 느낌. 이전까지의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걸 수행하면 정말 잘했어 칭찬받고 상을 받고,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나를 (정의하려 해서) 꼭 공기업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근데 거기에 갇히다 보면 제가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이게 나인가? 나는 그냥 좋은 학생으로 살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해바라기)

구성원 해바라기는 화폐소득을 위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삶의 목적을 두는 인간관을 비판하며, 다른 관점을 찾고자 했다. 그는 국제 자원 활동을 계기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나 역할로만 규정해온 것이 공허감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하며 마주하게 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있었다. 구성원 해바라기가 가졌던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질문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는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걸 사실 요가에서도 찾는 편이고 퍼머컬처도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회사 가는 거, 연봉 몇 받는 거, 집 어디 사는 거 이렇게만 정해지는데 그걸 잘 수행하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울음이 터지잖아요. 어, 이거 말고 인간은? 나 말고 인간은? 이라고 퀘스천을 던졌을 땐 사실 인간은 대기업 가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해바라기)

구성원 해바라기는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밭, 식물을 가꾸는 일, 땅을 만지는 일을 하면 인간을 알 수 있을 것”같았다고 말한다. 그는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한 대안교육 센터의 가족 단위 텃밭 분양 공고를 보고, 해당자가 아님에도 무작정 지원했다. 현재 수락 구성원이기도 한 센터 담당자가 그에게 다른 텃밭을 소개해주면서 “텃밭이라는 것을 도시에서도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후 그는 자연농법에 관한 책을 접하고 자연농법을 실천하는 농부를 만나보기도 하였으며, 졸업 후 생태 교육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서 직장에서 처음으로 텃밭을 가꾸게 되었다. 업무로서 밭을 관리한 것이지만 당시 경험이 “너무 좋았고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으며, 2020년 수락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농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되게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꾸 인간이 뭐지? 라는 질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려고 철학 공부도 하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문득 집에 혼자 있는데 아, 식물을 키우면 좀 알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제가 얼핏 느꼈던 뭔가 밭, 식물을 가꾸는 일, 뭔가 땅을 만지는 일을 하

면 인간을 알 수 있을 거 같아, 라는 어렴풋한 질문이 조금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니까 세계관이 좀 바뀐다고 해야 하나. (해바라기)

구성원 해바라기와 달리 구성원 들깨와 바람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경험하였다. 구성원 들깨의 경우,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소비주의적인 도시에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삶보다는 귀촌과 자립·자족하는 삶을 희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는 제 인생을 반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반기는 직장생활만 했어요. 도시에서 살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 도시의 삶은 계속 소비만 해대고 자연만 파괴하고. 제 생각은 자연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발전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혼자서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 사회생활,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내 인생은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생각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귀촌이랑 연결이 된 거고. 자립·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야 적게 쓰고 덜 파괴하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 먹거리는 내가 직접 생산을 해야되겠다. (들깨)

구성원 들깨는 귀촌과 자립·자족적 삶을 위해 퇴사를 선택했다. 퇴사를 결심한 데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자금과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컸음에도 “시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자본주의적 노동은 화폐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시간은 희생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귀촌을 위해 자립·자족하는 기술과 지식을 익히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면서, 회사에 쏟는 시간이 아까웠다고 말한다. 퇴사 후에는 자생하는 풀의 활용법을 배우고 농사 경험을 쌓기 위한 탐색 과정에서 자연농법에 이어 퍼머컬처를 접하였으며, 2020년부터 수락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사는) 귀촌을 위한 과정인 거죠. … 사실은 10년 동안 돈을 더

바짝 벌어서 충분한 여유자금으로 갈까, 아니면 지금 그만둬서 좀 자금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더 비싸고 중요하다는 판단, 시간과 건강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도 회사 다니면서 너무 돌보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좋은 상태였었고. … 일단 만족하기로 했어요. 너무 큰 땅과 큰 집, 좋은 자재 이런 걸 따지지 말자. 왜냐하면은 긴 세월을 살 거 같지만 사실은 찰나의 시간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너무 공들이고 애쓰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 (귀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나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일할 당시에도 매일매일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너무 하기 싫었고. 거기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직원들을 가르쳐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내가 리더십을 공부하고 발휘해야 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그런 거에 쏟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나는 풀을 더 공부하고 싶고 빨리 농사 경험을 하고 싶고 그래서 후회는 없었어요. (들깨)

도시의 소비주의적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삶에 회의를 느꼈다는 구성원들깨의 입장을 수락 구성원들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앞서 구성원 옥수수는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회의감뿐 아니라 “정신적 빈곤”을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원 들깨는 향후 농촌으로의 이주를 통해 도시의 소비주의적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수락에 참여하며 이미 대안적 삶의 양식을 실험하고 있다.

구성원 바람이 퍼머컬처를 접하게 된 과정은 그가 50대에 들어서며 맞이했던 “전환기”부터 시작한다. 그는 이 시기를 “새로운 갱년기”, “50대 사춘기”라고 말하며, 특히 건강 문제로 이전까지 다녔던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퇴사 후 한국을 떠나 외국의 생태·명상 공동체에 방문하려다가, 우연히 한 책을 보고 덴마크에 가게 되었다.

50대 들어오면서 아, 그동안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나? 그런 의문이 들면서 뭔가 내 삶을 좀 재정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좀 절박했던 거 같아요. 일단은 몸이 너무 아팠고. 직장을 계속 다니기에는. 별 검사를 다 하는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무 아픈 거야. 이대로 이 생활을 계속하다가 내가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산다고 해도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아팠고. 그 전까지 엄청 직장생활 재밌게 했었거든요.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덴마크로 갔던 게 저는 책 한 권 때문에. …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내 주 키워드여서 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뭔가 가치와 목표와 돌봄을 같이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인도의 오로빌(Auroville)이나 프랑스의 플럼빌리지(Plum Village) 이런 종교와 명상과 관련된 공동체만 알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삶을 위한 학교』라는 책이 나온다고 뜬걸 녹색평론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 책 표지만 보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왠지 이게 내가 찾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줄 풀어줄 거 같아.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덴마크에 가야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갔죠. (바람)

구성원 바람이 책에서 본 곳은 덴마크에 위치한 성인을 위한 기숙학교인 국제 시민 학교(IPC, International People's College)로, 한국에서는 '인생학교'로 번역되기도 했다.[31] 구성원 바람은 2016년 IPC에 등록하였는데, 당시 36개국에서 온 10대부터 50대까지의 참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고정되었던 자신의 시각을 흔들어주는 덴마크에 체류하며 "나이, 인종, 국적을 다 떼고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더 이해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탐색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구성원 바람은 이전까지의 직장생활에서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31) IPC는 만 1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로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가지고 살아왔으며, 사회적으로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되기 위해 가면을 써온 것이 몸이 아팠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편한 방식보다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습과 속도, 방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성원 바람의 경험은, 앞서 구성원 해바라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만을 목표로 살아가다 공허감을 느낀 후 자신의 존재 및 역할을 탐구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 나는 내가 엄청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덴마크 가니까 파티를 안 가는 거야. 조용히 한 두세 명 앉아있는 데 가서는 너네 무슨 이야기해? 이렇게는 하는데, 막 모여서 떠들고 이러는 그룹엔 내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활동,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도 괜찮았던 곳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덴마크였던 거에요. 그러면서 나의 본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더 편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요구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서 힘들었구나, 힘들어서 아팠구나, 내가 너무너무 애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원래의 나의 모습대로 될 수 있으면 그 속도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순간순간 노력하고 있죠. …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대로 하려고 자기 자신을 엄청 바꾸고, 엄청 많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이 가면, 저 가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나이 돼서 좀 나의 본래 모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까. 근데 이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하마터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뻔했어. (바람)

구성원 바람은 이처럼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는 과정에서 퍼머컬처를 접하게 되었다. IPC의 수업 중 퍼머컬처가 있었는데, 그는 퍼머컬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야외에서 텃밭 활동을 하고 싶어 수업을 신청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속적인 농업이라는 퍼머컬처 개념에 비판적이었다고 말하

는데, 농업이란 인간을 위해 자연에 관여하고 자연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밭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밭이 자신에게 풍요로움과 힘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퍼머컬처를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IPC에 있으면서 퍼머컬처 밭을 만들었거든요. IPC가 학교니까 수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퍼머컬처였어요. 그때는 제목은 서스테너블 가드닝(sustainable gardening)인가 그랬는데 뭔가 가드닝한다고, 퍼머컬처라는 말을 전혀 못 들었던 시기라 뭔가 가드닝한다 그래서, 교실에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수업을 신청했는데. … 거기서 퍼머컬처라는 말을 처음 들었죠. **퍼머컬처? 그렇게 이상한 단어가 있다고? 애그리컬처(agriculture)가 어떻게 퍼머넌트(permanent)해? 이러면서. 처음에 저는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의 개념은 아무래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이롭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에 관여하는데 자연을 많이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퍼머넌트(permanent)하고 연결되는 게, 그게 얼마나 퍼머넌트(permanent)하겠어? 그래, 최대한은 노력해볼 수 있겠지만 참 단어가 과장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돌아올 땐 제가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재밌었어요, 그게.** 한 2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나 혼자서 그 100명이 있는 학교를 혼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서 우리가 만든 퍼머컬처 밭을 내가 관리하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가서 얘네들이 어떤지 보고, 풀도 좀 뽑아주고 돌아오는 길에 체리나무에서 체리도 좀 따먹고. 토마토 따 먹고. 그러니까 올곧이 그 공간이 나의 공간이 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100명 이상이 있던 그 큰 학교에, 호수까지 숲까지 있는 학교여서 공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큰 학교에 나 혼자 있는데 되게 풍요롭고 되게 풍성한 거예요. 꽉 차 있는 느낌이 나고. 이제 이게 밭이었다는 생각을, 밭이 나에게 주는 힘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밭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바람)

구성원 바람은 한국에 돌아오면서 IPC처럼 “성인들이 쉬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를 열고, 그 프로그램 중 하나로 퍼머컬처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덴마크에서의 체류 이후 태국에서 PDC를 이수하려 했으나, 인원 미달로 PDC 대신 퍼머컬처와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듣기도 했다. 그는 2020년부터 수락에 참여해왔으며 서울 은평구의 퍼머컬처 공유텃밭 운영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퍼머컬처를 처음 알게 됐고 한국에 오면서 퍼머컬처를 좀 더 알고싶다, 이렇게 해서 태국 가서 퍼머컬처 연수를 좀 받았어요. …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이 인생학교를 해야되겠다, 덴마크처럼 성인들이 쉬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학교를 해야되겠다.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내가 퍼머컬처를 하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음 지금 하고는 있어요, 둘 다. (바람)

구성원 해바라기, 들깨, 바람은 이전까지 체화했던 삶의 방식을 비판하며 다른 삶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사와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에 의문을 느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고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식을 희생해왔음을 깨달으면서 퇴사를 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를 탐구하기 위한 여정에서 농사를 짓게 되거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자급·자립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퍼머컬처를 접하였고 이는 수락 참여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구성원들이 농사와 퍼머컬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해온 역사도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대안적 생활양식 모색

구성원들이 지닌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비판적 인식은 대안적 생활양식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구성원들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상품 소비를 통해 충족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비판한다. 특히 도시에서의 삶이 소비주의적이라고 느끼며, 사회적·생태적 문제의식에 기초한 대안적 생활양식을 모색해왔다.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은 대안적 소비와, 소비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 전반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비와 관련해 구성원들은 화석연료와 포장 쓰레기를 소비하는 장거리 유통이나 택배 배송을 지양한다. 특히 먹거리의 경우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매하려 한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보다는 생활협동조합 제품을 택한다. 매회 모임 안내를 맡은 매니저들이 준비해오는 과일, 과자 등의 간식도 생활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제품인 경우가 많다.

> 저는 두레생협 회원이라서 생협에서 거의 백프로 사고, 생협에 없는데 갑자기 뭘 먹고 싶다고 했을 땐 보통 마트 가서 사고. 옛날에는 '언니네 텃밭'이라고 꾸러미도 신청해서, 그때는 여성 농민들 좀 후원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거의 고민이 일단 탄소발자국, 너무 유통이 돼서 오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오는데 그 쓰레기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 농민 지원도 좋은데 일단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텃밭 꾸러미는 그만뒀고 주로 생협. (바람)

또한, 구성원들은 재생 불가능한 재료로 이루어진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지양한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섬유보다 재생 및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한다. 수락에서 모임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 각자 물통과 도시락을 챙기며, 행사 참가자들에게도 개인 컵을 지참하라고 공지한다. 이외에 밭에서 기른 수세미를 삶아 직접 천연 수세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 저는 플라스틱 잘 못 사겠어요. 뭔가 사야 할 게 있으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을 알아봐요. 저 다이소 진짜 싫어하거든요. 플라스틱 진짜 많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칫솔도 플라스틱 아닌 거, 치실도.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찾아보면 친환경 제품이 많아서 그런 거 알아보고 쓰려고 하고. (수선화)

먹거리 소비와 관련해 구성원들은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육식을 지양하는 편이다. 구성원 중 완전 채식(vegan)을 실천하거나 비건을 지향하는 채식을 실천하는 경우는 23명 중 7명으로 약 30%이다. 이들을 고려해 먹거리를 비건으로 챙기는 측면도 있으나, 자신을 비건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육식을 즐긴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의 경우 항상 채식을 실천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채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수락에서 먹거리는 대체로 비건을 지향하는 채식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점심 식사로 각자 1가지씩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데, 이때 종종 멸치나 젓갈이 들어간 1, 2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건으로 가져온다. 매니저들이 준비하는 매회 모임의 간식도 모두 비건이거나 비건 선택지를 포함한다. 물론 자신을 비건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비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비건 구성원이 먹지 않는 해산물, 우유, 버터, 달걀 등이 포함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비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나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는데, 다른 구성원들이 육식에 대한 선호나 채식에 대한 비판, 편견 혹은 무지를 드러내지는 않으며 수락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비건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원들의 대안적 소비 실천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이 자본주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활양식 전반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구성원들은 기후 위기로 이어진 자본주의적 소비와 생활양식을 비판하는데, 예를 들어 구성원 수선화와 박하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물, 휴지 등의 자원 사용과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다닐 땐가 야생동물 공부하면서인가, 되게 그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졌어요. 무섭고. 겁이 되게 많거든요. 기후 위기가 저한텐 되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집에서도 ○○가 물을 너무 많이 쓰거나 이런 더운 날 뜨거운 물을 쓰고 있거나 휴지를 많이 쓰거나 이런 거에 제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기후 위기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 같고 너무 무섭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제 세대까지는 그럭저럭 살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 하니까 무섭고. 툰베리가 얘기할 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32] 격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망쳐놓을 수 있냐 우리가 살 세상을. 그게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수선화)

> 그때 (환경 분야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정말 우울증 오는 친구들 있다 그러잖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 같아. 쓰레기 아무렇게나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인간들이 막 싫고 약간 혐오감 들고.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바다 오염되는 거 해양 쓰레기들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진짜. (박하)

구성원들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소비와 생활양식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실천 이상의 변화를 추구한다. 대안적 소비뿐 아니라 소비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가령 일회용품과 같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식기나 물통, 용기 등을 가지고 다닌다.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음식물 쓰

32)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1인 시위를 통해 청소년 기후 행동을 이끌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구성원 수선화는 툰베리가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레기를 최소화하는 요리법을 연구하기도 한다. 한 구성원은 불가피하게 사용한 비닐들을 모아 실처럼 꼬아서 뜨개질에 사용하기도 했다. 아래에서 구성원 바람은 퇴사 후 덴마크에 다녀오고 나서 오랫동안 탔던 차를 팔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게 된 변화를 설명한다. 그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사회의 변화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신의 탄소발자국[33]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를 팔았다.

>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서 수락 텃밭까지) 편도 2시간 정도. 저는 한 20년 가까이 자가 운전한 사람이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덴마크 갔다가 와서 차를 팔았는데, 물론 내가 백수고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차를 하나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이유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만 가자,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1번이 차를, 내가 탄소발자국을 최고로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팔았고 그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얻어 타는 거. 택시도 거의 안 타요. 그 이후로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덴마크 갔다 와서 제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이죠. 왜 어렵냐, 엄청 운전 좋아하고 … 이동권이 보장되었을 때 많은 걸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젠 그건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 아쉬움도 있어요. (바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생활양식 전반의 변화는 상품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립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아래에서 구성원 들깨는 자본주의적 노동이 지배적인 노동 형태가 되면서 자급·자립적 생활을 위한 지혜와 기술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수락 구성원들은 화폐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자본주의적 노동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할 방법이라 여긴다.

---

33)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요즘 세상은 돈 버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 같아요. 예전,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 기술 이런 게 사라져 버린 게 나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돈을 덜 벌어도 되는데. 악순환되는 거 같아. 돈 벌다가 건강을 해치니까. (들깨)

특히 구성원들은 농사가 자급적 생활양식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농사에 관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구성원 수선화, 옥수수의 경험을 살펴보자. 구성원 수선화와 옥수수는 각각 30대, 20대로, 과거 대학에서 전공하던 분야를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접했다. 이때 농사가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라는 점에서 매력과 필요성을 느꼈다.

구성원 수선화의 경우, 야생동물에 관심을 두고 석사과정에 진학했었으나 자신이 “좋아하던 것이 일이 되니 힘들었다”라고 말하며, 이후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별로가 되어버린 상황이 그래서. 못하겠다, 뭘 하지, 생각하다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외국에 한번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구글을 또 해가지고 봉사활동 자원봉사 찾았더니 캠프힐(Camp Hill)이 나오는 거예요. 캠프힐이라는 게 장애인 공동체라고 유럽에 많고 남아공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 메일을 보내서 자리 있냐, 갈 수 있냐 했더니 오라고 그러기에 갔죠. … 거기도 이만한 면적에 집이 여러 채 있고 집마다 장애인 분들이랑 봉사자들 두세 명이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목장도 있었거든요. 목장에서 치즈나 우유도 만들고 사는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제가 텃밭에서 일했어요. 그때 좋아서 가지고 1년 있다가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으로 귀농을 했어요. 귀농했는데 어쨌든 마음만 있고 지식은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찾아본 게 그래도 월마다 월급은 받아야겠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2년 일하고. (수선화)

장애인 자립 공동체 내의 텃밭에서 일했던 구성원 수선화는 그 경험을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농사를 짓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귀농도 했으나, 당시 일했던 사회적 기업에서는 관행농업에 기초한 농사를 지었으며 퍼머컬처와 같은 대안적 농업을 잘 알지는 못했다. 그는 농촌 생활을 하다가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언젠가 다시 귀농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도 계속 농사를 짓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인 관계였던 수락의 다른 구성원의 소개로 퍼머컬처와 수락을 알게 되었는데, 2020년에는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서 2021년부터 수락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성원 수선화는 수락을 통해 퍼머컬처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전부터 바랐던 자급자족하는 삶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에게 퍼머컬처는 단순히 농사 행위를 통한 먹거리 충족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적게 벌고 적게 쓰”며 일부라도 “자급자족”하는 삶을 지향해왔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방법은 “농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수락에 오가는데, 다른 수락 구성원들도 이에 동감하며 퍼머컬처를 실천한다.

> 기후 위기의 대책은 진짜 이렇게 살아야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못 하더라도 최대한 하면서 돈 안 쓰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최대한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 거대한 숲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씩 밭을 여기저기 만드는 게 영향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급자족이 하고 싶어요. 돈 벌려고 일하는 것도 좀 힘들고. … 돈을 안 벌려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던 거 같아요. 사실 되게 게으른 편이라서. 덜 벌고 덜 쓰고 살고 싶어요. 최소한 해소를 안에서 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되니까 먹을 거를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하면 기후위기도 도움도 되고. 이렇게 흘러갔던 거 같아요. 전 사실 뉴스도 잘 못 보거든요. 기후위기 뉴스 무서워가지고. 빙하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 이게 답이야 이러면서 (밭에 와

요). 농사밖에 없어! (수선화)

구성원 옥수수의 경우, 대학 시절 진로 고민을 하던 중 농사가 “먹고 살기”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농사를 통해 직접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를 비판하며 등장한 제로웨이스트, 채식, 생활협동조합 이용 등의 소비자 운동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구성원 옥수수는 이러한 실천이 대부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농사는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장 효능감이 있다. 구성원 옥수수의 설명처럼, 수락 구성원들에게 농사는 자본주의적 소비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직접 생산자가 되는 실천이기도 하다.

> 내가 연구실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는데 연구가 너무 따분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 난 이제 ○○학이 아닌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환학생을 가서 그냥 놀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진로 고민하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요리를 맨날 해먹고 있었거든.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나 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 그때 채식도 접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어서 많이 찾아보다가 농사 쪽으로 알아보게 됐던 것 같아. 그땐 동물권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이슈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나한테 효능감이 있었던 게 농사로 접근하는 게 가장. 딴 거는 별로 효능감이 안 드니까. 환경단체들 올라오는 소식들도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있잖아. 제로웨이스트 이런 것도 관심 있고 채식도 관심 있고 그런데, 둘 다 소비하지 않는 게 주요한 거니까 되게 무기력한 게 있는데 농사는 그래도 만들어내는 느낌이라 그나마 제일 나았어. (옥수수)

대안적 생활양식을 모색하며 농사를 짓게 된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 및 근

대적 이원론을 비판하며 대안적 노동 개념을 제안하고, 퍼머컬처는 산업적 농업을 비판하며 대안적 농업 및 생활양식을 제안한다. 수락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과 생산에 비판적 인식을 보이며 대안을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과 퍼머컬처의 자본주의 및 산업적 농업에 대한 비판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노동과 여가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며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고, 자연을 자원화하여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 퍼머컬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의 연장선에서 산업적 농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적 농법과 생활양식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들이 수락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판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수락의 실천은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업 및 농촌과 대비된다. 구성원들은 도시민들이 농사짓는 삶을 위해 흔히 택하는 귀농·귀촌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 농사를 짓고자 모였는데, 이러한 실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다. 관행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들의 수락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아래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관행농업 비판과 농촌 이주의 낭만화 경계

이 절에서는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도시에서의 자급적 농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이들의 실천은 관행농업 및 산업적 농업 체제를 구성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한편으로는 소비주의적인 도시에서의 생활양식을 벗어나 농사짓는 삶을 위해 대안적 공간으로서 농촌으로 이주를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거주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이상적인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며, 대신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대안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려 시도한다.

1) 자급적 농사: 산업적 관행농업 극복의 시도

구성원들은 국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농업의 방식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자본주의 산업으로서의 농업 구조를 비판한다. 구성

원들이 지닌 관행농업에 대한 비판의식은 퍼머컬처가 고안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들은 농촌에서 대안적 농업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관행농업에 기초한 농산업 체제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부터 농사를 짓고자 수락에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농사법이다. 이와 달리, 국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이윤을 주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화한 관행농업이다. 구성원들은 농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산업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 역시 다른 자본주의적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도록 산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생태적 농사 방식이 관행이 되었다. 이러한 관행농업은 균일하고 단일한 상품으로 먹거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비닐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귀농·귀촌을 해보았거나 고려했던 구성원들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농업을 언급하며, 귀농·귀촌이 곧 “생태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퍼머컬처를 접하고 실천하기 이전부터 생태적인 삶과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도시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등 농사짓는 삶을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행농업의 지속 불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구성원 옥수수는 농촌으로의 이주를 생각했던 시기에 “생태농업”으로 분류되는 농가들을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그는 관행농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위 생태농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농사 방식은 “생태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 ○○귀농학교라고. 거기서는 농사를 알려주진 않아. 실습처럼 귀농을 많이 하는 지역에 가. 농가 체험을 하는 거지. 농활처럼 하루 일하고 오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 생태농업이긴 한데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자연농부터 거의 관행농에 가까운 유기농업까지. 관행농업 농가를 가본 적은 없는데, 거의 비닐 다 치고 비닐하우스 다 하고. 유기농 자재 있잖아, 살충제 중에서도 유기농 인증받은 거 쓰는 거까지 있어. 다양하군, 이러면서 생태적이지 않은데? 라

> 는 생각을 했어. 이 중에 뭘 선택해야 하지? 시골에 가면 더 많이 쓰레기를 만들고 석유를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민했었어. 과연 시골에 가도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옥수수)

구성원 옥수수는 농촌 지역에서 관행농업이 아닌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비닐, 살충제를 사용하는 등 “관행농에 가까운”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양상은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 즉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체제에 포섭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허장 2007). 관행농업을 비판하며 대안적 농사 방식을 도입했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 농산물은 여전히 균일하고 단일한 상품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이지 않은 농사 방식을 취하게 되며, 형식적인 절차만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저독성인 농약, 비료 등이 그대로 사용된다.

퍼머컬처나 유기농업, 자연농업과 같은 대안적·생태적 농업이 기존의 관행농업을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농민의 생존과 생활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체제 속에서 얻는 수익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처럼 관행농업의 방식과 구조가 자본주의적 노동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특히 귀농·귀촌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관행농업을 택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체감하였다. 구성원 수선화와 우엉의 경험을 살펴보자.

구성원 수선화는 남아공에 있는 장애인 생활공동체 캠프힐(Camp Hill)에서 텃밭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것을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 귀농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당시 농사를 지어 가공해 판매하는 농촌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 일했는데,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다양한 작물보다는 단일한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유기농업을 원칙으로 했지만, 관행농업을 해온 동네 어르신들은 “몰래몰래 화학비료”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실제로도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데, 구성원 수선화가 일했던 사회적 기업도 기계를 사용

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 폐업하였다.

> 사회적 기업이 5년까지는 월급을 줘요, 직원들 월급을. 처음에는 80퍼센트 줬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수익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데, 거기도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퍼머컬처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유기농을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도, 부녀회에서 일하셨던 분도 직원으로 같이 일하셨는데 그 어르신들은 약간 관행농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몰래몰래 화학비료 뿌리고 그렇게 했고. 다양하게 심지는 못했고. 그냥 단작 위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로 했고. 농사만 지은 건 아니고 가공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김치나 만두도 많이 빚었고. … 만두를 밤 10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수작업으로 하려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거기는 제가 나오고 나서 망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사실. (수선화)

구성원 수선화의 경험을 통해, 산업적 농업이 관행이 된 농업 생산 체제 속에서 퍼머컬처나 유기농업과 같은 생태적인 농사 방식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행농업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막대하지만, 관행농업을 따르는 것이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관행농업의 환경적 유해성이나 대안적 농업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농업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성원 우엉은 농민이 “제일 첫 번째 피해자”라고 말하며, 관행농업의 문제를 농민의 탓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주장하고 있다.

어린 시절 가족과 귀농했던 구성원 우엉은 관행농업으로 농사짓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농민들이 관행농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청년 공동체, 대안학교 등에서 자연농업과 퍼머컬처를 접하고 실천해왔다. 그러나 관행농업으로 농사짓는 부모님에게는 쉽게 농사 방식을 바꾸라 말하기 힘들었다. 그는 농부가 가장 먼저 농약의 유해성을 체감하지만, 특정 모양과 크기, 무게, 생산량 등 시장의 유통 기준에 맞는 상품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관행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그들의 가치와 신념이 있는 건데. 나의 가치와 신념은 모두 함께 (퍼머컬처와 같은 농사 방식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농사짓는 분들한텐 농약 치지 마세요, 풀 이렇게 하셔야죠, 말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더 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 농약 치지 마, 경운기 이제 안 해도 될 거 같아, 비닐하우스 저 쓰레기 다 어떻게 할 거야, 불태우지 마,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들도 다 알긴 알거든요. 왜냐면 농약을 치는 관행농의 1차, 제일 피해받는 사람은 사실은 농사꾼이거든요.** 농약을 칠 때 기계로 한 번에 착 치면 사람이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호스를 들고 다니면서 농약을 쳐요. 그러면 눈이며 입이며 코며 얼굴, 호흡기로 농약이 다 들어가거든요. 피부로도 그렇고. 몇천 평 되는 땅을 다 농약을 치다 보니까,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정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사람들 아니고서야,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 걸어다니면서, 무서운 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약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답답하니까 마스크도 벗고 안경도 안 써요. 그러면 눈이 엄마가 뻘개지거든요, 약을 치면. 사실 제일 첫 번째 피해자는 본인이라서 농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꽃이 제대로 안 자라고 제대로 품목이 안 되니까, 팔 수 없으니까 치는 거지. 돈은 벌어야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른 농약을 스스로 만들어서 다른 걸 해주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책임질지. 그분들도 다 알아요. 쓰레기 문제나 약 문제나. (우엉)

구성원 우엉의 주장처럼, 수락 구성원들은 농민들에게 단일 작물 중심의 관행농업 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기존 관행농업의 생산방식 전반이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업적 농업 체제가 변화해야 하며, 나아가 농업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사회 체제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구성원 바람은 현재의 산업 자본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이 대규

모의 관행농업이 아닌 소규모의 퍼머컬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덴마크 국제 시민 학교에서 처음 퍼머컬처를 접했을 당시, 관행농업과 달리 퍼머컬처는 소규모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인구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 현재의 모습 있잖아요, 산업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 산업과 농업의 시각으로 보면 퍼머컬처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퍼머컬처 얘기 들었을 때는 뭐,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그게 유의미하려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행하기 전에 그래도 그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농사만 농업만 소농으로 퍼머컬처 방식으로 간다고 전제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바뀌려면 사회시스템 전체가, 산업 시스템이나 식량 시스템이나 그 둘이 연결되는 시스템이나 에너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농업은 소농인 거고 퍼머컬처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현재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 농업만 퍼머컬처로 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거지. 근데 한국에 와서 답을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구나. (바람)

구성원 바람은 한국에 돌아와 여러 다큐멘터리나 영화,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퍼머컬처에 기반한 농사로도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꼭 농사를 농민들만 지을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도 어느 정도의 자급농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규모의 소농을 통해 산업적 관행농업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성원 바람과 마찬가지로, 수락 구성원들은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집중된 도시로 장거리 유통하는 것을 비판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민이 직접 식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퍼머컬처와 같은 대안적 농사가 기존의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

업에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자연농업, 유기농업 등 대안적 농사를 시도하는 농민들의 생산물을 소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성원들은 관행농업을 비판하는 데에서 나아가,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는 다른 사회적 영역들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그 변화의 시작점, 또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여긴다.

구성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락에 참여하며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데에는 도시에서 자급적 농사의 비중을 높이려는 동기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이 도시민으로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에는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다. 이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임금노동 기반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비판과 연결된다. 미즈는 삶의 기본적 필요를 상품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을 통해 살림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수락 구성원들이 자급적인 농사를 실천하는 배경에 해당한다.

2) 대안적 삶의 공간 모색과 도시에서의 대안 추구

수락 구성원들은 산업적 관행농업의 대안을 주장하며 자급적 농사를 실천한다. 이들이 농사짓는 삶을 바란다는 점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23명 중 10명의 구성원은 농촌에서 생활해보았거나 이를 고려한 적이 있다. 구성원 3명은 이미 농촌 생활 경험이 있으며, 또 다른 3명은 장기적으로 도시를 떠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 2명은 현재는 이주할 생각이 없으나 농촌 생활을 고려하며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 또한, 2명은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려는 생각은 없더라도 도시를 떠나 농촌 지역에서 '1년살이'를 경험할 생각이 있다.

이들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통해 대안적 삶의 공간을 희망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의 대안을 반드시 농촌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외의 구성원들도 도시적 생활양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만, 도시가 아닌 다른 이상적 삶의 공간이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현재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즉 구성원들에게는 도시

나 농촌이라는 공간보다는 어떤 생활양식과 삶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들이 농사짓는 삶을 추구하기에, 농사지을 기회가 더 많고 텃밭이 집과 가까울 가능성이 큰 농촌은 매력적인 이주 공간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농사는 어디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지을 수는 있다고 인식하며, 반드시 농촌으로 가야만 이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수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기도 했는데,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이를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성원 옥수수는 이전에는 “무조건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여기며 “시골 가서 집 짓고 살자”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귀농학교 프로그램에서 귀농 농가들을 방문해보면서, “시골에 가면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 대신 도시든 농촌이든 “농사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나는 이제 서울이냐, 지역이냐는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처음 귀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서울에 살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서울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디가 되었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된다. 어느 정도 농사지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하고. 지금은 의정부가 있으니까 너무 서울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다만 그냥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서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지역에 살았을 때도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또이또이지. (옥수수)

구성원 옥수수처럼 “서울에 못 살겠다”고 생각해온 대다수의 수락 구성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 이들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농촌에서 가능하다거나, 도시에는 멀거나 없는‘자연’이 농촌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농촌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구성원들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대안이 농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농촌으로의 이주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여러 문화적 특징을 지닌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 대안적 농사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농촌 커뮤니티를 찾고 또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도시에서 누리기 어려운 “자연에 가까운” 삶의 공간을 추구하며 농사짓는 삶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했던 구성원들은, 관행농업 외에도 농촌 생활을 생태적, 대안적 삶이라 이상화할 수 없는 기존 농촌의 문화적 특징들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여성적 태도나 외지인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 임대한 토지나 주택 소유자의 텃세, 1인 혹은 청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일반화, 농사 외의 일자리를 구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나 연령대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구성원 우엉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농촌 마을에서 경험했던 대상화와 텃세를 설명한다. 구성원 수선화 역시 이주했던 농촌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한다.

> ○○○(청년 공동체)이 시골이잖아요. 마을버스 종점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세 대밖에 안 다녔는데 마을버스 타면 기사 아저씨들이 맨날 물어봐요. 너 어디 누구 만나보지 않을래, 아우 참 참해 보이네, 그런 얘기를 매번 버스 탈 때마다 들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마을 잔치 가면 맨날 듣고. 텃세라기보다는, 텃세지, 텃세도 있는데 우리는 좀 모여서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그분들과 깊이 연결되진 않았거든요. 텃세는 오히려 땅 있는 사람, ○○ 농민회. 그런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되게 관심이 많죠. 대상화된달까, 관찰의 대상. 대체 저기서 뭘 하는 애들인가, 위험한 애들은 아닌가. 마을에 해 끼치러 온 건 아닌가. 그렇다고 좋아 보이면 일이라도 돕게 쟤네들 좀 끌고 와서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얘긴 하나도 안 물어보고. 관찰만 해. (우엉)

> 제가 ○○에 있을 때 원주민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약간 타 지역

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텃세는 아닌데 그닥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고 그런 건 없으시더라고요. 집을 그때도 구해야 됐었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한 2년을 캠핑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밥, 부엌도 없어가지고 버너 하나에 부루스타에. 보통 그 지역에 동네 이장님이나, 알음알음해서 얻고 그러는데 어떤 집을 보러 갔는데 월세가 칠십이라는 거에요. 내가 받는 월급이 그때 팔십이었나.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수선화)

구성원들은 이러한 기존 농촌의 한계점을 의식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농촌과는 다른 새로운 농촌 커뮤니티로의 이주를 희망한다. 이들은 농촌에서 경험하는 텃세, 대상화, 편견을 이유로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꺼리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농촌 생활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도 현재 도시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지만, 모두 언젠가 다시 농촌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바라는 대안적인 농촌 커뮤니티는 퍼머컬처를 실천하면서 개인과 마을의 자급을 추구할 수 있으며, 연령대나 성별, 출신지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사지을 토지와 관련해, 구성원들은 개인 소유자에게 땅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공유지로서 텃밭을 가꾸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구성원 해바라기는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관점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마을 차원에서 공유지를 소유하여 공동 농사와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저는 (농사지을 땅을) 빌려 써도 되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땅이, 일단 저는 땅은 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어서. 근데 지금 시대에는 땅을 사지 않으면 뭔갈 할 수조차 없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한 평 한 평씩 땅을 사야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삶은 작은 집이 있고 그 앞에 제가 가꿀 수 있는 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였었거든요. 근데 요즘 뭔가 들어오는 공격들이랑 자꾸 개발되는 것들을 보면서,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늘려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

기서 좀 일을 하고 아이들도 거기를 교실 삼아 배우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네, 그럼 나 여기서 돈 더 벌어야되나, 이 굴레에 빠지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 생각부터, 예전부터 어이가 없었는데. 이걸 바꾸긴 너무, 바꿔야 하지만, 주변에 막 토지 공개념 그런 걸 배우고 알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정책을 바꾸려는 사람은 정책을 열심히 바꾸고 농사지을 사람은 (짓고). 그냥 꿋꿋하게 해야겠다, 뭐라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해바라기)

구성원 들깨도 “공유 부엌”, “마을 사람들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먹거리나 건축 등을 자립하는 마을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Ⅱ장에서 설명한 전환 마을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원 들깨는 전환 마을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토트네스(Totnes)를 언급하며 국내에서 이와 같은 마을을 찾아 이주하고 싶다고 말한다.

집을 지을 때 한 공간은 공유 부엌처럼 오픈된, 카페처럼 예쁘게 부엌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같이 사람들과 풀 학교 같은 수업도 하고 커피도 팔고 그런 공간으로 쓰면 참 좋겠다는 꿈이 있죠. 마을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면 좋겠어요. … 저는 개인의 자립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마을의 자립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마을에도 이것저것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충청도에 ○○처럼 개개인들의 개성 있는 공간들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저처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곳. 토트네스 이야기를 듣고 그런 데서 살고 싶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토트네스 같은 곳을 찾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못 찾았고 △△쪽에 ○○○공동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자연농 방식의 농사 배우고 실천하고 있고 집도 직접 자연에서 오는 돌이나 흙 같은 걸로 직접 짓고 사는 곳이 있어서. (들깨)

구성원 해바라기와 들깨처럼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구성원들은 수락에

참여하면서 농사 및 수확물의 사용법을 익히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향후 농촌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교육이나 요리 등 농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계획하며 실천하고 있다. 구성원 바람은 향후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구성원 중 한 명으로, 귀농학교에 다니며 이주를 알아보기도 했으나 먼저 농사 지식과 경험, 농사 외의 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 ○○귀농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국의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귀농·귀촌하고 싶은 여성 모아서, 1인 여성 모아서 다녔는데 그때 준비가 덜 됐던 거죠. 보니까 땅을 살 순 있겠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농사를 못 짓겠는 거야. 왜냐면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어. 귀농은 안 되겠고 귀촌을 할 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덜 채워진 거예요. 비전만 있고 이상만 있다 뿐이지 실력은 없는 거지 아직. 조금 더 여기 내 생활의 근거지에서 배우고 준비해서 가야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바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락에는 향후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구성원과 특별히 이주를 고려하지는 않는 구성원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귀농에 대한 이들의 상이한 태도가 농촌살이에 대해 선명하게 다른 입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실 수락의 구성원들은 도시의 대안적 공간으로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한편, 도시에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려 한다. 농촌으로 이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들은 도시에서의 소비 위주 생활양식에 비판적이며, 따라서 농촌 생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이를 계획하는 구성원들이 도시에서 머무르면서도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수락 구성원들이 현재 수락에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행위를 관행농업의 대안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그리고 문화와 맺는 대안적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으로 이주를 고려하든 아니든 수락 구성원들은 농촌과 도시에 모두 대안적 커뮤니티가 존재하

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구성원들은 기존의 관행농업과 농촌의 관습을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커뮤니티를 농촌에서 찾고자 한다. 동시에 이들이 현재 거주하는 도시 내에서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수락에 참여하며, 도시에서의 대안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수락의 활동은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경제를 위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미즈와 벤홀트-톰젠은 대안적 노동 개념은 경제적으로 작고,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탈중심화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도시민의 상당수가 도시의 대안적 공간으로 농촌을 주목하기도 하지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 실천만으로 도시와 농촌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락이 도시 내에서 대안적 경제의 영역을 만들어내려는 사례라는 사실은, 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관계의 변화 방식을 찾는 데 기여한다. 이는 수락의 구성원들이 농촌에 의존해온 먹거리 생산을 도시 내에서도 자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퍼머컬처가 관행농업과 달리 대안적 농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구성원들이 수락에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대안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활동 중인 구성원들이 수락에 참여한 배경에는 자본주의적 노동 방식과 과정을 비판하며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해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구성원들은 수락에서 단순히 대안적 농사만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안적 농사 과정과 노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며,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Ⅳ. 수락의 대안적 농사와 노동

이 장에서는 수락에서 실천하는 퍼머컬처 농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어떠한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 개념에 기반한 농사는 기존의 관행화된 산업적 농업의 방식과 다르다. 관행농업에서는 매년 흙을 가는 경운(耕耘), 화학비료와 농약 살포, 비닐을 이용한 멀칭(mulching), 일년생 작물의 대량 재배가 일반적이지만, 퍼머컬처는 무경운, 유기물을 이용한 퇴비 생산 및 멀칭, 다년생 작물 중심의 다양한 작물 식재, 자생적인 풀 활용을 중시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농사법이 '흙을 살린다'고 주장하며,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이라 믿는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대안적 농사 실천은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과 여가, 생산과 놀이, 고됨과 즐거움 등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퍼머컬처 실천 행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섞여 있다. 임금을 받지 않는 비-사회적 노동이나 자급적 농사를 노동이 아닌 것,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적 관점과 달리, 구성원들은 수락의 활동을 통해 임금노동에서 경험한 회의감이나 불만족을 해소하며 자율성과 창조성을 추구한다. 단순히 자급적 생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반영하는 축제와 놀이를 통해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연구자는 위계적 조직 문화 및 구속감을 지양하면서 대안적인 관계와 문화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노동의 사례를 찾고자 한다.

1. 대안적 농사

이 절에서는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의 구체적인 농사법을

살펴본다. 특히 퍼머컬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사법이라는 구성원들의 주장에 비추어 산업적 관행농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퍼머컬처를 설명할 때 구성원들이 가장 강조하곤 하는 흙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Net-zero) 논의의 맥락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퍼머컬처와 관행농업의 차이

수락에서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흙에 대한 입장에서 기존의 산업적 관행농업과 선명하게 달라진다. 수락 구성원들은 흙을 자신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관행농업은 흙을 작물의 생산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흙은 병충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대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모종을 낼 때부터 해충과 잡초를 방지하기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수락 구성원들은 관행농업에서 경운과 화학비료 투입으로 인해 흙의 자연적 양분이나 미생물이 사라지며, 결국 매년 비료 및 농약 투입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흙은 다양한 생물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비료와 농약이 작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에 그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관행농업 방식으로 인해 사라진 흙 속의 양분과 미생물이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흙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흙은 관행농업에서처럼 각종 화학비료나 약품을 투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흙으로 나타난다.

수락 구성원들은 흙 속의 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퍼머컬처 농사의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틀어 '흙을 살린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화학비료나 농약이 아닌 각종 자가 퇴비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를 통해 흙이 살아나며 작물의 생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퇴비와 비료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 오줌, 쌀뜨물, 쌀밥 등이다. 구성원 대부분은 평소 밭에 오갈 때마다 퇴비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가져온다. 구덩이를 파거나 버려진 화분을 가져와 퇴비함을 만들기도 하는데, 화분은 흙을 파서 절반쯤 파묻은 후 그 속에 음식물 쓰레기와 낙

엽, 짚, 신문지 등을 번갈아 쌓아두고 뚜껑을 덮는다. 이러한 퇴비함에는 지렁이가 찾아와 음식물을 분해한다. 이외에 쌀뜨물이나 오줌을 발효하여 퇴비함에 뿌려주거나, 물에 희석하여 양분이 필요한 작물에 뿌리기도 한다. 남은 쌀밥을 나무 밑이나 흙 속에 며칠 묻어둔 후, 밥에 생성된 얇은 실 모양의 균사를 이용해 액체 비료를 만들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흙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소화하고 작물을 키워내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구성원들이 흙을 살린다고 말하는 것은 관행농업과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된, 즉 생명력을 잃은 흙을 “되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락 이외에 다른 퍼머컬처 텃밭에서도 농사를 짓는 구성원 바람은, 자신은 아직 그 밭에서 난 작물을 먹지 않고 흙에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 되게 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흙이 다 그걸 소화시켜주잖아요. 똥이든 쓰레기든 소화시켜주고 키워내고 하는 거에 되게 신기하기도 하다.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더 비옥해지고. (우엉)

> 저는 아직 거기서 나는 작물은 안 먹거든요. 그냥 다시 거기에 돌려주고 와요. 그 흙은 아직 우리가 시료 검사도 안 했고 거기 얼마나 중금속이 있는지 검사도 안 했고 그 흙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그 흙을 되살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선 안 먹거든요. 근데 딴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바람)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이처럼 흙을 되살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퍼머컬처 농사법의 세세한 부분들은 관행농업의 농사법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이는 다년생 작물, 동반작물(companion plants), 멀칭, 그리고 자생적 풀 활용의 4가지 부문에서 잘 드러난다.

첫 번째, 다년생 작물은 퍼머컬처 농사를 통한 변화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다년생 작물은 최소 3년에서 수백 년까지 사는 식물로, 해를 거듭하며 더욱 크고 풍성해진다. 뿌리를 깊게 내려 땅속의

수분과 미네랄을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 일년생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의 물이나 퇴비 투입이 덜 필요하다. 뿌리가 광범위하게 발달하기에 토양을 개선하며, 일년생에 비해 봄에는 더 빨리 성장하며 늦가을까지 지속되어 수확 기간을 늘려준다. 또한, 매년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노동을 줄일 수 있다(McCarthy 2019: 22).

구성원들은 개인 텃밭이 얼마나 다년생 작물로 채워져 있는지 검토하곤 한다. 2021년 당시 2년 차가 된 다년생 작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관행농업에서는 높은 수확량과 상품화를 위해 단일한 일년생 작물들을 대규모로 경작하며, 매해 땅을 갈아엎는 경운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일년생 작물이 씨앗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 씨를 받기보다는 매년 씨앗이나 모종을 구매한다. 수락 구성원들은 일년생 작물 중심의 관행농업이 씨앗을 자립하지 못하며, 경운은 흙 속의 탄소를 다시 배출하고 양분을 일시적으로 소모하게 만들어 비료 투입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매년 씨앗이나 모종을 새로 심는 관행농업과 달리, 구성원들은 일년생 작물을 다년생처럼 키우기도 한다. 일년생 작물을 한 번에 수확하거나 뿌리를 뽑지 않고 일부 남겨두어, 씨앗이 맺힐 때까지 기다린다. 직접 씨앗을 받아 모아두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심을 수도 있으며, 씨앗이 흙에 떨어져 다음 해에 다시 발아할 수 있도록 놔두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씨앗이 맺힌 부분들을 잘라내어 그 작물이 자라기를 원하는 곳에 올려두며 텃밭의 작물들을 재배치한다.

두 번째로 동반작물은 식물의 특성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물을 조합하는 방법이다. 동반작물을 활용한 디자인은 작물과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들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행할 수 있는 1가지 이상의 기능들을 고려한다. 특정 작물을 잘 먹어 치우는 곤충을 유인하거나, 그 곤충이 싫어하는 향을 지닌 꽃이나 약초를 함께 심는 식이다. 가령 파슬리는 가지에 다가오는 호랑나비 애벌레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함께 심을 수 있다. 이처럼 퍼머컬처는 자연 과정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수락에서 자주 활용하는 동반작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 자매(Three sisters) 농법으로, 옥수수, 콩, 호박(또는 박과 작물)을 함께 심는다.[34]

콩의 뿌리는 다른 작물에 질소를 공급하며, 옥수수는 콩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줄기가 되고, 박과 작물의 잎은 흙 위를 덮어 토양의 습도를 조절하고 다른 풀들의 생장을 둔화시킨다(Roux-Rosier et al. 2018: 556). 이외에 수락 구성원들은 한련화, 금잔화 같은 향이 짙은 꽃을 텃밭 곳곳에 심기도 한다. 동반작물 조합에서 자주 활용하는 꽃이나 허브류는 곤충들의 접근을 방지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벌과 나비를 유인하여 수분을 돕는다. 동반작물을 활용하는 농사는 다양한 작물을 섞어 심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 작물 중심의 관행농업과 다르다. 특히 기존의 유기농업은 산업적 농업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문제시하지만, 동반작물과 같은 농사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친환경·저독성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행농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는 멀칭으로, 구성원들은 멀칭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 멀칭은 흙의 표면을 덮어두는 것으로 흙의 수분 유지, 흙 유실 방지, 풀 씨앗의 발아 제어, 병충해 방지와 같은 기능이 있다. 수락 구성원들은 흙을 파헤치지 않고 표면을 항상 덮어 공기 중으로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작물의 부산물, 지푸라기와 낙엽, 왕겨와 같은 유기물을 사용하며, 땅을 뒤덮으며 자라는 다년생 지피식물을 심기도 한다. 지피식물로는 콩과 식물이나 허브류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유실될 수 있는 흙을 보존한다. 특히 콩과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 내에서 고정해내어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통해 토양이 비옥해지며 주변 작물의 생장에 도움이 된다.

멀칭은 흙의 수분을 유지하고 풀 씨앗의 발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작물이 스스로 필요한 수분을 조절하게 되므로, 수락 구성원들은 심하게 가물 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주지 않는다. 또한, 멀칭은 풀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구성원들은 두터운 멀칭을 3년 이상 반복하면 식재한 작물 외의 풀은 거의 나지 않아 풀을 매는 데 드는 노동을 줄

34) 세 자매는 옥수수, 콩, 호박의 3가지 작물을 가리키며, 멕시코 중부에서 기원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진 고대 경작 시스템이다. 약 7,000년 전 메조아메리카에서 농업이 출현한 뒤 옥수수, 콩, 호박이 토착화되며 세 자매 농법이 등장했다고 추정되며, 멕시코에서 세 자매 농법의 증거가 다양한 시기와 지역에 걸쳐 발견되었다(Landon 2008).

일 수 있다고 말한다. 수락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20년 초에는 심어둔 작물이 없었으므로 외부에서 볏짚, 왕겨를 구매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밭에 자생하는 씨앗이 맺히지 않은 풀, 멀칭을 위해 심은 보리나 밀, 수확하고 난 작물의 부산물 등을 활용해 흙 위를 덮고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밭에서 나온 부산물만으로 흙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빽빽한 식재를 목표로 삼는다. 여름에는 밭과 그 주변에 자라나는 풀들을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어 흙을 덮는 데 사용하며, 서리가 내리고 나면 산에서 모아 온 낙엽과 밭의 모든 부산물을 정리해 겨울 동안 흙이 드러나지 않도록 멀칭하는 데 사용한다. 구성원들은 밀식과 두터운 멀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 의도한 작물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고 믿으며, 2년 차가 되는 2021년 이를 확인하고 있다.

> 멀칭을 첫 해에 내 밭은 너무 심하게 해놔서, 작물이 안 나올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 장점은 풀이 안 나와 진짜. 손을 거의 안 대고 있어요. 첫해만 풀 잡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들깨)

<그림 9> 볏짚과 작물의 부산물로 멀칭한 텃밭

퍼머컬처에서 멀칭은 경운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관행농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운은 흙을 갈아엎어 흙 속의 유기물을 빨리 부패시키며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운을 통한 유기물의 부패가 작물 성장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흙이 침식되며 유기물이 소실된다. 따라서 경운을 하지 않고 유기물을 이용해 멀칭하는 것은 흙을 살린다는 퍼머컬처의 지향점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무경운과 멀칭을 통해

흙을 보존하며, 작물 부산물이나 낙엽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성되며 '살아있는' 흙이 된다.

수락 구성원들이 작물의 부산물이나 낙엽 등 유기물로 멀칭하는 것은 흙으로부터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흙으로 돌려보내자는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행농업에서도 멀칭을 하지만, 낙엽이나 볏짚 등 유기물을 이용하는 퍼머컬처와 달리 관행농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은 비닐을 이용한다. 잡초나 병충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구성원들은 검은 비닐이 여름에는 온도를 지나치게 상승시켜 흙 속의 미생물을 죽게 하며, 비닐이 재생 불가능한 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비닐을 이용하는 멀칭은 단순히 잡초와 병충해 방지 기능을 위한 것으로, 멀칭한 유기물이 다시 분해되어 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 퍼머컬처는 자생적인 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행농업과 차이가 있다. 작물을 경작하여 생산물을 얻는 관행농업에서 텃밭과 주변의 자생적인 풀들은 잡초에 불과하며, 제초제를 이용해 풀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수락에서도 모든 풀을 활용하지는 않으며, 풀을 베거나 뽑고 반복적인 멀칭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풀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관행농업에서 풀은 농업의 대상이 아니며 상품화된 작물들에 포함되지 않지만, 퍼머컬처에서 풀은 의도적으로 심은 작물과 마찬가지로 먹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 구성원들은 관행농업에서 '잡초'로 불리는 풀을 쓸모없으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풀이 빈 땅에 뿌리를 내려 흙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차이는 퍼머컬처가 농업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디자인 체계로서 먹거리 및 생활 필수품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결합한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퍼머컬처는 관행농업과 대비되는 대안적 농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생태 체계(Sustainable social-ecological systems)에 기여하는 틀이기도 하다(Brawner 2015: 439).

따라서 수락 구성원들은 의도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풀, 꽃, 열매 등을 채집하는 것도 퍼머컬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한다. 작물 재배뿐 아니라 자생하는 풀의 이름과 효능을 익히며,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의도한 작물을 뒤덮을 만큼 자라는 풀들을 뽑고 베어내긴 하지만, 목적에 따라 어떤 풀은 뿌리째 뽑아내고, 어떤 풀은 베어내기만 하며, 어떤 풀은 먹기 위해 기른다. 먹거리로 활용하는 것 외에 샴푸,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삼덩굴은 맥주나 페스토를, 질경이나 톱풀은 연고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 풀은 비름나물 같은 거 내 텃밭 가생이에 놔두고 키워서 뜯어다가 나물 해 먹고. 요새는 까마중 따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까맣게 익으면 똥글똥글하게. 오늘도 따다가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쇠비름도 효소 만들면 좋을 거 같아서 키웠는데 잘라버리고 왔어요. 시간이 안돼가지고. 게을러서. (민들레)

구성원들은 심지어 작물 재배보다 채집이 더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며, 채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구성원들은 퍼머컬처를 통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텃밭을 만들어간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자생적인 풀을 활용하는 것은 작물 재배에 들이는 노동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퍼머컬처 농사에서 나타나는 노동에 대한 태도는 2절에서 후술할 것이다.

> 아무튼 재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땅을 적게 사용하고 주변의 것을 활용하는 거. 자연히 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최고의 목표. 주변에 너무나 먹을거리들이 풍성한데 그것들을 활용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개비름 같은 경우도 다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도 몰라서 못 먹고. 쇠비름도 날로 먹을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고. 참비름, 개비름, 쇠비름. 참비름은 시장에서 많이 팔아요. 개비름은 여기 너무 널려있는데 모르니까 돈 주고 참비름을 사서 먹는 거죠. (들깨)

아래에서는 구성원들이 앞서 설명한 퍼머컬처 농사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원들은 본인의 개인 밭을 소개하면서 퍼머컬처 원리와 농사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구성원

우엉의 경우,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구조물 활용, 다년생 작물 식재, 퇴비화를 언급하고 있다.

> 제가 지금 콩을 한 7평, 8평 정도 심었고요. 된장(을 만들) 콩이랑 검은콩을 심었고. 또 한쪽은 우엉을 작년에 처음 심어봤는데 포대에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올해도 우엉을 키우고 싶은데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서도 틀이 땅에 썩는 방식으로 이쁘게 해보고 싶어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우엉이 자랄만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우엉 씨앗이 발아를 잘 못 했어요. 때를 놓쳤거나 아니면 흙을 충분히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흙이 우엉한테 잘 안 맞았거나 그랬던 거 같아. 그리고 빠레트를 세워서 호박이 타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며 세워놨는데 호박이 어떻게 됐을지. 참외도 심어놨는데. 호박은 동그란 호박 말고 긴 청호박이라는 걸 심었고요. 빠레트 아래는 생강과 샐러리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한 쪽은 수수를 심었고요. 부추를 좀 뿌려놨고 완두콩이랑 루꼴라, 당근을 심어놨고 **중간중간 컴프리랑 톱풀이랑 이런저런 허브를 옮겨심어놨고**. 작년부터 한 밭에는 딸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한쪽 밭은 딸기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작년에 심어놓고 올해 첫 수확한 딸기가 너무너무 이뻤고요. 허브를 다년생이라고 심어놨는데 허브가 겨울을 잘 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그 친구들을 거칠게 대해서 걔네들이 좀 다친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 한련화랑 칸나(Canna) 구근도 심고 체리 세이지(Cherry sage)도 다시 심고. **다년생을 좀 더 심어보려고 하고,** 해바라기도 심어놨는데. **올해는 흙을 좀 살리는 데 집중해야지 해서 화분도 갖다놓고 짚도 덮어줘야지 생각했는데**. 뭘 많이 안 심은 것 같거든요. 좀 더 흙을 살려야되는데 많이 못 가고 있어요. 다년생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저는 모종 사는 데 많이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밭에서 나는 허브들을 조금씩 캐와서 옮겨 심고, 산에서 씨앗 받아서 옮겨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엉)

구성원 우엉은 작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재활용했는데, 2020년에는 뿌리 작물을 수확하기 쉽도록 포대를 재활용했다가 2021년에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를 엮은 틀을 만들었다. 또한, 나무 판자인 “빠레트”를 주워 와 위로는 호박이 덩굴처럼 뻗어나가며 아래로는 그늘진 곳에 적합한 생강과 샐러리가 자랄 수 있도록 비스듬히 배치하였다. 수수, 부추, 완두콩, 루꼴라, 당근 등의 작물을 다년생 식물인 컴프리(comfrey), 톱풀, 체리 세이지(cherry sage) 등과 함께 섞어 심었다. 그는 “흙을 살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 화분도 가져다 놓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화분 퇴비함의 사례이다.

구성원 바람의 경우 자신의 밭을 다년생 작물과 일년생 작물 중심의 밭으로 구분하였다고 설명한다. 그 역시 다양한 작물을 섞어 심고 있으며, 특히 다년생 허브의 경우 무성하게 자라는 편이기에 계속 잘라내어 멀칭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두 고랑은 다년생 작물 위주의 밭이고 두 고랑은 일년생 작물 밭이에요. 그렇게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제 실력으로는. 감자, 고추 같은 일년생 작물들은 아무래도 수확할 때 흙을 파게 된단 말이죠. 흙 파게 되고 뒤집게 되고. 옆에 다년생이 있으면 그것만 파기도 그래서 고랑을 나눠야되겠다 싶었어요. 두둑을 작년부터 하던 2개는 다년생 작물로, 새로 받은 두둑은 일년생 작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는, 다년생 사이사이에 일년생 심어서 어떻게 수확할지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년생 작물은 감자, 키 작은 강낭콩, 가지, 대파, 부추, 옥수수, 바질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내년에는 두 고랑을 서로 바꿔서 할 생각이고. 다년생 허브밭 두 개에서도 허브들이 많이 채취가 될 만한데 대부분은 다시 잘라서 멀칭을 해주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몇몇 허브만 가져오고. 아직 애를 어떻게 먹어야될지 몰라서 계속 잘라만 주는 애들도 있고. (바람)

2)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사

수락에서 실천하는 퍼머컬처 농사법은 기존 관행농업의 농사법과의 차

이를 넘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저장 농법을 추구한다.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와 토양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는 토양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1/3을 흡수할 수 있으며, 탄소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수락의 구성원들은 토양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퍼머컬처가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퍼머컬처 농사법을 통해 흙 속의 미생물이 풍부해지며, 이러한 흙이 인류가 배출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퍼머컬처는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퍼머컬처 농사가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응책이 된다는 점에서, 자신을 “기후 농부”로 칭하기도 한다. 매년 이루어지는 수락의 모집 공지에도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하자는 지향성이 반영된다. “2050년을 구하는 2020년”, “1년 동안 퍼머컬처를 실천하며 스스로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되실 분”이 그 예이다. 이들에게 퍼머컬처는 단순히 생태적으로 무해한 농사 방식이 아니라, 인류문명이 배출한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한다는 이점을 지닌다. 구성원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사법으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한다는 점은 수락의 약속에서도 드러난다. 첫 번째 약속은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 배출된 탄소를 흙 속에 가둔다”, 두 번째 약속은 “나무와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산소를 생산한다”이다. 두 약속을 함께 합치면, 퍼머컬처 농사를 통해 살아난 흙은 탄소를 흡수해내며 나무와 작물들은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상호 연결된 문장을 이룬다. 구성원들은 실제로 흙 속에 탄소가 저장되는지, 저장된 탄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급박한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 위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퍼머컬처를 통해 표현하고 실천한다.

> 다년생을 키우는 게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글쎄 아직. 실제적으로 진짜 얼마나 한두 포기 심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안 하는 것

보단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들레)

이처럼 퍼머컬처를 통해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직접 확인하거나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은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퍼머컬처 농사법이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 고추작목반을 들 수 있다. 고추작목반은 2020년 수락에서 소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작목반 중 하나로, 해당 작목반의 구체적 실천 사례는 퍼머컬처가 기후변화의 속도와 위험 수준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 저감(mitigation)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물 부족, 장마 등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는 적응(adaption)의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은 긴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추 농사의 수확량이 감소했던 해였다.[35] 당시 전남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하동, 충남 금산 등 5개도 17개 시군에서 수해가 발생하면서, 단순히 긴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으로 인식되었다. 2020년뿐만 아니라 폭염, 장마, 병충해 등 매년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로 인해 관행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생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락의 고추작목반은 관행농업의 고추 생산 위기와 달리, 장마로 인한 고추의 병해를 거의 경험하지 않으며 붉은 고추를 수확하였다.

고추작목반 구성원들은 장마로 인한 병충해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높은 두둑과 동반작물을 섞어 심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성원들은 고추밭을 처음 만들 때 두둑을 약 50cm 높이로 쌓았으며,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추 모종을 심기 전 신문지를 재활용해 흙 밑에 깔았다. 고추 사이사이에는 곤충이 기피하는 꽃인 메리골드(Marigold)를 함께 심었다. 고추작목반에 참가했던 구성원들은 함께 협업해 농사를 지은 경험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배운 퍼머컬처 원리를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추작목반을 인상적으로 기억한다.

---

35) 통계청에서 2020.11.23. 발표한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고추 생산량은 60,076톤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고추 재배면적은 31,146ha로 전년 대비 1.6%, 2020년 고추 10a당 생산량은 193kg으로 전년 대비 22.2% 감소했다.

> 고추 농사가 좋았던 거 같아요. 수확물이 많아서. 애쓴 보람. 고추 농사 작년에 망했다고 다들, 다른 데는. 둔덕이 높은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그게 (차이인 거 같다). 다 물에 잠기고 이러는데 둔덕이 높은 것의 효과를 확실히 알았어. 탄저병도 우리 늦게 왔잖아요, 나중에. (민들레)

> 작년에 고추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 섞어짓기, 간격을 애들에게 주고, 두둑도 높이 올려서 퍼머컬처 원리 사용해서 농사지었을 때 피해 매우 없이. 단일재배가 아닌 것이 효과가 있구나.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효과도 내는구나 증명된 것 같아. (토마토)

실제로, 퍼머컬처와 같이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며 기후 위기에 덜 취약한 농사법은 국내외 탄소 중립을 위한 논의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방향은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 조직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수치화한 탄소 배출량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주의 산업에 대한 비판이나 성찰보다는 여전히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구성원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하며, 그러한 만큼 퍼머컬처를 통해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게 되기도 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진 것은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 협정이다. 이 협정에 참여한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온도로부터의 증가 폭이 1.5℃를 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제거를 종합한 순 배출량이 0에 이르는 상태인 탄소 중립이 국가별 목표가 되었는데, 이는 205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 순 배출이 0에 이르러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36]

---

36)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합의에서 예측하는 수치는 실제보다 낙관적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전망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2020년 10월 한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년 11월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을 발표하며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각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농업 부문과 관련한 기후 위기 대응책은 관행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며,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기술과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12월 발간한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서는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농축산업을 “저투입형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 환경친화농업, 생태농업을 말하는데, 이는 빅데이터 확보와 시설의 자동화·디지털화,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첨단 농기계와 로봇 개발, 신품종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농업 부문의 국가 기후 위기 대응책들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인 방식이라고 칭해질 뿐, 구성원들이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부재하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신기술과 시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대규모 외부 투입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관행농업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탄소 중립을 위한 신기술 및 시설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절감한다는 주장에도 모순이 있다. 가령 스마트팜은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쌀, 밀, 보리 등 식량 작물 재배에 부적합하다. 디지털화된 시설은 탄소 배출 수치를 산정하는 데 편리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그 외의 환경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금창영 2022: 17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락 구성원들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기후 위기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적 사실과 대책을 다루는 평가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2013년 IPCC에서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는 1.5℃ 상승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2021년 발표한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전망했다. IPCC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이미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상 상승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속도와 계획이 불충분하다. 또한, 2050년 1.5℃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한은 2030년으로 그 이후에는 1.5℃ 상승을 유지할 경로가 없다.

확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농업의 산업화와 더불어 보편화된 농사 방식인 관행농업을 비판하며 퍼머컬처가 대안적 농사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산업의 발전이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윤 추구보다는 자급을 우선시하며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는 퍼머컬처 농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실천이라 여긴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도 산업적 농업을 지속하는 방향이 아니라 퍼머컬처와 같은 농사법으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여긴다.

2. 농사를 통한 대안적 노동 모색

구성원들이 퍼머컬처를 실천하는 데에는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삶 속에서 자급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생활 양식을 추구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즉 구성원들은 기존에 수행해온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과 다른 형태의 노동을 수락에서 실천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퍼머컬처 실천이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의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는 대안적 노동을 제시한다고 간주한다. 노동과 여가, 생산과 놀이, 고됨과 즐거움 등 자본주의적 노동의 관점에서는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요소들은, 퍼머컬처 실천이 내포하는 노동에서는 명확한 구분 없이 섞여 있게 된다.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농사는 단순히 고되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즐거움, 아름다움에 대한 향유, 정치적 목소리를 포함한다. 이들의 일상적 노동은 땀 흘리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텃밭 경관을 즐기며 서로의 감상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포함하며, 비일상적 행사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장하며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의 의미와 만족감과도 연결되는데, 구성원들은 수락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경험한 회의감이나 정신적 빈곤을 극복하는 측면이 있다.

구성원들이 자본주의적 노동관(觀)과 대비되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퍼머컬처 실천에 참여하기 전부터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퇴사를

선택하는 등 다른 생활양식과 대안적 노동을 모색해 온 삶의 과정들이 존재한다. 한편, 이전에 대안적 노동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었던 구성원들의 경우, 수락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퍼머컬처 농사가 단순히 임금노동과 대비되는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대안적 농사로서 퍼머컬처를 실천하면서 노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참여한 경로와 동기는 다르지만, 수락 구성원이 된 이후에는 이들 모두 농사를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노동 및 생활양식에서 핵심적이다. 본 절에서는 농사가 노동으로서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여기서 대안적 노동에 대한 모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를 수락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락의 정기적인 모임 일과와 더불어, 시농제(始農祭), 밭두렁 퀴어컬처축제 등 비일상적 행사를 분석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통해 실천하는 대안적 노동의 형태를 추적하며, 이를 통해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1) 모임 일과 속 놀이와 생산의 결합

구성원들은 텃밭으로 "출·퇴근"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텃밭을 "놀이터"라 말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이 텃밭을 일터이자 놀이터라 여기는 이유를 매월 2회 진행하는 공동 농사 모임 일과를 통해 살펴보자.

모임에서는 공동 텃밭 구역을 관리하며 절기별로 필요한 작업을 한다. 4, 5월 봄철의 모임을 예를 들면, 오전 10시경에 모여 매니저가 진행하는 '조율'로 모임을 시작한다. 구성원들은 번갈아 매니저를 맡는데, 매니저는 간식을 준비해오며 그날의 할 일과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안내한다. 조율을 시작하기 전 구성원들은 매니저가 준비해 온 간식을 먹으며 다른 구성원들을 기다린다. 무선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두곤 하며, 기온이 낮아 쌀쌀한 날에는 모닥불을 피워놓는다.

조율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는 간단한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고정된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거

나 텃밭에 서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거나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모임의 매니저를 맡은 구성원들은 나누고 싶은 시나 책 구절을 가져와 읽거나, 눈을 감고 짧은 명상을 하거나, 둥글게 서서 한 동작씩 스트레칭을 하는 등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조율 시간을 구성한다. 한 구성원은 자신이 소비주의적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압도감과 그와 대비되어 밭에서 느끼는 위안을 이야기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성원 토마토는 이러한 활동들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관과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 확실히 결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유토피아 이런 것들 너무 비슷해서. 누가 노래 하나 가져와서 부를 때도 난 너무 좋은 거야. 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키니까 다 하고. 누가 보면 가사도 유치하고 그럴 수 있는데 다 막 좋다~ 이러면서 부르잖아. 그럴 때는 다 천진난만하고 좋고. …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농사 아닌 다른 걸로도 연결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토마토)

<그림 10> 조율 시간

조율 후 공동 텃밭 일을 시작하는 구성원들은 12시 전까지 겨울을 나며 자라고 있는 마늘, 양파에 웃거름을 주고, 풀을 매며, 3월경 심은 감자밭도 관리한다.

12~2시경은 점심 식사 시간으로, 구성원들은 각자 한두 가지 반찬이나 요리를 가져온다. 공동밭이나 개인 밭에서 바로 채취한 풀이나 열매를 내놓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서로 레시피를 묻기도 하며, 밭에서 수확한

작물이나 채취한 풀로 요리를 해오는 구성원도 있다. 식사 후에는 제각기 시간을 보내는데, 봄나물을 뜯기도 하고, 누워 쉬거나 대화를 나누고, 개인 밭을 돌보기도 한다. 오후에는 다시 씨앗을 뿌리거나 풀을 매는 공동 작업을 진행한다. 대체로 5, 6시쯤 마무리된다. 울력 조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은 그날 사용한 식기류나 농기구 등의 뒷정리를 맡는다.

공동 및 개인 밭을 돌보는 일이 고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은 계절과 경관을 즐기는 시간을 가진다. 텃밭 곳곳에 심은 꽃들은 방충·방재 역할을 하는 동시에 텃밭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도 꽃을 감상하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단체 사진을 남긴다. 공동 밭일이 마무리되어 시간이 남으면 텃밭과 접한 산에 가서 꽃이나 열매 등을 채취하며 숲을 산책하기도 한다.

<그림 11, 12> 숲 산책과 채취

이처럼 구성원들이 텃밭에서 놀이와 생산이 구분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데에는 '향유한다'는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곡선과 만다라 모양으로 이루어진 밭과 다양한 작물의 조합은 관행농업의 경관과 달리 "아름답게" 느껴진다. 구성원들은 농사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퍼머컬처 텃밭의 심미성에 매력을 느끼고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 농사라는 걸 아름답고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구나, 농사일을 사람들은 더럽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식생을 한다던가 디자인도 한다던가. 진짜 아름답다는 게 전 좋았고. (해바라기)

밭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는. 드론으로 (밭을) 찍은 걸 보면 다들 놀라워하는 걸 보면 사실은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기도 하고. (딸기)

되게 신기한 건 그거 같애.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면서 다달이 지나면서 밭의 색깔이 막 바뀌는 게 되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올해 밭은 처음 심어봤을 땐 여기에 뭐가 나긴 나? 허허벌판에 어떡하지, 했는데 6월쯤엔 파릇파릇 풍성해지고 또 겨울이 되면 노래지고.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멧돼지가 들어오거나 고라니가 들어와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 왔다 갔네, 이러고 다시 또 멀칭하고 말뚝박고. (우엉)

공동 농사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농사 외의 활동과 텃밭 경관을 향유하는 시간들은 수락이 영적, 예술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성원 박하는 수락에서 실천하는 퍼머컬처가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이고 영적인 것도 결합한 방식”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락을 포함하는 국내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퍼머컬처의 3가지 윤리인 ‘땅을 보살피라(Earth Care), 사람을 보살피라(People Care), 공정하게 분배하라(Fair share)’에 더하여, 4번째 윤리로 ‘영혼을 보살피라(Spirit Care)’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번째 윤리는 퍼머컬처 활동가 유희정이 국내 PDC 및 퍼머컬처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수락을 포함해 전국적 퍼머컬처 실천 단위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락에서의 퍼머컬처 실천은 육체노동으로서의 농사뿐만 아니라 텃밭 공간을 향유하거나 그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적 모임에서 구성원들이 보내는 시간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동 또는 여가 어느 한쪽으로 구분할 수 없다. 공동밭을 돌보고 수확하며 채취하는 과정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임금노동이 아니기에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만, 분명 생산에 해당한다. 구성원들의 자급적

생산 활동이 자본주의적 노동과는 다른 종류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미즈가 제안한 대안적 노동 개념에 부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대안적 노동 개념은 크게 노동-여가의 이원론적 구분을 거부하며, 생산과 소비의 결합을 주장하고, 자연과의 관계 형성을 추구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며, 수락의 활동은 이에 대응한다. 즉 구성원들은 놀이와 생산, 쉼과 노동, 즐거움과 고됨이 결합하며 상호작용하는 노동을 실천하며, 농사를 통해 시장과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통합되는 경험을 한다. 농사는 자연 혹은 살아있는 유기체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2) 비일상적 행사와 정치성

수락은 공동 농사 모임 외에도 축제 형식의 행사를 진행한다. 2021년 진행한 행사는 3월의 시농제(始農祭), 7월의 '밭두렁 퀴어컬처축제', 10월의 '오픈데이(open day)'가 있다. 시농제와 밭두렁 퀴어컬처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지인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 오픈데이는 퍼머컬처에 관심이 있거나 수락 텃밭을 궁금해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구성원들은 음악회를 열었으며 텃밭 투어도 진행되었다. 몇몇 구성원은 텃밭에서 수확한 허브나 풀을 가공해 판매하기도 했는데, 민들레 뿌리로 만든 대체 커피, 허브 스머지 스틱(smudge stick), 허브 연고, 꽃차 등이 그 예이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행사를 준비할 때 먼저 자신들이 즐거워야 한다고 말하곤 하며, 필요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분담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수락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대안적 노동이 내포한 정치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여기서 수락 구성원들이 표현하는 정치성은 저항적, 투쟁적이기라보다는 축제와 놀이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구성원들의 일상적 농사 행위 속에 정치성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축제나 놀이 같은 비일상적 행사에서도 일정한 정치성이 표현되고 있다.

시농제와 붉은 정령들(Red Rebel Brigade), 밭두렁 퀴어컬처축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행사들은 축제나 의례, 혹은 놀이의 외형을 취하지

만, 실제로는 기후 위기, 생명 다양성,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사회적 현안을 '은근히' 반영한다. 다시 말해, 퍼머컬처 자체에 포함된 특정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현된다기보다는 수락 구성원들이 일상을 통해 공유하게 된 개인적·지역적 문제의식들이 퍼머컬처 윤리와 원리에 담긴 비판적 관점들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농제는 농신(農神)에게 한 해의 농사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보통 농사에 관계된 바람, 구름, 비 등의 신들에게 예를 갖추고 축문을 태우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락에서는 전통적인 시농제의 순서와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대지에 풍년을 기원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되 변형된 형태로 진행한다.[37] 제상을 차려 과일, 떡 등을 올려두고, 씨앗, 열매, 술 등 제물을 바치며 제문을 읽으며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짓고자 기원하는 의식의 본질적인 측면은 같다.

수락의 시농제에는 인간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반영되어 변형되거나 추가된 요소들이 있다. 전통적인 시농제에서는 돼지머리를 제상에 올리는데, 다른 도시농업 단체들의 시농제에서는 돼지 모양 저금통이나 모형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락의 경우 돼지를 대체하기보다 삭제하였으며, 돼지와 무관한 인형을 올려놓기도 했다. 수락의 시농제는 풍물패 소모임이 풍물을 연주하며 텃밭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시작하는데, 이때 기후 위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예술활동가(artivist) 팀인 '붉은 정령들'도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한다. 붉은 정령들은 풍물패와 사람들 뒤를 말없이 천천히 따라가며, 주위의 생명에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몸짓을 한다. 붉은 정령들의 붉은색 의상은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피를 상징하며, 붉은 정령들의 퍼포먼스는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로 죽어가는 생명을 위로하고 대변하여 사람들의 관심, 공감, 영감, 경각심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7) 시농제는 여러 도시농업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등 도시농업 단체들이 주관하는 시농제 사례가 있으며 거창여성농민회와 같은 지역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농업 현장의 시농제는 단체와 참여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21년 노원 도시농업협의회가 주최한 시농제의 경우 전통적 절차를 상세히 따르며 주로 중장년 남성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반면, 2020년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의 시농제는 여성과 어린이 참여자가 대다수이며 전통적 절차보다는 노래, 춤, 놀이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인다.

붉은 정령들의 퍼포먼스는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엄숙한 느낌을 주지만, 전반적인 시농제는 즐김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이다. 시농제는 수락에서 풍물 소모임을 주도해왔던 구성원의 안내로 풍년가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였으며, 구성원들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팀을 나누어 윷놀이를 하였다.

<그림 13> 시농제

시농제에 등장한 붉은 정령들은 전환 마을 운동과 함께 형성된 수락 및 전국적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붉은 정령들은 201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기후 위기 대응 촉구와 멸종 저항을 위한 대규모 시위에서 '보이지 않는 서커스단(The invisible Circus)'이라는 예술단체에 의해 시작된 국제 퍼포먼스 활동이다. 한국의 붉은 정령들은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붉은 정령들은 수락과 별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한 시민 활동에 관심이 많던 수락 구성원 일부가 붉은 정령들의 의상을 제작하며 초창기부터 참여해 왔다. 이들이 퍼머컬처와 붉은 정령들의 활동을 연계하고 있기에 수락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붉은 정령들이 등장하곤 한다.

구성원들은 붉은 정령들이 드러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멸종의 위기를 겪는 생명에 대한 위로, 공감 등이 퍼머컬처에서 추구하는 농사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붉은 정령들에 대해 몰랐던 구성원들도 텃밭에서 붉은 정령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며, 이후 행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참여하기도 한다. 붉은 정령들과 퍼머컬처의 긴밀한 관계는 2022년 8월 강릉에서 이루어진 '한국 퍼머컬처 네트워크'

출범식에서도 나타났다. 이때 강릉, 서울, 진안, 부산, 파주 등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퍼머컬처 실천 주체들이 모였으며, 이 중 약 30명이 붉은 정령 의상을 입고 해안가에서의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그림 14> 붉은 정령들의 퍼포먼스 (ⓒ하무)

수락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7월에 진행된 밭두렁 퀴어컬처축제가 있다. 구성원들은 매년 여름 진행되는 퀴어축제와 당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자는 취지에서 퀴어축제를 기획하였다. 이때 텃밭의 생물 다양성과 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결하여 인식하였는데, 포스터에는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라”는 퍼머컬처 원리가 적혀 있다. 구성원들은 평소 밭에서 일하느라 입지 못했던 화려한 옷을 드레스 코드로 정하고, 음악을 틀고 텃밭에서 춤을 추며 행진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연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림 15> 밭두렁 퀴어컬처축제 포스터

3)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

수락 텃밭에서 구성원들은 육체노동으로서의 농사뿐만 아니라 축제나 놀이, 정치성을 내포하는 대안적 농사를 실천하면서 생산적인 노동과 비생산적인 여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문을 던진다. 자본주의적 노동의 관점에서, 화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임금 노동은 무가치하며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된다. 이와는 달리, 구성원들은 수락에서의 퍼머컬처 실천이 자급적인 생산 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적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수락의 농사 행위가 수익을 추구하는 일은 아니므로 “취미생활”이라고 말하는 구성원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성원들이 수락의 활동을 임금노동에 비해 부차적이며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취미나 여가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참여 초반에는 수락에서의 실천이 상업적 농업이 아닌 자급적 농사라는 점에서 노동이 아닌 여가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에 의문을 가지며 노동과 여가의 경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가령 구성원 딸기는 이전에는 자신을 텃밭에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나, 1년 넘게 수락에 참여하면서 자신 역시 “다양한 농부” 중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농부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특히 자급적 농사를 짓던 농부와 산업적 농업 아래에서의 농부를 비교한다. 전문화된 직업으로서 농부는 산업적 농업 아래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구성원 딸기는 이러한 농부의 범주를 넓히면서 “취미일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농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올해 작년 하면서 ‘나는 농부다’라고 하기보다는, 농부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점차 숲밭도 하고 그러면서 농부라는 게 별, 그걸로 수익을 내고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생계 자급하던 농부가 산업농의 농부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용어가 다르긴 하잖아요. 다양한 농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은 이런 식의, 취미일 수도 있고 이게 일이

될 수도 있고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딸기)

구성원들이 수락에서 짓는 농사는 무임금의 자급적 노동에 해당하지만, 구성원들은 이를 자본주의적 노동의 관점처럼 무가치하거나 노동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미즈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대한 비판과 공명한다. 그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실제로 무임노동과 임금노동 모두를 포괄하지만 무임노동의 형태들을 배제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미즈 2014[1986]: 125). 여기서 미즈가 언급한 무임노동의 형태에 농부의 자급형 노동도 포함되며,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수락의 구성원들은 자본주의적 노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농사보다는 먹거리를 자급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퍼머컬처를 실천한다. 또한,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높이는 퍼머컬처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대응 의지를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가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느꼈던 허무함, 불만족, 정신적 빈곤감 등을 극복하기도 한다. 구성원 우엉은 자신이 관행농업을 하는 부모님의 노동과는 다른 방식과 목적을 지닌 노동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농사는 식량 자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실천이라고 말한다.

관행농을 하면 365일 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을 관리해야 하니까. … 사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부모님처럼 되게 일에만 묻혀서 살 듯이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먹고살기 위해서는 농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경제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앞으로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식량 자급은 필요한 일이고. 흙을 가꾸는 일을 퍼머컬처는 많이 배우잖아요. 탄소를 흙에 가두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농사지어) 먹고산다고 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돈을 벌고 먹고 산다는 아닌 거 같아요. (우엉)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농업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지 퍼머컬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업적 관행농업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급적 농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2021년 2년 차가 된 수락 텃밭에서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온 흙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기에 수확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농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퍼머컬처를 통해 자급과 화폐소득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생활을 희망한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구성원 민들레는 "반농반X(半農半X)"[38] 즉 농사를 지어 식량을 자급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삶의 방식을 언급한다. 반농반X에서 농사는 소규모의 자급적 생산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일을 통해 충당한다.

> 나중에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수확물로. (농사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생활비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취미생활로. 경제적으로 그게 돈벌이가 되면 그냥 농사만 지어도 되는데. 혼자 하긴 어렵고 판로도 뚫어야 되고 쉽지 않네요. 뭐 인증도 받아야 되나. … 반농반엑스(X)라는 책 있잖아.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고, 조금만 일해서 생활비 벌고. 읽을 만하더라고요. 일본사람이 쓴 책인데. 지역에서 농사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으면서 다른 일로. (민들레)

즉 수락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는 산업적 농업의 대안이자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으로, 이들은 대안적 농사를 실천하며 이를 통해 대

38)'반농반X'란 시오미 나오키(鹽見直紀)의 저서 『반농반X의 삶』(2015)에서 나온 개념으로, "작은 농업을 통해 식량을 먹을 만큼만 생산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귀농·귀촌과 대안적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목받았다.

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생존과 생활이 임금노동과 상품 소비에 의존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농사를 기반으로 한 자급적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나아가,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노동에 관한 자본주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근거를 마련한다.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노동의 비중을 줄이고자 한다. 산업적 농업에서 대규모의 자동화를 추구한 것은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의 노동이 축소되면 여가의 비중이 높아져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사는 진보하지 않으며 지루하고 고된 노동에 해당한다. 보부아르와 아렌트는 단일하고 진보적인 근대적 시간과 달리 반복적인 시간을 여성적, 가정적, 모성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념화했으며 아무 의미도 남지 않는 비생산적이고 무용한 것으로 보았다(Baraitser 2017: 70-72). 즉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급적 농업은 반복적이며 순환하는 전근대적 흔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퍼머컬처는 순수한 반복이라기보다 순환하면서 나아가는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퍼머컬처 기반의 농사를 실천하는 수락 구성원들은 토양 속 미생물의 회복과 숲과 닮아가는 밭을 구현하며 점차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복이 아닌 순환을 통한 전진의 모습을 닮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퍼머컬처 농사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에 기초한 노동인 농사 행위가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며 지루하다는 것을 반박한다. 구성원들은 수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이 어떠한 형태로 가능할 것인지 실험한다. 이때 놀이와 생산은 결합해 있으며, 구성원들은 기존의 임금노동 경험에서 부재했던 창조성, 자율성을 추구한다. 이들은 고되고 반복적인 노동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텃밭의 경관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느끼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한다. 또한,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효능감을 느끼며 흙을 살리는 농사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크리스테바는 서사시적 시간에 대비되는 창조적 시간(creative time

against epic time)을 제시하며,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이 직선적, 근대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적 시간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Apter 2010: 4). 반복성에서 해방을 찾을 수 있다고 본 크리스테바의 관점으로 수락의 실천을 설명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임금노동과 자본주의적 생산 및 소비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과 의문은 직선적 시간을 전제하는 근대적 진보 관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구성원들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농사 행위를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며 지루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반복되며 순환하는 텃밭의 시간 속에서 자본주의적 노동, 기후·생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있다.

3. 대안적 문화와의 연대

수락 구성원들의 실천은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일종의 대안적 문화의 형성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서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는 위계적 조직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수락에서는 구성원에게 고정된 직위를 부여하거나 이들을 조직화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락 구성원들은 위계적 조직화를 거부하며, 고도의 조직화와 위계화를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성원들은 소위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존 단체들의 조직 문화가 실제로는 위계적 관계에 기초하며, 주어진 현안 외의 의제들은 배제하는 독선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따라서 수락 구성원들은 나이, 사회적 직위, 성별, 결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계를 형성하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문화의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시도가 지니는 구체적인 특징을 수평적 관계, 대안적 대화방식, 자율성과 책임 강조로 파악한다. 첫 번째, 수평적 관계를 위해 구성원들은 나이, 사회적 직위, 결혼 여부, 출신 학교 등을 기준으로 서로를 소개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암묵적인 합의를 따르고 있다. 특히 1년 농사를 시작하며 처음 만난 구성원들이 서로 소개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수락 텃밭 바깥에서의 개인적 삶의 경로나 사회적 위치 등을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물론 함께 일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히곤 하며, 나이의 경우 외형적으로 대략적인 연령대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이 언급하고자 하는 특정 대화 맥락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나이, 사회적 직위, 결혼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묻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성원 딸기는 “결혼 지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과 달리, 수락 구성원들은 결혼 여부로 서로를 구분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인연”이라 표현한다. 수락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것도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성원 일부는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별칭을 사용한다. ‘님’이나 ‘씨’ 같은 의존명사나 직위 없이 별칭만 호칭하는 편이다.

> 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비혼이든 기혼이든 사별이든 이혼이든 간에 결혼 지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딸기)

두 번째, 구성원들은 이러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화방식을 지향한다. 가령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농사 경험을 지도하려 하거나 혹은 농사 경험이 없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지 않는다. 퍼머컬처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도움이나 조언을 주고자 할 때도 먼저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묻는다. 이러한 태도는 구성원 다수가 기존에 대안적 대화방식과 관계를 추구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을 수락에서도 실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구성원 우엉과 딸기는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해왔다고 말한다.

>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회복적 서클이나 비폭력 대화라고 해서 대안적인 대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있어요. … 대학교 이후에 청년공동체 ○○에 갔었고, 대안학교에 6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이 익숙해진 거 같아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별명으

로 부르고 동등한 목소리를 내려고 질문하고 노력하고 하는 걸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엉)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문화 단체)라는 걸 대학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어린이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활동들을 해왔어요. 어린이 캠프 때 아이들과 수평적인, 자기 의견 말하게 하고. 별칭을 거기서도 썼고 공동육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들을 별칭으로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법에서 소통하기 어려운 일차적인 관문이, 나이라던가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쉽진 않지만) 어쨌건 익숙하긴 해요. 그런 익숙한 문화를 같이 동조해서 북돋는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면 나도 배우고. 저는 그때 10대 친구들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알바를 한다던지. 오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걸 그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서로 배우는 거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딸기)

세 번째, 구성원들은 규칙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중요시한다. 수락에서 구성원들은 제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점과 같은데, 그들 사이를 잇는 선은 언제든 이어질 수 있지만 항상 이어져 있지는 않다. 가령 구성원들은 공동 농사 모임에 참여하는 한편, 개인 밭은 각자 희망하는 규모로 분양받아 원하는 대로 가꾼다. 이외에 시시때때로 소모임을 조직하기도 한다. 소모임은 누구든 주도할 수 있으며 목표한 기간이나 목적 달성 이후 자유롭게 해산한다. 농한기 뜨개질 모임, 책 낭독 모임, 함께 풍물을 배우는 풍물패 모임, 감자, 고추, 땅콩, 들깨 등 작목반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모임과 활동 방식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한다'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물론 수락의 자율성은 완전히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자율은 수락에서 정한 약속문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각자가 지닌 여력과 의지에 따라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지만, 그 근간에는 함께 농사짓는 수락 텃밭에 대한 공

동의 책임이 있다. 개인 밭은 자유롭게 가꾸지만, 수락의 약속문에는 개인 밭 역시 다년생 작물 심기, 멀칭, 다양한 식재 등 퍼머컬처 농사 원리에 기초해야 가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 밭만을 가꾸는 주말농장 형태가 아니라 모임을 통해 공동밭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수확물을 함께 나눈다. 구성원들은 공동 농사에서 이루어지는 협동과 책임 의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를 통해 수락에 "더 애정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 우리 규칙 있잖아, 나눠 가지고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 책임을 지는 거잖아 같은 공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밭) 안 가꾸면 밭 뺏는다고도 하고. 개인 밭도 전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토마토)

> 작년에 작목반, 특히 고추작목반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의 힘에 대해 너무너무 환호했죠, 마음 속에서. 와 이게 가능하다. 그런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우리 퍼머컬처 공동체에 더 애정을 쏟을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바람)

하지만 수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공동 농사에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혼자 밭에 와서 일할 때는 "내 페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는" 데 비해, 모임에서는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되며, 따라서 쉬고자 할 때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한다.

> 같이 풀 뽑는데 내 몸이 우선 나가 떨어져도 같이 할 때까진 해야 되는 거잖아. 왠지 더 게으름 못 피우겠고. … 책임감과 의무가 지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내 체력과 그런 여력의 범위에서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 있고. (박하)

> 한편으로는 공동체 밭은 다른 지역에선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 거예요. 같이 뭔갈 한다는 게 좋기도 하면서 어렵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쉬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해야 하니까. (해바라기)

실제로, 몇몇 구성원들은 참여나 기여를 규칙화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규칙화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수락을 '퍼머컬처 공동체'라 부르지만, 이때 공동체는 규칙과 구속에 기초한 마을 공동체와는 다르다. 아래 구성원들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이 수락에서 형성하는 관계의 성격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이다. 구성원들은 수락에서 형성하는 관계의 성격과 만남의 빈도가 적당하다고 느낀다.

> 저는 사실 공동체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혼자 일하는 걸 사실 더 좋아해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하는 건 괜찮은데, 같은 마을에 살고 막 같이 해야되고 이런 건 힘들 거 같아요. 딱 이 정도가 좋은 거 같긴 해요. 같이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수선화)

> 엄청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뭘 혼자 하는 걸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거리감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막 너무 구속하는 ○○마을 이런 공동체는 매우 싫어. 난 약간 마을에서 사는 정도의 거리감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너무 많은 걸 쉐어하면 힘들어. 규칙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옥수수)

즉 구성원들은 공동 농사의 책임과 의무에는 동의하지만, 공평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규칙"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에 대해 수락이 취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참여와 관련한 규칙을 강화하기보다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되 이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임 이외에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공동밭을 돌본 구성원들은 단체카톡방을 이용해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에 고마움을 표하곤 한

다. 구성원들은 농사에 공평한 기여를 엄격히 규칙화하는 분위기는 경계하며, 각자 마음과 여력을 살피며 참여하도록 맡기는 편을 택한다. 구성원 딸기는 공동 농사를 지을 때 게을러지는 순간도 있으므로 규칙이 필요하지만, “너무 규칙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삭막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감하는 수락 구성원들은 삭막한 분위기를 경계하며 “서로를 배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그것의 피해같은 게 조금 있거나 탓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지금은 작년보다 누그러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더 커진 것 같은데 편하게 그런 것도 얘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토마토)

두 번째, 구성원들은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며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한 달에 2회인 모임에서는 밭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일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구성원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구성원들은 모임 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좋은 것만 있는 건 가짜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갈등이 있고. 잘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다른데. 한 달에 2번은 진짜 일을 하러 오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고 자면서 여기 있었으면 한 1달 만에 파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얼마나 힘든데. 언성 높아지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해바라기)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작년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올해는 두 번 만나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났을 땐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돌아가는 거라던가 많은 정보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오픈돼

서 같이 공유되고 같이 토의되기보다는 뭔가 좀 걸러지거나 아니면 정리된 상태에서 전달되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전달받는 입장일 때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건 앞으로 좀 토의가 돼서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바람)

이 절에서 살펴본 수락 구성원 간의 관계와 문화는 수락이 지니는 대안적 성격을 보다 확장하여 보여준다. 구성원들은 수락에서 위계적 조직문화의 대안으로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며 대안적 대화방식을 실천하고, 책임과 의무를 전제하되 참여를 규칙화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락은 위계적 조직문화 및 구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을 거부하고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락이 추구하는 대안적 문화는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대안적 농사와 함께, 구성원들이 모색하는 대안적 노동을 구성한다.

Ⅴ. 결론

수락 구성원들의 퍼머컬처 실천은 자본주의적 노동을 비판하며, 에코페미니즘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노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다. 퍼머컬처의 정의 및 개념과 에코페미니즘의 주요 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대안적 노동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며, 수락 구성원들의 활동은 이러한 공유의 지점을 현실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퍼머컬처는 1970년대 초 호주에서 고안되어 퍼머컬처 교육과정인 PDC 진행, 잡지 창간, 생태 마을 형성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퍼머컬처 실천 양상과 그에 관한 연구들은 호주, 북미, 유럽 등 서구사회의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서구 사회에서도 퍼머컬처 운동이 확산해왔다. 연구자는 퍼머컬처를 서구사회에서 고안되어 비서구 사회로 전파되고 이식된 농사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서구와 비서구의 퍼머컬처 주체들이 실천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상 및 운동이라 본다. 퍼머컬처가 처음 형성되는 단계에서 비서구 사회의 전통농업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으며, 비서구 사회의 퍼머컬처가 서구사회와 다른 맥락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와 비서구의 퍼머컬처 운동은 서로 연결된다.

연구 대상 수락 구성원들의 경험과 생각은 퍼머컬처와 에코페미니즘의 특성이 구체화되는 방식을 보여주며, 농사라는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과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구성원들은 산업적 관행농업과 그것을 지탱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생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에코페미니즘에서 자본주의-가부장제 체제가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여성, 자연, 식민지를 자원화하여 착취, 전유해왔다고 비판하는 것과 유사하다. 구성원들은 수락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주의적 생활양식과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들은 대안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활 속에서 상품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자립의 방법을 찾고, 또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자급을 추구한다. 특히 농사가 먹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급

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퍼머컬처를 실천하게 되었다.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농사 방식은 산업적 관행농업이 아닌 자급적 농사로, 수락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판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은 국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관행농업의 방식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자본주의 산업으로서의 농업 체제를 비판한다. 이에 따라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부터 농사를 짓고자 수락에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대안적 삶의 공간을 희망하며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기도 하지만, 이때 기존 농촌에서 경험했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지역사회의 모습을 상상한다. 동시에 도시가 아닌 다른 이상적 삶의 공간이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현재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자 수락에 참여한다.

특히, 연구자는 Ⅳ장에서 구성원들이 수락에서 실천하는 퍼머컬처가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구체적인 농사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구성원들은 퍼머컬처 기반의 농사가 먹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급의 기반일 뿐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흙을 살리는' 농사를 짓는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때 흙은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인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상화, 외부화하여 착취하는 자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 자연을 자본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산업적 관행농업과 달리, 퍼머컬처는 자연과 인간의 공동생산으로서의 농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대안적 농사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이 수락에서 짓는 농사는 무임금의 자급적 노동으로, 자본주의적 노동의 관점에서 무가치하거나 비생산적인 전근대적 흔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퍼머컬처 실천을 단순히 임금노동과 대비되는 여가나 취미로 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구성원들은 놀이와 생산, 즐김과 부담이 뒤섞인 노동을 실천하며, 이러한 일과를 정치성을 담은 행사와 병행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노동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수평적 관계, 대안적 대화방식,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느슨한 관계망에 기초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가며 위계적 조직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락 구성원들

이 농사를 통해 성취한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수락 구성원들이 퍼머컬처 및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적 주장을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의 양식들을 확장 및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앞으로 수락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과제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퍼머컬처의 수익화 방안이다. 구성원들은 생활 속에서 자급의 비중을 높이며 자본주의의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농비용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이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이러한 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구성원들은 수락에서의 퍼머컬처 실천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과 생산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며, 자급·자족적 삶을 지향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를 퍼머컬처에 기초한 수익 모델을 통해 충족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고민에 바탕한 시도가 필요하다.

수락이 추구하는 수익화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수익 추구와 같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기존 농업에서 관행화된 생산과 수익구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구성원 옥수수는 기존의 농업에서 생산성이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라고 말하며, 퍼머컬처가 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수락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수익화의 기본적 방향, 즉 자본주의적 생산성에 기초한 대량생산과 원거리 유통을 비판하며, 퍼머컬처의 수익화는 오직 지역사회 중심의 유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원 옥수수는 퍼머컬처가 지니는 생산성과 효율성은 구체적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기준을 반박하는 퍼머컬처 고유의 생산성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나는 항상 상생농법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랑 뭐를 같이 심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약간 믿기 어려워서, 아직은. 그걸 조금 더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질소고정 식물이 정말 옆 식물까지 도움을 주냐, 자기가 질소고정을 하는 거지 옆에 애까지 영양소를 줄 수 있냐, 정말 그런가?

>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연구해보기로 했어. 퍼머컬처에서 의심스러운 많은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검증해내자. 정말 고수랑 뭐를 같이 심으면 벌레가 안 오는가. 정말 균사를 오른쪽으로만 저어야 하는가. 숲밭도 좀 더 실험해보고 싶고. … 땅이 변하는 것도 되게 보고 싶고. 탄소를 격리한다는 방식이 뭐가 더 있을지도 좀 더 실험해보고 싶고. 토마토가 떨어져서 (다음 해에 싹이) 나는 게,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씨가 떨어져서 날 수 있을 것인가. (옥수수)

둘째, 퍼머컬처는 대중적인 농사법이자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락 구성원들은 퍼머컬처를 단순한 농사 기법으로만 여기지 않으며 사회운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데, 이는 퍼머컬처의 실천이 교육적인 접근과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다면 퍼머컬처가 텃밭 관리 기법으로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McCarthy 2019: 103). 구성원들은 퍼머컬처를 기술적 개념으로 축소하기보다, 퍼머컬처 기반의 텃밭을 구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퍼머컬처가 유기농업으로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가드닝으로 위장한 혁명(revolution disguised as organic gardening)”이며, 환경 및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급진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반영한다(Fadaee 2019: 722). 같은 맥락에서 퍼머컬처는 대항 문화(Crosby et al. 2014), 환경 및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혁명(London 2005; Richards 2015; Alexander 2016)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혁명은 외부에 지속적인 압력이나 주장을 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구성원들의 의식에 내재한 정치성을 발견하며 이를 자신들의 실천과 연결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퍼머컬처의 사회적 확장은 앞서 언급한 수익화와도 연결된다. 구성원들은 2020년 수락을 시작할 때부터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활용하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식당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납품 등, 퍼머컬처 기반의 대안적 경제를 실현하려는 방안들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들은 토지 사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퍼머컬처를 실천할 수 있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은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 가령 미국의

퍼머컬처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성격의 워크숍 진행 사례가 가장 흔하며, 농장이나 마을 단위에 기초한 장기적인 퍼머컬처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따라서 퍼머컬처가 사회운동으로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의 부재(不在)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구조나 신념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사회문화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원 옥수수는 이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시도와 실제 예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기존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사과 농사짓고 있는 사람한테 숲밭을 하라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좀 더 튼튼하게 기후 운동이랄지 생태적인 사회에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 좀 더 담론도 예시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너무 예시가 없으니까. 생태적인 공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예시가 별로 없는 거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수)

구성원 옥수수의 주장처럼, 수락 구성원들은 수락을 퍼머컬처 실현지로 조성하여 생태적 공간의 사례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락 텃밭이 장기간 퍼머컬처 기반의 농사로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사람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작물과, 퍼머컬처에 기반하여 수락에서 생산하는 작물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퍼머컬처에서 추구하는 자립·자족적 체계는 다년생 작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관행농업에서 일년생 작물 생산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반한 식생활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주된 식량작물은 일년생이며, 다년생 작물들은 먹거리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기존의 일년생 식량작물 중심의 식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성원 바람은 대중적으로 재배해온 일년생 식량작물의 비중은 줄이고, 다년생 작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현재 저의 퍼머컬처 농사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주 작물, 한국인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작물들이 대부분 일년생인 거예요. 일년생들이 우리의 주 작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퍼머컬처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럼 이 작물을 포기하고 우리의 식탁을 바꾸나?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그게 좀 고민이에요. 퍼머컬처 워크샵이나 가보면 허브도 많이 올라오고 메뉴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라기보다 서양 음식과 혼합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밭에 나는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 했을 때 우리가 퍼머컬처 농사, 다년생 위주의 다양한 식물, 노지 월동 가능한 식물(을 심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한 다년생 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방풍, 더덕, 도라지, 머위, 산마늘 이런 종류 정도. 뿌리채소나 열매채소는 다 일년생인 거죠. 그럼 감자를 안 먹고 사나, 고추를 안 먹나 이것도 아니고. 그 고민들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개네(일년생)는 양을 줄이거나. 농사를 짓긴 짓는데 다년생 작물 사이사이에 일년생 작물을 심으면 개네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개네가 좀 식탁에 덜 올라오는 거죠. 옛날엔 감자 엄청 넣은 감자국이나 감자 백프로로 만든 감자전을 매일 구워먹었는데 이젠 감자는 다른 채소구이에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 바뀐다던지. 1년생 작물은 채종해서 심고. 그러려면 씨앗 자립도 되야 되는 건데 그것도 문제고. 고민이 많아요. (바람)

연구자가 정리한 세 가지 과제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가는 구성원들이 수락에서의 활동을 지속하며 퍼머컬처를 사회운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수익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퍼머컬처에 기반한 농사로 도시 지역의 자급적인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구성원들은 사적인 소유나 여가 생활의 일부가 아닌 사회적·생태적 변화를 위해서 수락 텃밭을 퍼머컬처 실현지로서 가꾸고 있다. 즉 수락에서의 활동을 통해 폐쇄적인 자급·자

족적 마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아쉬운 것은, 수락 외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들에 대한 조사가 문헌조사에 한정되어, 글로벌 운동의 맥락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퍼머컬처 실천을 조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수락이 해외 퍼머컬처 실천 단위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비교, 분석한다면 국내 퍼머컬처 운동과 실천의 맥락을 더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거주민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에만 주목하여, 그 외의 전국적 퍼머컬처 실천 단위의 사례를 언급하지 못하였다. 지역사회 내의 관계망을 기반으로 등장한 수도권 외 지역의 퍼머컬처 실천 사례들에 주목한다면, 국내 퍼머컬처 운동의 양상과 수락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단행본

금창영, 2022, “농민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 대안,”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3월 30일.

김영민, 2001, “퍼머컬쳐 원리를 적용한 농촌마을의 환경계획: 충남 홍성군 문당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2011,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기반한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의 특성과 과제,” 『농촌사회』 21(2): 263-300.

———, 2013, “비혼 여성 활동가들의 공동체 농사를 통해 본 도시농업의 여성주의적 실천 가능성,” 『한국여성학』 29(4): 113-154.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손덕수·이난아 역), 2020[1993],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젠(꿈지모 역), 2013[1999],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마리아 미즈(최재인 역), 2014[1986],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문순홍, 2015,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6: 316-327.

손슬기, 2013,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이수현, 2015,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본 소규모 가족농의 대응방식과 여성농민의 재구성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언니네텃밭’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신애·정재용, 20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귀농공동체단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이스라엘 모샤브와 한국의 수익형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6(1): 219-272.

정다래, 2009, “비혼 귀농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정·허남혁·김홍주, 2011, “텃밭 공간을 통해 본 여성과 장소의 정치,” 『농촌사회』 21(2): 301-344.
진명숙, 2019,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토종씨앗 지키기 실천 분석,” 『농촌사회』 29(2): 33-76.
최은주, 2012, “비혼여성 농촌이주와 자기충족의 윤리,” 『여/성이론』 26: 46-62.
허장, 2007,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위기에 관한 논의,” 『농촌경제』 30(1): 1-30.
황주영, 2016a, “페미니즘에서 자연의 위치들 - 에코페미니즘과 그로츠의 조우 가능성의 탐색,” 『시대와 철학』 27(1): 295-323.
———, 2016b, “샌딜랜즈: 급진민주주의 정치학으로서의 에코페미니즘,” 『여/성이론』 34: 161-174.
최영호, 2006, “전원형 생태주거단지 계획 연구,”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인수, 2014, “해외 사례 - 독일 에너지 자립 ‘윤데마을’과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찾고 부여하다,” 『월간 주민자치』 37: 42-45.

Aiken, Gerald, 2012, "Community Transitions to Low Carbon Futures in the Transition Towns Network (TTN)," *Geography Compass* 6(2): 89-99.
Apter, Emily, 2010, ““Women’s Time in Theory.”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21(1): 1-18.
Baraitser, Lisa, 2017, *Enduring time*,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Beus, Curtis E., and Riley E. Dunlap, 1990, “Conventional versus Alternative Agriculture: The Paradigmatic Roots of the Debate,” *Rural sociology* 55(4): 590-616.
Brawner, June, 2015, “Permaculture in the Margins: Realizing Central European Regen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22: 357-465.

Caraway, Rose T., 2018, “The Spiritual Dimensions of the Permaculture Movement in Cuba,” *Religions* 9(11): 1-18.

Conrad, Abigail, 2014, “We Are Farmers: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Adaptive Capacity among Permaculture and Conventional Farmers in Central Malawi,” Ph.D. dessertation in Anthropology, American University.

Crosby, Alexandra, Jacquie Lorber-Kasunic, and Ilaria Vanni Accarigi, 2014, “Value the Edge: Permaculture as Counterculture in Australia,“ *M/C Journal* 17(6).

Didarali, Zahra and James Gambiza, 2019, “Permaculture: Challenges and Benefits in Improving Rural Livelihoods in South Africa and Zimbabwe,” *Sustainability* 11(8).

Fadaee, Simin, 2019, “The Permaculture Movement in India: a Social Movement with Southern characteristics,” *Social Movement Studies* 18(6): 720 - 734.

Ferguson, Rafter S., and Sarah T. Lovell, 2014, “Permaculture for Agroecology: Design, Movement, Practice, and Worldview. a Review,” *Agr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4(2): 251-274.

———, 2015, “Grassroots Engagement with Transition to Sustainability Diversity and Modes of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Permaculture Movement,” *Ecology and Society* 20(39).

Gui, Xinning and Bonnie A. Nardi, 2015, "Sustainability Begins in the Street: a Story of Transition Town Totnes," 29th EnviroInfo and ICT for Sustainability, Copenhagen, Sep 7-9.

Heckman, Joseph R., 2013, “Soil Fertility Management a Century Ago in Farmers of Forty Centuries,” *Sustainability* 5(6): 2796-2801.

Holmgren, David, 2002, *Permaculture: Principles and Pathways Beyond Sustainability*, Holmgren Design Services.

Hopkins, Rob, 2008, *The Transition Handbook: from Oil Dependency*

to Local Resilience, Totnes: Green books.
———, 2011, *The Transition Companion: Making Your Community More Resilient in Uncertain Times*, Chelsea Green Publishing.
———, 2012, "Peak Oil and Transition Towns," *Architectural Design* 82(4): 72-77.
Ingram, Julie, Damian Maye, James Kirwan, Nigel Curry, and Katarina Kubinakova, 2014, "Learning in the Permaculture Community of Practice in Englan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Practices and Boundary Process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1-16.
Kristensen, Lasse, 2018, "Permaculture and Political Economy," Master's thesi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EVRO Institute.
Landon, Amanda J., 2008, "The "how" of the Three Sisters: The Origins of Agriculture in Mesoamerica and the Human Niche," *Nebraska Anthropologist* 40: 110-124.
Lockyer, Joshua, and James R. Veteto, 2013, *Environmental Anthropology Engaging Ecotopia: Bioregionalism, Permaculture, and Ecovillages*, New York: Berghahn Books.
Massicotte, Marie-Josée, and Christopher Kelly-Bisson, 2019, "What's Wrong with Permaculture Design Courses? Brazilian Lessons for Agroecological Movement-Building in Canada,"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36: 581-594.
McAdam, Doug, 2013, "Initiator and Spin-off Movements," In Snow, David A., Della Porta, Bert Klandermans and Doug McAdam (eds.),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Malden, MA: Wiley Blackwell, pp. 605 - 607.
McCarthy, Sarah, 2019, "Revolution Disguised as Gardening? An Encounter between Political Theory & Permaculture in Denmark," Master's thesis in Human Security, School of Culture and Society, Aarhus University.

Mesly, Philippe, 2020, “The Concept of Nature in the Thought of Hannah Arendt,” Master’s thesis in Environmental Studies, York University.

Mies, Maria, and Ariel Salleh, 1990, “Woman, Nature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Science as Culture* 1(9): 73-87.

Mollison, Bill and David Holmgren, 1978, *Permaculture One: A Perennial Agriculture for Human Settlements*, Tagari Publications.

Mollison, Bill, 1988, *Permaculture: a Designer’s Manual*, Tagari Publications.

Morel, Kevin, Francois Leger, and Rafter S. Ferguson, 2019, “Permaculture,” *Encyclopedia of Ecology*, 2nd edition, Elsevier, 4: 559-567.

Oliveira, Hugo, and Gil Penha-Lopes, 2020, “Permaculture in Portugal: Social-Ecological Inventory of a Re-Ruralizing Grassroots Movement,” *European Countryside*, 12(1): 30-52.

Roux-Rosier, Anahid, Ricardo Azambuja, and Gazi Islam, 2018, “Alternative Visions: Permaculture as Imaginaries of the Anthropocene,” *Organization* 25(4): 550-572.

Salman, Aneel, 2007, “Ecofeminist Movements -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46(4): 853-864.

Smith, Caroline, 2015, “Permaculture - History and Futures,” *Foresight International.*

Stites, Jessica, 2014, “Is Your Town in Transition?,” *Reflections* 14(1): 19-26.

Suh, Jungho, 2014, “Towards Sustainable Agricultural Stewardship: Evolu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Permaculture Concept,” *Environmental Values* 23(1): 75-98.

Tovey, Hilary, 1997, “Food, Environmentalism and Rural Sociology: On the Organic Farming Movement in Ireland,” *Sociologia*

Ruralis 31(1): 21-37.
Van der Velden, Naomi K., Andy Goldring, Andrew Langford, Robin Clayfield, Ed Walta, Ian Lillington, Starhawk, Koreen Brennan, Javiera Carrion, Grifen Hope, Hannah Smith, Ben Habib, Jennifer English, and Martijn van der Kampf, 2017, "The Next Big Step: Permaculture, Practices, Passions and Priorities for Collaborative Working," The Permaculture Association, Leeds: Hollybush Conservation Center.
Veteto, James R., and Joshua Lockyer, 2008, "Environmental Anthropology Engaging Permaculture: Moving Theory and Practice Toward Sustainability, Culture,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30(1-2): 47 - 58.

<자료>

기관자료

『2020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 2020, 통계청.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전략』, 2021,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자료

김종선, 2020, "그린 뉴딜 시대를 이끌 친환경 퍼머컬처기업, 애플체인," 5월 18일,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682 (2022.10.31. 접속)
김충기, 2020, "[시농제소식] 만수르 공동체텃밭의 새로운 시도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http://www.dosinong.net/2020/05/blog-post_86.html (2022.03.15. 접속)
유희정, 2017, "전환마을을 선언하자," 프레시안, 4월 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5352 (2022.10.30. 접속)
서울도시농업 기자단, 2021, "노원 도시농부들, 봄을 여는 시농제 열다,"

서울도시농업 3월 31일, https://cityfarmer.seoul.go.kr/brd/view.do?nttSn=6182&key=1905228807693&pageIndex=1&sc=&sw=&tr_code=sweb (2022.03.15. 접속)
신동호, 2009, “[신동호가 만난 사람]농촌을 컨설팅하는 임경수 ㈜이장 대표,”주간경향 12월 15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2101 359341&pt=nv (2022.10.26. 접속)
심우리, 2022, “판동초, 퍼머컬쳐 텃밭교육 시작,” 4월 21일, 보은사람들, http://www.boeunpeo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78 (2022.10.31. 접속)
이혜림, 2022, “쓰레기로 만난 사이,”10월 15일, 일다, https://www.ildaro.com/9464 (2022.10.30. 접속)
전윤서 2021, “[쿱스쿨 ②] 학교-마을-지구, 모두가 연결된 '추풍령쿱피스',” 3월 11일,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066 (2022.10.31. 접속)
전환마을네트워크, https://www.facebook.com/koreatransitionnetwork (2022.07.23. 접속)
조은비, 2022, “도심에서 '생산하고 순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환마을 은평,” 뉴스펭귄 7월 21일,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3 (2022.10.26. 접속)
퍼머컬처 학교, https://www.facebook.com/permacultureschoolkorea (2022.07.23. 접속)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951
협동조합 이장, https://e-jang.net/21?category=922670 (2022.2.18. 접속)

Alexander, Samuel, 2016, “A Revolution Disguised as Organic Gardening: In Memory of Bill Mollison,” Sep 28, https://theconversation.com/a-revolution-disguised-asorganic-ga

rdeni ng-in-memory-of-bill-mollison-66137 (2022.02.19. 접속)
An Opus Earth Production for Schumacher College, 2014, “Transition in Action: New Economy Projects in the Southwest of England,” Oct. 30, https://www.youtube.com/watch?v=21NPv-GnVlM (2022.10.27. 접속)
Apple Seed Permaculture, https://www.appleseed.design/ (2022.02.19. 접속)
Brookman, A. and G. Brookman. 2005. “Commercial Scale Permaculture at the Food Forest,”A paper presented at the 2005 National Permaculture Convergence, Melbourne, http://www.foodforest.com.au/assets/pdfs/commercialscalepermaculture.pdf. (2022.07.12. 접속)
Gallant, Scott, 2016, “Transition Ethics: The Art of Compromise,” May 11, https://www.permaculturenews.org/2016/05/11/transition-ethics-the-art-of-compromise/ (2022.05.06. 접속)
Grayson, Russ, 2015, “Towards Permaculture 3.0.,” March 9, Pacific Edge, https://pacific-edge.info/2015/03/towards-permaculture-3/ (2022.02.15. 접속)
———, 2016, “APC13: Convergence Revisits Permaculture Courses”, Oct 16, https://pacific-edge.info/2016/10/16/apc13-convergence-revisits-permac ulture-courses/ (2022.02.19. 접속)
———, 2019, “Can Permaculture Ever Become a Truly Global Movement?”, Sep 14, https://medium.com/permaculture-3-0/can-permaculture-ever-beco me-a-truly-global-social-movement-2b67df943be8 (2022.02.20. 접속)
Grayson, Russ and Steve Payne, 2007, “A Short and Incomplete History of Permaculture”, July 26,

https://pacific-edge.info/2007/07/26/a-short-and-incomplete-history-of-permaculture/ (2022.02.15. 접속)
Griffiths, Tamara, Delvin Solkinson, and Ali Ma, 2011, “Planetary Permaculture Pilgrimage – Days 6 and 7,” Permaculture Research Institute, Nov 19, https://www.permaculturenews.org/2011/11/19/planetary-permaculture-pilgrimage-days-6-and-7/ (2022.05.06. 접속)
Hopkins, Rob, 2021, “Hide Enomoto on His New Book about the Story of Transition in Japan,” June 9, https://transitionnetwork.org/news/transition-in-japan/ (2022.10.29. 접속)
International Permaculture Conference, https://internationalpermaculturecconvergence.org/ (2022.03.15. 접속)
London, Scott, 2005, “Permaculture: A Quiet Revolution – An Interview with Bill Mollison,” https://scott.london/interviews/mollison.html (2022.02.19. 접속)
Mcgowan, Meg, 2019, “Wait...Are There Three Ethics? Or Four? Or Five?,” June 12, https://smarterthancrows.wpcomstaging.com/2019/06/12/wait-are-there-three-ethics-or-four-or-five/ (2022.10.29. 접속)
Moyles, Trina, 2016, “Permaculture or Spermaculture?,” Sep 21, https://www.utne.com/food/permaculture-or-spermaculture-zm0z16fzsel/ (2022.07.26. 접속)
Nierenberg, Danielle, 2015, “16 Successful Projects Highlighting Permaculture Use.” https://foodtank.com/news/2015/07/sixteen-successful-projects-highli ghting-permaculture-use/ (2022.04.30. 접속)
Olson-Ramanujan, Karryn, 2014, “A “Pattern Language” for Women in Permaculture,” Permaculture Research Institute, Feb 18, https://www.permaculturenews.org/2014/02/18/pattern-language-

wom en-permaculture/ (2022.07.26. 접속)
Red Rebel Brigade, http://redrebelbrigade.com/ (2022.04.30.접속)
Perillo, Rick, 2017, “A History of Permaculture and its Movers and Shakers,” Feb 23, http://thecarrotrevolution.com/history-of-permaculture/ (2022.07.15. 접속)
Permaculture Global, “Worldwide Permaculture Projects,” https://permaculturegloba l.org/projects (2022.07.21. 접속)
Permaculture Institute of North America, “History of PINA: a Brief History of PINA & North American Permaculture,” https://pina.in/history-of-pina/ (2022.07.30. 접속)
Richards, Chip, 2015, “Permaculture is Revolution Disguised as Organic Gardening,” Uplift, https://upliftconnect.com/permaculture-is-revolution/ (2022.02.19. 접 속)
Scott, Robert, 2010, "A Critical Review of Perm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Jan 1, Unpublished paper, http://robscott.net/2010/ (2022.04.30. 접속)
Transition Network, 2021a, "What is Transition?," Last modified 2021, https://transitionnetwork.org/about-the-movement/what-is-trans ition/ (2022.10.27. 접속)
———, 2021b, “The History of Inner Transition,” https://transitionnetwork.org/do-transition/inner/history-inner-tr ansition/ (2022.10.27. 접속)
University Permaculture, 2018, “Directory of Schools with Permaculture Courses,” https://universitypermaculture.com/directory/ (2022.4.30. 접속)
World Permaculture MAP, 2015, June 4,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JBoCMgdhpp KwaMQ vRwDEV3p8lgs&hl=en_US (2022.02.19. 접속)

Abstract

Women Farmers : Permaculture Practices as a Critic to Capitalism and Their Quest for Alternative Mode of Productive Labor

Yousun Y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case of the *Surak* permaculture group, focusing on its members' understanding of permaculture as a way to realize their alternative notions of work and labor, reflecting their critical approaches to capitalism. The group's practice of permaculture reflects the global trend of rising awareness against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increasing popular demands for alternative modes of life to the ones defined in the capitalist system. This dissertation finds the *Surak* permaculture group as an apt site to study the global circulation of agro-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Korean context. It mainly studies the personal histories of the group's members and the

alternative values that they pursue through their practice of permaculture.

Permaculture, an etymological blend of permanent and (agri)culture, was developed in Australia during the 1970s to provide alternatives to industrial agriculture, as a design system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lifestyle, making its first appearance in South Korea during the 2000s. Permaculture has been popularized globally as a bottom-up project based in local communities, and likewise, in Korea, it has expanded its scope and size hand in hand with the "transition town" movement embarked in 2014. Since 2014, numerous permaculture group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resulting in the foundation of *the Korea Permaculture Network* in August 2022 organized to facilitate interactions among domestic permaculture groups.

Surak has been one of the major groups that have contributed to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popularization of permaculture in Korea. The group is mainly composed of urban residents who are not full-time farmers, seeking alternatives to the consumerist city lifestyle. The members are motiva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mode of productive labor from their practice of permaculture, based on their critical attitude against capitalism formulated through their personal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y have shared experiences of having pursued a self-sufficient lifestyle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the capitalist way of life. Their orientation toward alternative modes of life led to their interests in farming and, consequently, permaculture, since they were also critical to the conventional mode of industrial agriculture and the capitalist system that supports it.

Members of *Surak* practice alternative farming that "saves" the soil. The way they practice the labor constituting permaculture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capitalist mode of labor built on a sharp distinction between labor and leisure and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stead, in their daily labor, mixed with community gatherings and occasional festivals, production and play are combined and toil and pleasure coexis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heir labor culture rejects hierarchy based on age or rank commonly found in Korean workplaces, building an autonomous labor culture that recognizes shared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e practice of *Surak* constructs a practical example that seek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mode of productive labor to the capitalist viewpoint that solely considers wage labor as productive. The practice of *Surak*, embodying shared criticism against capitalism and a prospect for an alternative lifestyle, exemplifies its members' endeavor to ceaselessly actualize and materialize their critical approaches to capitalism and readiness for change.

keywords : Permaculture, Alternative Agriculture, Conception of Labor, Capitalism, Climate Crisis, Ecofeminism
Student Number **: 2019-27946**